

성도의 빛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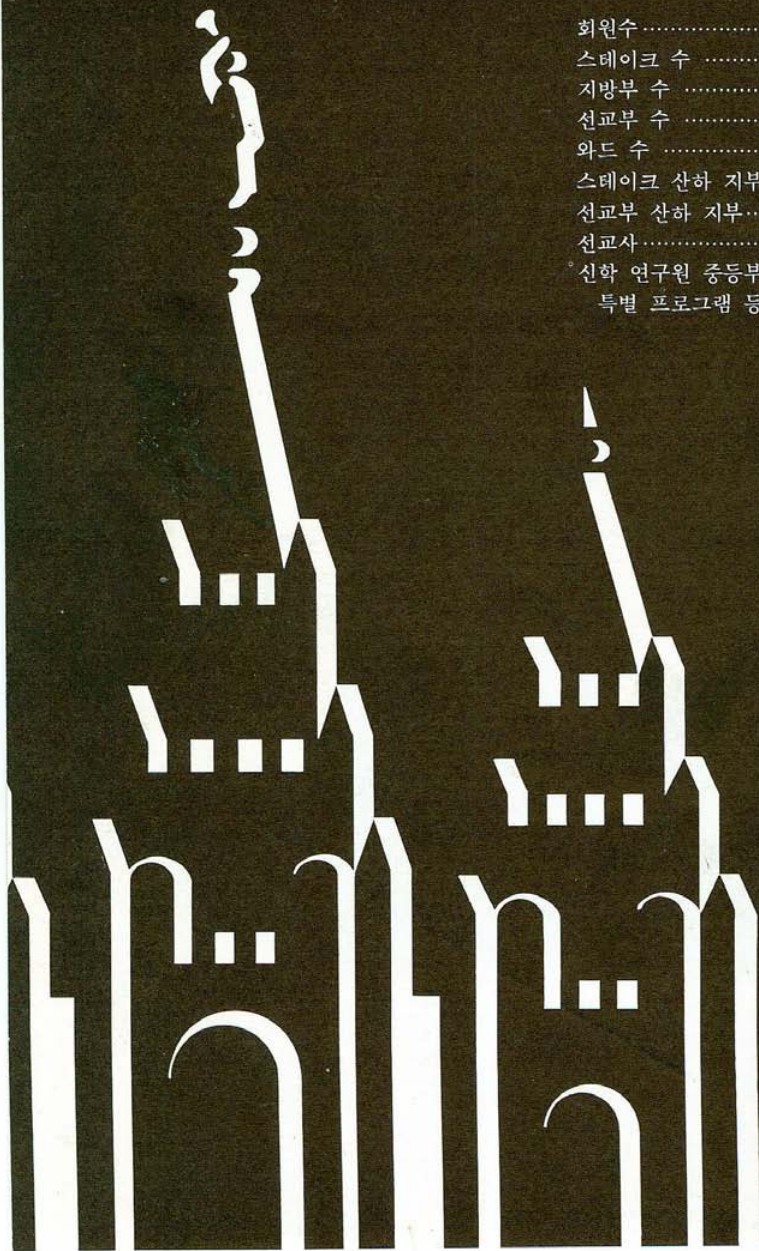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2 년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1년도 통계 보고

회원수	4,936,000
스테이크 수	1,321
지방부 수	342
선교부 수	188
와드 수	8,392
스테이크 산하 지부	2,719
선교부 산하 지부	2,102
선교사	29,700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및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	326,20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판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튼 대너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톤
브로스 알 맥클릭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화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엘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테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2 연차 대회 보고 2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 6
 예수님의 부활 메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6
 조금도 해롭지 않다 마빈 제이 애쉬톤 장로 11
 다시 시작함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 16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20
 1981년도 통계 보고 프란시스 엠 기번스 26
 진정한 위대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28
 영원한 결혼 : 인류의 희망 로버트 엘 심슨 장로 31
 깊은 생각은 영적인 생활을 강화시켜 준다 조셉 비 워슬런 장로 35
 의로운 교사를 위한 영적인 지침 진 알 록 장로 38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능가함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41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44
 신권의 교리 브로스 알 맥클릭 장로 50
 신권 활동 촉진 빅터 엘 브라운 감독 54
 실족된 형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58
 신일조 :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 63
 십년 메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68
 오백만 회원 - 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 70
 우리가 어호와와 산에 오르며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 75
 성실성, 모든 덕성의 어머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80
 가족 기도의 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85
 인생 향로의 안전한 항해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90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9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100
 처음과 마지막 말씀 디어도어 에이 티클 장로 102
 교회의 미래의 역사 지 호머 더럼 장로 105
 사랑은 가족을 안위해 주는 힘이 됨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108
 신전은 무엇때문에 있는가? 더블류 그랜트 벵커터 장로 111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데이비드 비 화이트 장로 114
 자기 발전 앤 엘튼 대너 부대판장 119
 주님이 키를 잡고 계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 120
 일의 가치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121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126
 1980년대 고용에서의 도전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131
 복음 - 우리 생활의 기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135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일과 복지 사업 메리온 지 롬니 부대판장 140
 진실로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144
 서로 공감을 느낌 바바라 비 스미스 149
 기쁨을 찾으십시오 엘레인 캐닌 154
 성장하라는 권유의 말씀 드렌 제이 영 158
 지역 지도자 메시지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162
 해외 소식, 지역 소식 164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회도/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204호, 제18권 제 7 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리-932
 발행일 : 1982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디 밀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문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독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07KO PRINTED IN SEOUL, KOREA 7/82

© 1982년
 제타 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2 연차 대회 보고

1982년 4월 3일~4일 유다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쿨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1982년 4월 3~4일에 열린 교회의 제152 연차 대회의 일부 모임에 참석하여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큰 힘을 북돋아 주셨다.

1981년 4월 이래 처음 대회 연단에 선 킴블 대관장은 “나는 이날을 기다려 왔으며, 소망해 왔고 기대해 왔습니다.”라고 말씀했다.

킴블 대관장은 4월 3일 토요일 개회 모임에 참석하셨다. 준비하신 말씀은 킴블 대관장의 개인 비서인 디 아서 헤이코크 형제가 대독했다.

토요일 오전 모임의 개회 말씀에서 대관장 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킴블 대관장님은 지난해 9월에 수술을 받은 이후 점차 회복되어 가는 상태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보좌들과 간헐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주례 신전 모임에 참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의 선하심과 신앙과 기도의 권세를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과 가장 큰 기원을 드리는 이 훌륭하신 분의 인내심과 강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재정적 투기와 업무 거래시의 정직과 관련된 언급이 많았다는 점이다. 정직과 신중과 성실은 다른 대회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강조되었다.

최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태로 투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교회 회원들까지도 투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모험을 하고 있다. 총관리 직원들의 말씀에 나오는 용어나 예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사는 회원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원리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총관리 직원들이 어려움에 걸쳐 말해 왔듯이 우리는 모든 거래에서 정직해야 하며, 빚을 지지 말고 재정적인 자원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부에 대한 갈망과 재정적인 지위를 탐내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옳지 못한 재정적 모험을 시도하도록 유혹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피해야 한다.

모든 대회의 모임은 대관장의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과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제1보좌인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도 참석하여 폐회 모임에서 말씀했다. 4월 3일의 복지 모임, 토요일 오전, 오후 모임, 신권회와 4월 4일의 일요일 오전, 오후 모임을 합하여 전부 6번의 모임이 있었다.

모든 총관리 직원들도 참석했다. 대회 기간인 양일간에 앞서 4월 2일 금요일에는 지역 대표들의 지도자 모임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는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단의 합동 모임이 있었다. 훈련 모임에 참석한 다른 지도자들을 합하여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에서 모두 1,650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들을 구속하라는 이 거룩하신 원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회회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또다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려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대관장단에 그토록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능력있는 태너 부대관장, 롬니 부대관장, 힐클리 부대관장을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벤슨 사도화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총관리 역원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 훌륭하고 충실한 형제들의 인도로 주님의 사업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이 그 키를 잡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하지 않지마는 나는 축복을 받았으며, 최선을 다하여 나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은 힘이 있기를 바라지마는, 내게 힘이 남아 있는 한까지 계속해서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인도를 주십시오 간구할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향하여 진보해 가고 있는 그의 왕국에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이곳 태버나클에서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1년 10월 대회가 있을 때 나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회에서 나는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여 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침과 훈계로 증명케 이르게 하여 성도를 완전케 해야 합니다.

셋째,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위대하고 영화로운 사명 곧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선언을 재삼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원리를 항상 기억하여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십시오.

이제 전세계의 회원 수가 오백만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빠른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임무를 다할 때 비단 회원의 수효에서 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로움에 있어서도 큰 성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금 발표되었던 바, 네 개의 새로운 신전 건축 계획, 곧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콜로라도주의 덴버, 그리고 대만의 타이케이, 에

파도르의 구아야퀼에 각각 세워집니다. 교회사상 가장 활발한 신전 건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네 개의 신전이 완공되면 전세계에서 운영되는 신전의 수는 마흔 한 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신전의 건축에는 모든 회원들의 제보 탐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신전 건축과 함께 성도들의 정기적인 신전 참석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신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더 신전에 대한 이해력과 우리의 영성을 길러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세계의 각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접할 때, 주님께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교회와 회원이 성장한다는 것을 예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약 사십년 동안 일하면서 나는 주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미약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그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기이히 여가나 그는 행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사랑을 지니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교성 45 : 26 참조) 이 연차 대회에서 주어지는 권고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믿고 그의 감추어진 목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총관리 역원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책원을 가꾸십시오. 집과 파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칠하고, 고치십시오.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훌륭한 이웃이 되십시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안식일

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출 20 : 8 참조) 매 주 월요일 밤마다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마 5 : 44 참조)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와 판단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교회 회원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갖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곧 사탄이 무모하게 전복시키려 하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기 위하여 지상에 두신 것입니다.

이 대회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와드로, 스테이크로, 지부로 돌아갈 때 보다 훌륭하고 보다 나아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경과 문제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는 자로서 나는 이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과 절고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대화의 선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나는 이런 말을 하였었습니다.

“조용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생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굳은 힘을 지니고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의 풍파가 몰아닥쳐도 요동치 않습니다.”(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45페이지)

이제 나는 회복된 교회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세워진 152년의 절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세상의 네 모퉁이에 세워지는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팔레스타인, 뉴질랜드

드, 호주, 인도 등지에서 진리의 표준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록하지 못한 어떠한 손도 이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이 일고, 폭도들이 규합되고, 군대가 소집되고, 모략과 중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당당하고 기품있게 나아가 모든 대륙에 스며 들고, 모든 기후의 땅을 찾으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려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 540)

그러므로 앞에 약속된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성취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과 내 아내와 가족,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 대한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만행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룩한 간증이며, 이 간증을 사랑과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좌로부터 제 2 보라 매리온 지 몸니 부대관장; 제 1 보라 엘 엘돈 테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고든 비 윙클리 부대관장

예수님의 부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 제2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 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간증하고 이 간증이 놓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이 기

회를 감사드립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막 16: 6) 이 간결한 말씀은 기록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주 예수의 부활을 알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기이하여, 이 지상에서 예수와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잘 배웠던 사도들 까지도 이 사건의 완전한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첫번째 설명은, 그 당시에 살고 있거나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눅 24: 11) 보였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지마는 첫번째 부활의 아침이 있기까지 한 번도 무덤에서 살아났던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구유에서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필멸의 몸에 생기를 주었던 전세의 영이 다시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영의 몸과 육신의 몸이 다시 합쳐져서 불사불멸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인 제럴드 더 오블리

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단 자신의 사만을 이기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져 오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부활을 가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간증합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가 되도록 택함 받았던 천국 회의에서 성별되고 성임된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성역에 관하여 그가 구속주로서 그의 역할에는 다음의 4가지 일이요 구되었습니다.

첫째, 그의 전세의 영이 필멸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오늘날 다윗의 동베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10-11)

둘째, 그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는 이 일을 겠세마네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는 그가 겪는 고통의 극심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 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18-19)

셋째,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배척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는 불신자들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부활로써 다시 생명을 취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악한 자들에 의하여 처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 10: 17-18)

이 권세는 그가 동정녀 마리아(필멸의 존재)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불사불멸, 승영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그처럼 필멸의 몸을 입고, 것처럼 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겠세마네 동산에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망의 사슬을 끊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주로서의 그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요구된 네번째이며 마지막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의 지상의 생활 전체는 모두 이같은 결과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그는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암시된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차 있는 마르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 25),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 19)

부활은 인간의 경험에는 너무도 생소한 것이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도 이 교리를 들었습니다. 이 교리로 적정이 된 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리하여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 그들은 파수꾼을 두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마 27: 63-64)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파수꾼들은 부지불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의 최후 준비인 천사에 의한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 28 : 2-4 참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 지난 첫째 일요일에 다섯 번이나 주님은 그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첫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음을 확정한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울면서 등산에 머물러 있었읍니다. 빈 무덤을 돌아설 때 그녀는 “예수의 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의 음성을 알아차린 “마리아가 돌이켜” 그를 만지려 하듯이 “랍오니어(선생님)”라고 말하였읍니다.

부드럽게 그녀를 밀리 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 : 14-17)

잠시 해가 떠오를 무렵,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최후로 장사하기 위하여 그 몸에 바를 향유를 갖고 무덤으로 갔읍니다. (막 16 : 1 참조) 그들은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의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들은 놀람게도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으며,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 5-6)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 갈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도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마 28 : 9)

같은 날,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가셨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대화에 관하여 묻자 그들은 여인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예수께 말하였읍니다. 그들의 의심스러운 태도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이 해시켜 주셨읍니다. 엠마오에 머물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라”(눅 24 : 13-31 참조)

그날 저녁,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몬과 글로바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그 영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그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 24 : 36-43 참조)

이 역사적인 날에 그의 전 제자들은 이같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을 보았읍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 보았읍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음식을 잡수셨읍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덤에 안치하였던 그 시신을 예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불사불멸의 영혼이라는 것

을 알게 되어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읍니다.

사십일 동안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성지에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요 20 : 26—29 참조) 또한 더 벱락 바닷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물 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함께 먹기를 청하시면서 친히 솥불로 요리하신 음식을 주시면서 가르치셨읍니다. (요 21 : 1—14 참조) 갈릴리 언덕에서 그는 열한 제자에게 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28 : 16—18) 마침내 베다니에서 그가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들은 그가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눅 24 : 50—53 참조)

팔레스타인에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시고, 그는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시어, 그들도 그의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하강하시는 주를 뵈었을 때 “인자가…… 흰 옷을 입으셨더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청에 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만져 보고 나서” 확실히 알고 그가 부활하신 구속주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니삼 11 : 7—15 참조)

주께서 부활하신 후 성지에 있는 제자들과 미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경륜의 시대는 예언자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은 놀라운 시현으로 열려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예언자 요셉에게 말씀하시어, 그는 두 분의 음성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개인적

으로 소개받았읍니다. 그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으며 후에 그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교성 130 : 22)

약 12년 후 구세주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때 시드니 리그돈도 같이 있었읍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살아 계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 : 22—23)

커틀랜드 신전에서는 예언자가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있을 때 다시 그를 보았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걸리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에는 호백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회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성 110 : 1—4)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 사셨던 유일하신 죄 없는 분이로서, 바칠 수 있는 죄없는 일생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지니고 계셨으므로, 그분만이 무한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었읍니다. 그가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 10 : 18) 그러므로, 그가 깨어진 율법의 빛을 대신 청산하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은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행위였읍니다.

주님의 대속으로써 그가 공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한 자비의 율법을 유효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사망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나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사망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도덕적인 자유의지의 거룩한 은사를 받았으므로 예수 이외의 책임 연령에 이른 다른 어떠한 사람도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깨끗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결함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한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 이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되므로, 공의의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을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어떤 중보의 혜택을 입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그리하였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범법의 결과로 얼룩져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자비의 율법을 유효하게 하시어, 모든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조건

없이 무덤으로부터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법의 영향으로부터의 용서와 구속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구속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생활하는 자들 뿐이며, 그들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구속주의 대속의 피로 씻김을 받도록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복음—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곧 자비의 율법, 예수를 문자 그대로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첫째 조건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개조 제4조 참조) 그런 다음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능력껏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필수 요건과 다른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비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어야 할 것입니다. (교성 19: 16—18 참조) 왜냐하면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리라.” (앨 34: 16)

그리스도의 대속 곧 나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신앙과 회개와 끝까지 충실함을 통하여 나의 죄의 사유함을 받는 기회를 준 그리스도의 대속은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다음의 찬송가의 가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 일세” (찬송가, 114장)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 절기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 28: 6)고 말씀으로써 조용히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조금도 해롭지 않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이것이 편리한가, 만족스러운가 또는 이로운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참된 일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사가 가르친 많은 말을 24시간 동안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따라 읽게 한 문장을 학생들은 50년이 지난 후에는 끊임없는 감사의 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될 때 이 꾸밈없고 순수하고 현명한 여교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암송하게 하여 정직의 의미를 우리의 머리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거짓말은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대방에게 주는 모든 종류의 내화이다.”

이것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허위 진술이다.”라는 정의와 비교해 보면, 여교사의 정의가 훨씬 고맙게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말이 없어도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개짓 또는 침묵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불실한 사업체에 투자를 추천하는 일, 원장에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 악한 목적으로 아첨하는 것, 또는 모든 관계 사

실을 말하지 않는 것 등도 또 다른 몇 가지 유형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이 문장을 외우게 한 그 훌륭한 여교사는 비록 결혼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영향력을 주시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말없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끔 그녀는 간단하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데 가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읽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사탄의 수법이 교리와 성약 제10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속임수를 쓰고 잠복하여 있오라. 보라, 이것은 아무런 해도 없도다 하느니라. 또 이같이 사탄은.....거짓을 말함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저들을.....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느니라.”(교서 10 : 25-26)

그러나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구실로 하여 “사탄이 내게 그렇게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짓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부정직과 허위 진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거짓말 하나 또는 작은 부정직한 행위 하나가 점점 또 다른 부정직을 낳게 하여 결국 기만의 거미줄에 걸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뮤얼 존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슬관과 사슬은 풀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된 때까지는 언제나 너무 약하여 느끼지 못한다.”(명인 사전, 존 피 브래들리, 레오 에프 다니엘스, 토마스 시 존슨, 시카고, 제이 지 퍼커슨 출판사, 1969년, 348페이지) 이러한 함정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일생 동안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직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이 악한 함정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인 당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속이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나는 부정직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한 젊은 여인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장에 지원했을 때 전 직장에서 나오게 된 동기를 전 고용주가 그녀 자신의 자리에 가족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에게도 치욕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감박이었으면서,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연시키거나, 이익을 얻거나, 감명을 주거나, 절치매하거나 파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정직을 사용합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시기심 또는 열등감은 상대방의 습관이나 인품을 격하시키려 합니다. 지나치게 야심이 큰 사람이 자신의 공격을 거짓 치매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거짓말을 때로는 용기 결핍의 구실로 삼습니다. 때때로 거짓말은 훌륭한 성과에 대한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거짓말이나 속임수는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짓말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거짓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따로 없으며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바른 행동과 바른 결정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중간의 어떤 편리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후원, 그리고 상업 등에서 기만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합당한 기도는 이룰 것입니다. “주님, 개인적인 속임수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 주실 뿐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저를 해하려는 자들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는 부정직의 희생이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유력한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사 56 : 11) 탐욕은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속기 쉽게 만듭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31—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나니.” 기만의 유혹을 피하려는 자들을 위한 좋은 조언이 교리와 성약 9편 13절에 있습니다. “충실하라. 그리하면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한 친구는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일확 천금의 꿈이 깨어지고 파산하게 되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수입 한도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직한 유혹을 받기 쉽게 만듭니다. 엄청난 이익을 주는 계획이나 여러분에게만 일생 일대의 기회를 주려는 계획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고 잘 알려진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정 단체나 종교 단체를 지나치게 내세우

는 것은 신임을 얻기 위하여 종종 사용되는 수법으로써, 기만의 문을 여는 수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결단이나 즉시 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가치있는 투자 기회는 항상 속고와 치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모든 가능한 사실을 수집하여 깊이 상고한 다음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거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고결성이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올바른 행위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을 때에는 개인적인 정직성으로 분별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낼 수 없는 사실도 밝혀 줄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정직하도록 돕습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질문하고 정확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고결성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앞서 의로운 개인적 태도를 지니게 해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헛된 자존심 때문에 무법자의 희생이 되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자존심은 질문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으므로 종종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난처하게 되거나 앓을까 또는 무지하다고 인식될 것을 두려워하여 종종 그럴듯한 세일즈맨의 말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잘 알아듣는다는 듯이 긍정적인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위험한 점은 무엇입니까?” “합정은 무엇입니까?” “회사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참고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은 당연히 제기되고 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모터가 함부로 “안전” “면세” “연금” “격리” “거치” 등의 간단하나 허황된 말을 사용할 때, 바이어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지식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다. 잠시 기다려서 검토해 볼 수 없는 제안은 합당한 것이 못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르게 서 있는 사람과 함께 서십시오. 그가 바르게 서 있는 동안 그와 함께 서고, 그가 그릇된 길로 가면 그와 헤어지십시오.” (인용문, 버튼 스티븐슨, 뉴욕: 도드, 미드 출판사, 1935년, 1726페이지)

우리는 “부드러운 거짓말” “유연한 거짓말” “편리한 거짓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 “일생 일대의 기회” “소수의 선정된 친구를 위한 기회”가 극히 옹호되고 인정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정직한 계획을 고안하는 주동자들은 계속 속기 쉬운 자들을 미끼로 삼을 것입니다.

다행히 또는 불행하게도, 사업은 항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침체에 있어는 우리의 불충분한 자력을 보완하는 기회를 주려는 프로모터들이 현명치 못한 부채를 조장하게 됩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자금을 차용하고 투기하여, 번영의 내일을 보장하는 불결을 타고 높은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때라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려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침체되지 않았더라면 부자가 되었을거야”라는 말을 너무도 자주 듣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상적이든 보수적인 투자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르며 어떤 불확실한 것에 우리를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엄청난 수익에 대해 거절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활한 금전 관리자를 위한 기금을 부채를 저가면서까지 충당하는 사람은 최종 결산일에 가장 크게 다치는 자입니다. 부채는 뉘엿킨 거미줄이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새뮤얼 존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채를 불변한 것으로만 여기는 데 익숙해지지 말라. 부채가 재앙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명언 사전, 196페이지) 우리는 여러분도

두에게 투기의 목적으로 부채를 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10) 금전 관리에 있어서 적당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기술은 재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은 현명하게 이 같이 제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질서나 경제적인 수입 또는 우리들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여건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13페이지)

모든 말일성도가 자녀야 할 목표는 “그 사람은 보충 수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이것이 편리한가, 만족스러운가 또는 이로운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참된 일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무엇이 올바른가?”를 생각할 것이며, 탐욕자는 “어떤 대가가 오겠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때때로 절박한 재정상의 파탄이나 비극 때문에 투자 프로모터들은 생존 투쟁을 하면서 악한 지연 작전을 펠니다. 정적이 다른 것과 타협될 때, 실패가 따르게 됩니다.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진실에 굳건이 설 것입니다.

정직은 기본입니다. 거짓은 모든 다른 악의 종범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최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 모든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손잡이이다.”(오 더블류 홀름즈, 인문론, 1111페이지) 사기, 기만, 속임수 등은 거짓말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부정 행위

는 비단 시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미칩니다. 거짓말은 우리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망치게 하므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기만과 거짓말에서의 해방은 우리 자아를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게 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파 놓은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았고,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말도 역시 또 다른 거짓말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짓말은 이 친구의 일생을 어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기만의 희생자에게 “조금도 해롭지 않다”고 확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의 종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집사와 꿀벌반 소녀들은 기만이 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교사와 장미반 소녀는 진실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제사와 월계반원은 부정직에 수반되는 함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즐거운 선교사가 되려면 바른 원리대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모범으로써 정직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은 올바른 생활 방법이라고 배우기 보다는 정책이라고 배우는 개인이나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법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법은 그 영향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임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와 같은 지속적인 짐을 지고 있거나 지었던 사람만이 그와 같은 선언을 합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같이 행한다고 해서 그릇된 일이 바른 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릇된 행위가 바른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짓의 생활을 멀리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정책 이상의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동료와 거래할 때, 특별히 우리 자신과 생활할 때 행복을 보장해 주는 생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훌륭한 신 학교 교사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우리 모두 정직을 생활화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인생의 교실에서 정직의 미덕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교성 93 : 36)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하여 강조되어야 합니다. 빛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버리게 도울 것이며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조금도 해롭지 않다”는 선언은 우리의 적의 선언입니다. 그는 우리를 자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거짓말이 속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대화라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찾는 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거짓말을 옹호하거나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일확천금을 꿈꾸는 탐욕이나 욕망으로 부정적과 무절제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성구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할지니,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그리하면 부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는 부자니라.”(교성 11 : 7)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한 부정직한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다시 시작함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슬픔, 분노 또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번민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 근에 나는 좌절, 비탄 그리고 절망 등으로 빠져 들게 하는 몇 가지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슬픔, 분노 또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아직도 번민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시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멋진 곳,
다시 시작하는 나라라는 곳이 있었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비애,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슬픔을,
마치 다시는 입지 않을 남은 외투처럼
문가에서 벗어버리듯 털어버릴 것을.

(루이스 플레처, “다시 시작하는 나라”, 미국 애송시집, 헤이즐 펠레만, 가든 시티, 뉴욕, 가든 시티 출판사, 1936년, 101페이지)

“다시 시작하는 나라”는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죄의식, 슬픔 등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곳으로 여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다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예레미야 18 : 2-6)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을 범하였을 때 우리가 손상시킨 것을 취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토기장은 그릇을 잘못 만들었다고 만들기를 포기하고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망하고 자신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자신이 지닌 것을 취하여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파멸로 이르는 부끄럽고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간단한 지시를 따름으로써, 필요하면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어 새로운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중에는 돈을 현명하거나 유익하지 못한 곳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음

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분노로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이중의 실수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비통을 주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가능한 대로 보상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부채를 청산함은 나의 뜻이니라.”(교서 104 : 78)

로마 제국은 그 전성기에 서쪽으로는 지중해로부터 동으로는 현재의 인도에까지 그 세력을 뻗었습니다. 회람인은 군사력으로 수많은 도시와 국가를 정복하였습니다.

회람인은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존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세가 회람에 우세한 편으로 진행되는 지역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승리가 궁극적으로 필연적인 승리로 이끈 전장터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이나 노획한 무기 더미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같은 것을 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회람어로 트로피란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환기(트로피)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터에서 여러분은 돌이켜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부터 달라질 것임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치듯이 저절로 극복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구도라에서의 싸움처럼 극적으로 끝맺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적이 요셉 스미스가 미시시피강 북에서 병자를 축복하였을 때처럼 즉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생활에서 문제는 사라지고 전쟁에서는 승리하며,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서 주

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결케 하기 위한 전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점점 쫓아 내시리니” 승리는 대개의 경우 조금씩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에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과업은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 “내가 달리 행했더라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십시오.

만일 삼손이 데릴라와의 관계의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데릴라를 찾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사 16장 참조)

만일 시드니 리그돈이 파문당한 후의 그의 애처러운 말년을 내다볼 수 있었더라면, 그는 자신을 낮추어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사후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더 일찍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눅 16 : 19—25 참조)

만일 여러분이 그 남자나 그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또는 어떤 일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이것 또는 저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만일……했다면?”이라는 질문은 합당치 못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직시하고, 어제에 대하여 “만일……했다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내일을 기

다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전쟁터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표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대회를 갖는 이유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생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임이라.”(교성 84:44)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복음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 행위입니다.

참된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번조하거나 우리 자신의 취향에 맞게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를 때, 우리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합리화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할 수 있는 메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사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의 기초는 고결한 성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고통에서 뿔뿔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윗 왕이 그리하였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어려운 지경에 휘말리게 되자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리다”(시 55:6) 그는 심한 죄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벗어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면에서 그러하기를 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일한 참된 도피의 경로는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뜻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그는 우리에게 그에게서 배우고 그의 명을 메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마 11:29 참조)

다섯째,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십시오.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솔선하십시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역경이 몰려올 때 전지하신 섭리로 우리의 생애에 선과 악을 골고루 주셨으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대에게, 가장 좋은 조언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라는 강건한 슬로건.

(마틴 에프 터퍼,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영감의 시, 조셉 모리스와 세인트 클래어 아담스, 뉴욕: 할시온 하우스, II-77 페이지)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구하고, 또한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3) 튀이어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여섯째,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으로 누덕 누덕 깎는 것과 같아집니다. 낡은 천은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마 9:16)라고 하셨습니다. 겁지 마십시오. 온전

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부유한 청년은 모든 것을 주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꺼려 하여 “근심하여”(마 19: 22) 간 뒤로 다시는 그에 관한 소식이 없습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과 티끌고 솔직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유 부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릇된 개념을 가르친 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심히 불안해 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 23)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당함이 입증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의 친구요, 신음이 그의 보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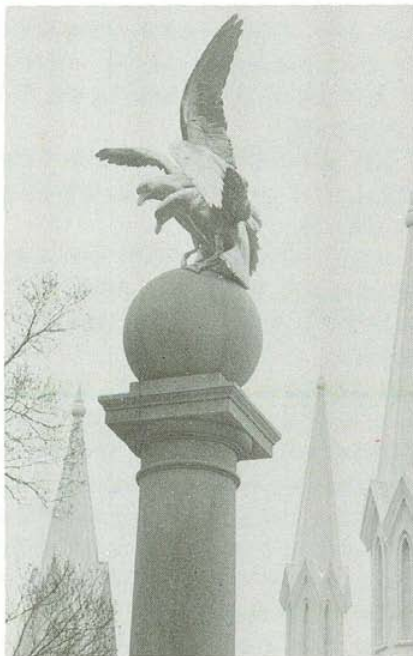
끝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교”(고후 2: 10)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일부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 27-28)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훈계의 말씀을 재강조하였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피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살전 5: 15) 복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생활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고대에 어린 요셉을 질시하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잘못을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와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창 50: 20)

그렇습니다. 많은 애통함과 슬픔이 결국은 축복이 되어 세상적인 가르침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환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또다시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안전한 곳으로 다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23)

우리 모두가 필요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복음의 원리와 교훈을 생활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는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것이 거짓말이든, 속임수이든, 도둑질이든, 기만 행위이든, 가정에서나, 운동 경기장 또는 학교에서 부정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개조입니다.

신앙개조 제1조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 말일성도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 곧 문자 그대로의 영의 자녀임을 압니다. 우리는 달리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복음도, 구원도, 부활도, 빛도, 예지도 있을 수 없으며, 생명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늘의 천체도,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도, 또한 이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것도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두려움없이 그리고 가장 강한 어조로 간증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계시에 근거한 것이므로 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창조주가 계시니, 그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가야 말씀하신 바와 같은 능력있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늘의 여호와께서 하늘과 그 안의 모든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우주를 만드셨고 태양과 태양계를 모두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 지구와 지구 안에 모든 만물 곧 생물과 무생물을 두루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왔고 그를 통하여 왔으니, 그가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의 이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주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영생은 그분을 통하여 올 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복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우리가 그대로 살기는 하겠으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낮은 곳이 될 것입니다. (교경 19:5 참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그가 없

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신회의 세번째 분이신 성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축복으로 받게 되어,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는 방금 정직에 관하여 애쉬튼 장로님에게서 들은 훌륭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근본입니다. 나는 우리가 정직, 진실, 친절 그리고 유덕을 믿고 있음을 선언하는 신앙개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신앙개조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

이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만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주장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신앙개조에 나타나 있듯이 만민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정직, 진실, 유덕, 친절은 참된 기독교 정신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결여되었다면 참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또한 수정처럼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 14—18 참조)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며 이에 덧붙여, 경건한 행함이 없이 경건을 공언하는 것은 위선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약 2: 26)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항상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응의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값은 궁극적으로 비참한 것이 되고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롬 6: 23 참조)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유인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사에 있어서 의를 위해서셨으니, 우리가 악한 행위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살아 계시던 당시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부인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불행하게도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즉 주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빛을 보내 주셨음에도 눈이 멀어 비극의 길로 들어서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코리호어가 속임을 받아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 그가 힘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으나, 보라 악마가……나를 속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는지라 내가 사람들에게 꼭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악마의 말을 가르쳤고 백성들이 우란한 것을 즐겨 하매……”(엘마서 30: 52—53)

마지막 구절인 “백성들이 우란한 것을 즐겨하매”라는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육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은 확실히 그같은 죄의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위선자였으며, 오직 상처받은 여행자를 돕는 척하기만 하였다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가 상처받은 사람을 후에 이용하려고 여관에 데려간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가 여관 주인에게 가져 돈을 주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눅 10 : 25—27 참조)

그가 두 주인을 섬기려 했다면 어떨겠습니까? (마 6 : 24 참조) 그의 경건심과 자비심이 다만 허울뿐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구세주께서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세우셨겠습니까? 그가 다른 위선자를 정리하시듯 이 사마리아인도 정죄하였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이익을 얻으려고 위선과 기만과 사기극을 벌이는 현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하는 말에서 신빙성있는 말을 하지 않고, 한번쯤 속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에 따르는 죄의 중대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것 뿐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물론, 반그리스도적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속임수이든, 도둑질이든, 기만 행위가든, 가정에서나, 직장, 운동 경기장, 또는 학교에서 부정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로 장님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눈이 멀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코리호어는 눈이 멀어 엘마와 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 자신의 머리와 가엾은 그들 자녀의 머리에 쏟게 했습니다. (마 27 : 25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순교하게 했던 배반자들은 참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그와 같이 눈이 멀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직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온갖 것에 참

여함으로써 스스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어야겠습니까?

복음의 계명 가운데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적인 행동으로 명하는 긍정적인 계명과 똑같으며, 우리에게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정신이 우리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 거리를 제시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생활 방식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묻고, 이에 대하여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니삼 27 : 27)

주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마 5 : 48 참조)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이며, 주님은 그 계명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야 하고, 그것은 실제적인 면에서의 생활 방식, 일상 행동의 계획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제율에 따라 스스로 새로와져야 합니다. 이는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때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엡 34 : 32)

이 말씀은 물론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준비의 날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는 내일 또는 그 다음날 살아 있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고서도 그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완악하여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서 앞세우기를 거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보다는 암흑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고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마 6:33 참조) 주께서 진실로 뜻하지 않으신 것을 권고하셨겠습니까? 절반만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될 것입니다. 반을 거부하고 반은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속임수이며, 성품의 결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선의 양쪽에서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노력하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그분의 훌륭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그의 은혜, 우리에게 대한 동정과 사랑, 자비와 친절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은혜와 자비와 친절하심과 연민의 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게 되면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주님의 어떠한 성품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사울이 두 주인을 섬기려 했을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가 사울보다 나을 바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감추고 형제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공연하여 그들을 기만한다면,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을 바가 어디 있었습니까? (행 5:1-10 참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전시키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주와 같아지려면 지금부터 은혜와 진리를 우리 생활 안에 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배척하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루시퍼와 함께 손잡고 일하실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러한 곳으로 이끌려 해서는 안됩니다. 엘마가 개심자들에게 물몬의 강에서 칠패를 베를 때, 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형제간의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들이 의롭게 일하여 그들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

하였습니다. (모 18:16-26 참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초기 장로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기 전에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성 50:40 참조)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두 하늘로부터 은혜 곧 그리스도의 사랑, 자선, 자비, 친절, 정직을 축복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구세주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93:20 참조)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교를 우리 생활에서 이차적인 것으로 돌려 놓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약의 백성입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신을 받았읍니다. 이제 우리가 부정적과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진리의 영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주님을 우리에게서 내어 쫓는 것이 됩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하다면, 또는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허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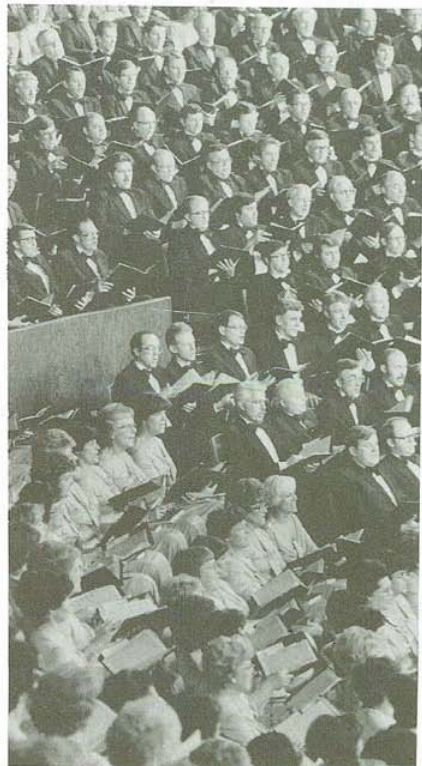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진리 안에서 섬기기로 약속하면서 맺은 성약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늘에 서약하는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성 20:77 참조) 우리가 이를 죄로써 부인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결손

하게 머리를 숙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사람과 천사의 혀로 말할지라도 내가 은혜와 자비와 정직과 친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고전 13:1 참조)

겸손한 순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광경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보고자 월포드 지 에드링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대한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재정 기록과와 기타 조직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와 교회 법률 대표들은 공동으로 재무성과 주 및 외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교회 세금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 조직(회계는 교회 재정 기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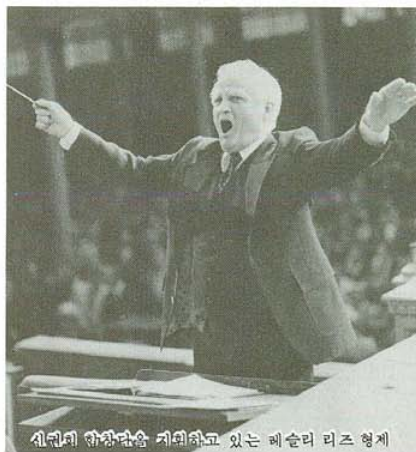
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 기록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직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재정 기록과와 감사과의 법률 대표의 책임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81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 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월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엘 케베디
워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맨
데드 이 데이비스

*



선민에 사랑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 페슬리 리즈 형제

1981년도 통계 보고

프란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1981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1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321
지방부 수.....	342
선교부 수.....	188
워드 수.....	8,392
스테이크 산하 지부 수.....	2,719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102

(위 통계 수치는 1981년 1년 동안에 103개 스테이크, 622개 워드 및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워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수86

교회 회원

1981년 말 현재의 교회 회원 총 수.....4,936,000
현재 교회 회원 수는 5백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1년의 교회 성장

축복받은 어린이 수	111,000
침례받은 기독교의 자녀 수	69,000
침례받은 개종자 수	224,000

사회적 통계

회원 1,000명당 출산 수.....	28.1
회원 1,000명당 결혼한 사람 수	12.2
회원 1,000명당 사망자 수	3.9

신권

집사	213,000
교사	159,000
제사	311,000
장로	419,000
칠십인.....	32,000
대제사	170,000

선교사

복음 선교사	29,700
--------------	--------

계보

신전 의식을 위해 1981년에 조사된 명단	4,346,000
-------------------------------	-----------

신전

1981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49,800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4,101,00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전19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을 포함하여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신전.....21
 금년에 문이 닫힌 신전.....1
 (멘타이 신전이 금년에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도에는 1980년보다 139,000 이상의 엔다우먼트가 더 집행되었다.)

교회 교육 기구

1980—81학년도 총 등록자 수 :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및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326, 200
 교회 학교와 대학 및
 상급 교육 기관.....72, 500

복지 사업

말일성도 사회 봉사회의 도움을
 받은 수62, 800
 유급 직장에 알선받은 인원 수.....27, 200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의 근로일 수533, 800
 창고에서 분배된 생필품, 중량
 단위 : 파운드.....31, 342, 000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에스 딜워스 영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

회 명예 회원이며 전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선임 회장; 델 알빈 텔리 장로, 선임 지역
 대표; 프리다 조안 켄슨 리,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미망인; 벨 스미스 스패포드, 1945
 년부터 1974년까지의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이며 전 미합중국 여성 평의회 회장; 루실
 리딩, 프렌드지의 편집장이며 전 초등학교
 본부 회장 보좌; 헨리 아이어링 박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이며 작가; 하비
 플레처 박사, 언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알
 려진 전문가이며 발명가; 에이 해머 레이
 저, 전 주일학교 본부 회장 보좌; 루이스
 제이레이크, 미국 장애자를 위한 대통령의
 트로피를 수상한 수상자이며 장애자의 교
 사; 조지 에스 에클스, 유명한 은행가이며
 지역 지도자. *



김볼 대관장의 부인 카밀라 김볼 자매가 여성 대회에 참석함

진정한 위대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위대성은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가운데는 이 생에서 상당히 위대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의롭게 생활해 왔으나, 그들이 사회적인 면에서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취한 것을 자기만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일들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함 그 자체를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새로운 기록 보유자나 위대한 위인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신기록을 내는 운동 선수나 신비스러운 새로운 발명품이나, 기계나 공정을 고안해 내는 과학자와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히 천재적인 음악가와 연예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능

있는 예술가와 건축가의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잡지나 광고나 선전물은 항상 우리에게 고른 치아와 흠잡을 데 없는 자태를 지니고, 유행되는 의상을 입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개인의 사진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늘 성공과 위대성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정의에 익히 접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됴됨이와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현상은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비교를 함으로써 유익이 되며, 우리가 많은 훌륭한 것을 성취하게 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쓸모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온전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하게 되는 우리 생의 일면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이 1905년에 쓰신 짧은 기사에서,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우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범하고 놀라우며,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참다운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목표로 성임하여 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의 성공보다 더 위대합니다.”(복음 교리, 256페이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공동된 운명으로 성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분명히 훌륭한 아버지와 어

머니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포함되며, 일반화시켜 보자면, 수많은 작은 행위와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흔히 세상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초등학교 회장, 소년단 지도자, 영적인 생활 공과 교사가 되며,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존 경쟁의 마당에서 그리고 실패에 직면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속되는 생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면 이러한 투쟁과 과정은 다른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묻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영웅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있을 곳에 있어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든 아기를 곁에서 돌보아 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병자를 한 마디 불평도 없이 돌보는 어머니의 고귀한 용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자진해서 헌혈을 하며 소년단과 함께 일하는 분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친어머니와 같이 대해 주는 사람들과 언제나 자진하여 사랑하며 양육해 주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또한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행하고 있는 교사와 간호원과 농부와 그 외의 사람들과 또한 가르치며 먹여 주며 입혀 주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곧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일을 정직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며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문화 생활을 도모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즐거움을 가져다 준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삶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고자 제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 : 11)

세상적인 성공과 찬양으로 인도되는 성취와 달성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깨우쳐 주기 위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성취, 곧 명성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차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차적인 위대성은 일상적인 형태에 덧붙여질 수도 있으나, 이같은 이차적인 위대성이 근본적인 것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헛된 명예요, 따라서 이것이 비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될지라도, 삶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유익에서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56 페이지)

참된 위대성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 : 3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하루 밤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애쓰지 않고도 그러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순간에 위대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후퇴하는 일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반드시 분명히 볼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장구한 시일에 걸쳐 지속적이고 사소하고 때로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성은 결코 일시적인 노력 또는 성취로 일어나는 우연한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품의 향상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말씀한 대로 매일의 선과 악의 사이에서 수없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같은 작은 선택이 서로 묶어져 우리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 주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32페이지) 그러한 무수한 선택으로 현재의 우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성취해 놓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여 일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독특한 개인입니다. 우리는 각기 인생의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독특한 재능과 기술을 쌓아 올렸으며 남다른 문제를 안고 압박감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루어 낸 일을 판단해 볼 때는 그 일의 규모와 크기와 숫자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쳤던 영향도 포함시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 평가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인생의 과업이 그처럼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이러한 평범한 과업은 세상 사람들이 위대성과 관련시켜 자주 말하는 것에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최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위대성은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수많은 단순하고 사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훌륭한 충고는 다만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의 한 일의 가치에 회의를 품고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과, 묵묵히 그러나 뜻깊은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분들과,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의 힘이 되며, 국가의 지주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만 깊은 찬탄을 표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진실하지 않는 삶으로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복음 교리, 257페이지)

우리는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교성 64 : 33)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정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참으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동의 목표로 성임하여 주신 이와 같은 일상의 일을 행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결혼 : 인류의 희망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칠십일 제일 정교회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 바이기심이 곧 성공적인 결혼의 열쇠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족 단위를 계속해서 침식하는 만연된 압에 대해서, 즉 오늘날 세상에 증대하고 있는 위기에 관한 우리 모두의 관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혼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진정 인류의 보존 수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도 좌절당할 것이며 덕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악덕과 부패만이 범람하여 이 땅은 헛된 것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244페이지) 이 경륜의 시대의 모든 예언자도 각기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미국 보건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급변에 미국에서 약 2백만 건의 이혼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까지 기록된 것 중에서 최고이며 20년 전에 보고된 숫자의 3배나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결혼한 세 쌍의 부부 중에서 한 쌍 이상이 이혼으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내의 가족들도 놀라울 정도로 이같은 세상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는 이혼과 가정 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허버트 에이 클리버멘씨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 사이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5년 내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이혼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는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 감명을 주기 위해 주로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빗대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혼을 짓고 있습니다. “의사 소통의 결핍은 음주, 부정 또는 육체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를 가져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관용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불쾌한 일을 참지 못하거나 그들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그들의 배우자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결혼이 실패하고 있는가”,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81년 7월 20일, 53-54페이지)

가족간의 훌륭한 의사 소통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평의회의 방법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평의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의

회가 남편과 아내가 관리하는 가족 평의회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평의회에서 부모는
 그들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권 축복
 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
 를 같이”(고후 6:14 참조) 져야 합니다.
 부부를 위한 주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부
 부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토론
 하라”(교성 50:10)고 가르치십니다. 이것
 은 다투지도 말며, 장광설도 늘어놓지 말
 며, 험담도 하지 말며, 오로지 부드러운 음
 성으로 함께 이론적으로 토론하라는 뜻입
 니다. 자녀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아닙니까? 모든 주요한 결정이 복음의 가
 르침에 따라 주의길게 고려하며 내려진다
 면 어떻게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
 니까? 그런데 함께 이론적으로 토론한 후
 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앞으
 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십리를 통행하라”(마 5:
 41 참조) 가르치셨습니다. 십리란 비이기
 심을 뜻합니다. 이같이 십리를 동행함으로
 써 거의 모든 부부는 성공적인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우트의 한쪽에
 만 특별히 힘을 기울이는 것은 불균형을 뜻
 합니다. 파탄된 결혼이 마치 이와 같습니
 다. 비이기심은 반드시 양쪽에서 나와야 합
 니다.

결혼한 지 1년이든 21년이든 간에 모든
 부부는 하루를 마칠 때 함께 대화하는 시간
 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함께 대
 화하는 시간은 하루 동안 한 일을 반성하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방
 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
 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날의 마지막은 “여
 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
 오. 나를 용서해 주구려.”라고 말하기에 안
 성 맞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불완전
 합니다. 날마다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

은 채 누적시켜 놓으면 결국 결혼이 파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파탄은 모두 홀
 른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며 종종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생기
 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용납하지 않
 는 강경한 입장을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독재적인 방법으로 가정에서 신권 지도자로
 서의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려는 형제는 복
 음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함께 이론적으로 토론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적인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를 끝마칠 때 함께 나누는 대화는
 쌍방의 의사 소통이 되지 않게 될 뿐 아니
 라 일반적으로 반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빨리 최후 통첩을 보냈니
 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최후 통
 첩을 보내는 일은 거의 실패하게 된다는 것
 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치 선전 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
 도 아니되다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은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
 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
 히 크게 만드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
 -42)

나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권고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
 겨진 어떠한 영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
 하는 것은 사람이 올바른 영에서 떠나거나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여
 러분은 아내와 자녀를 존경하여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256페이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요한 이혼 사유는
 가정의 금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금전 관리에 대해 건전한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면 아마 하늘의 문이 약간 닫히게 될지 모릅니다. 약속된 축복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모든 예언자는 성도들이 빛을 지지 않아야 하며(우리는 오늘 아침 김볼 대관장님으로부터 다시 그 권고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투기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가르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소하고 절약하며 시대에 뒤진 방법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창 3:19 참조) 돈을 벌도록 권고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에 관한 율리 강령을 가르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면과 검약의 본보기가 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천물을 후하게 꾸준히 바치라는 권고도 받아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주님의 명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정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계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가족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 습성을 고쳐야 한다면 나중에 닥칠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 즉 종종 법정에서 이혼까지 하게 만드는 위기를 초래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음 말처럼 결혼 생활의 파탄을 가져 오게 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보, 오늘 온천장 헬스 클럽에서 실시하는 신체 단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서명을 했소. 회비가 200불이었소.” 잘 계획된 신체 단련 과정은 이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이미 예산으로 쪼들림을 받는 때에 뜻밖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화제는 사전에 토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은 사전에 토론해야 하

는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최근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반려자인 부인이 불시착에 참여하려 하면 여러분의 부인도 비행 계획의 진행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 안전한 결혼 생활의 초석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로 여러분의 결혼의 첫째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제안하고 싶은 여러분의 반려자와 자녀들에 대한 참된 신뢰이기도 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첫번째 율법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에 순종하는 것은 가정에 화평과 사랑이 깃들리게 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셋째, 충실입니다. 평안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는 항상 반려자에게 충실하면 기초되는 강인한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밤이 지나가면 당연히 낮이 오듯이 교회에 충실하며, 참된 원리를 충실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순결의 법은 십계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계명은 충실히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생애가 이 성스러운 원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원리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충실 여하에 분명히 달려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결혼은 하나님께서.....제정해 주신 것이며”(교성 49:15)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않”(교전 11:11)다는 영원한 진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권고하고 제
실 뿐만 아니라 명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기 전, 죄악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친히 최초
의 결혼식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
리의 첫 부모를 성스러운 결혼 성약으로 하
나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계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존재해 온 모든 시대를 통해 계
속 실시되어 왔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246페이지)

마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9)
고 기록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내의 모든 이혼은
하나님 왕국의 사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
니다. 이혼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각 배우
자는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
다. 또한 부부 쌍방 뿐만 아니라 신권 지도
자와의 상담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우기 결
혼 성약의 영원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
가 있습니다.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 비이기심이 곧 성
공적인 결혼의 열쇠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
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이기심은 함께 토론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비이기심은 “십리”(마 5:41 참조)를 더
동행하게 해줍니다.

또한 비이기심은 가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이기심은 이혼을 막아 줍니다.

앞으로 이혼한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것이라는 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라 믿습니다.

1. “당신은 결혼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가
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까?”
2.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적용되었습니
까?”
3. “당신은 신권 지도자의 권고를 받으려

고 애쓰며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려
고 했습니까?”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결혼 생활
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원한 결
혼은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



대외 방문자

깊은 생각은 영적인 생활을 강화시켜 준다



조셉 비 위슬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마음에 좋은 씨앗을 확실하게 심으려면 강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치지 않는 재생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져 최근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추가된 계시에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918년 10월 3일, 나는 내 방에 앉아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무한하신 속죄의 희생과……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던지라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교성 138 : 1-2, 11)

오늘 나는 깊은 생각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고, 숙고하고, 명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깊은 생각은 우

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사물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미스 대관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니삼 17 : 3)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생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젊은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많은 친구 한 분이 오셔서 부탁하였습니다. “자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내 목장 집을 하나 지어 주게나. 여기 설계도가 있네. 최고급 자재와 기술을 동원하여 날림이 되지 않도록 해주게. 건축비는 걱정 말고, 일이 끝나면 청구서를 보내게.”

젊은 건축가는 이 돈 많고 마음씨 좋은 분의 부탁을 이용하여 한 몫 잡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기술자와 자재를 쓰기는커녕 가능한 방법을 다 써가며 은인을 속였습니다. 마침내, 알박한 벽에다 형편없는 못을 박는 것으로 공사의 뒷마무리를 끝냈습니다. 건축가는 열쇠 꾸러미와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서를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넘겨 드렸습니다. 그분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수표를 끊더니 열쇠 꾸러미와 함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건축가에게 다시 건네 주며 “자네가 지은 이 집 말일세, 이걸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부디 행복하게 살기 바라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젊은 건축가는 자신의 불순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

한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었다면 예수님이 오래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6)

만약에 이 어리석은 건축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바가 있다면 옳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생활은 곧 파멸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미치는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그럽게도 자유의지를 포함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에 직결된 바로 결정과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로서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이르는 길에는 무임승차가 통하지 않으며 극기와 자기 부인의 노력없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즈음의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이 약에 중독되어 쉽게 끝나지 않는 무서운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불충실하여 가정과 가족의 파탄을 맞습니다. 사탄은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공

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악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서 시작됩니다. 의지와 상상력의 싸움에서는 보통 상상력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맛보고, 보고, 듣고, 냄새맡고, 느끼는 것에 노예가 되게 합니다. 육체는 정말로 마음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마 15:18-19)

제임즈 알렌은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라는 수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사고라는 무기교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쁨, 능력 및 화평의 하늘 궁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을 만들기도 한다. 사고의 바른 선택과 올바른 적용을 통하여 신의 완전에 이르기도 한다. 사고의 오용과 그릇된 적용을 통하여 금수만도 못한 처지로 떨어지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차이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이며 주인인 것이다.……

“인간이 성취하는 것과 성취하지 못하는 것, 이는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뉴욕: 토마스 와이 크로웰 사, 8-9, 34페이지)

인간이 선한 상태에서 악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은 미묘하며 흔히 길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나쁜 생각에 빠져 마음속에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씨앗이라는 말은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로 물론경의 위대한 예언자인 엘마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 너희가 너희들 자신에게 말하리라.”(엘마서 32 : 28)

마음에 좋은 씨앗을 확실하게 심으려면 강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치지 않는 재생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백 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에는 데이비드 스타 조단이라는 훌륭한 총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단 총장이 쓴 “깨끗함으로 비롯되는 힘”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나의 신념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천한 행동(요즘은 호색 문학으로 통하고 있지만)은 고상한 취미나 고매한 인격 발전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비천한 사고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모든 면에서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저속한 음악을 즐기고, 무익한 책이나 선정적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쓰레기 같은 소설에서 재미를 찾으며, 저열한 극장 프로그래밍에 빠지며, 허튼 농담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타협과 추잡함을 용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입니다. ……

“……방종은 행복이 없는 곳에서 약의 힘을 빌려 행복하다는 느낌을 얻으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신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흥분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신경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뉴욕 : 폴 드웰 출판사, 1900년, 24—25, 27페이지)

부모는 가정의 밤과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

칠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원은 성찬식, 신권회, 상호부조회에서 배운 공과에 대하여, 또 가정 복음 교사가 전해 주는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신권의 책임에 충실하여 의의 표본이 되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정원회 지도자는 정원회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가르치고 강화시키고, 사랑과 친절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부모,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제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문경의 위대한 예언자인 베냐민 왕은 그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을 전할 수 있나니,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의 강령에 관하여 들은 바를 굳게 믿지 아니할 진대 기필코 너희가 멸망하리도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모사이야서 4 : 30)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계시를 받고 계신 예언자요 선전자요 계시자로서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는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가까이 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같은 고귀한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진실한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

의로운 교사를 위한 영적인 지침



진 알록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탄의 환상을 깨뜨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덟 가지 표준

지난 여름, 외롭게 떨어져 있는 사막의 고
속도로 위에서, 우리는 앞에 물로 덮
인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저축했던 모든 돈을 걸고 내기를 할 정도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곳에 도
착해 보니 길엔 한 방울의 물도 없었습니
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신기루입니까!

이 생에서는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전
혀 다르게 보이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엘 62 : 41 참조)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
니다. 그는 환상의 주인입니다. 그는 조금씩
일을 그르치고, 말일성도의 권능과 관심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는 특히 영적인 신기루를 만들어 내는
때 명수로 영성을 위조하고, 영적인 불안
정, 영적 기만, 영적인 질환을 만들어 조
금씩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 주어 완악하게
하며,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
어지게 합니다. (니일 12 : 17 ; 니삼 6 : 15)

영성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교묘한 환상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사탄
은 환상으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이렇
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엄연한 한 인간

이야. 나도 주님이 살아 계신 줄은 알지만,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문제로 그를
괴롭혀 드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특
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경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
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
도들에게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
나님은 계시지만, 그는 다만 일반적인 면에
서 여러분의 생활에 관련될 뿐입니다. 그는
현재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 사람
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성
도들에게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니이 32 : 8-9 참조) 그러나 결
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망상을 일으키는 다른 환상에서, 사
탄은 인간에게 인간은 영적이고 겸손한 존
재임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가 실제로 그러하거나 하듯 행동합니다.
인간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도, 환
상으로 인해 자신은 아직도 곧고 좁은 길을
걸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
보다 더욱 의로운 태도를 취하지만, 마음속
으로는 완악해지고 “무디어”(니일 17 : 45)
지며, 자만하게 됩니다. 환상의 주인은 인
간에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만,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가
르칩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19 참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위장하고
영성을 지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며
진리를 개인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전혀 강
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
아 나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학습하는 사람
으로 여기며,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고(잠
3 : 5, 니이 9 : 28 참조) 인간의 명예와 존경
받기를 추구하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쌓
는다는 것은 환상이 되며 주님의 영을 지니

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탄은 교묘하게 환상으로 이러한 축복을 역이용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이 세상 것에 얽매이게 합니다. (교성 121 : 35 참조)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대하지 않고, 백성들간에 분쟁과 불공평과 차별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는 “죄의 근원이 되는지라……어둠의 일……을 일삼으며, 힘을 다하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히 6 : 30)

이 환상의 세상에서, 사탄은 이기심과 불신앙과 두려움, 의심, 탐욕, 영적인 불안정,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는 씨를 뿌립니다. 그는 영적인 길을 돌아가게 하여 시간을 낭비시키고, 선한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고, 영적인 수용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재주가 비상한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탄은 그 자신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나, 교실에서, 연단에서서 혹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말일성도를 더욱 속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속임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이 시대에, 인간은 사탄의 영적인 울가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분별력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환상을 깨뜨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복음의 가르침과 함께 다른 사람이 가르친 교리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의로운 교사들을 위한 영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교사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며 또한 주님의 영도 진리와 교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성 50 : 17-22 참조) 두 가지 다 어느 때나 영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음(마 24 : 24

참조) 알고, 교사는 아무런 권능없이 가르치거나 스스로를 위해 독자적인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2. 교사는 총판리 역원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교사는 그들의 영적이거나 세상적인 면에 대하여 한 모든 말씀으로 전해지는 가르침과 모범에 따르고 일치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그들에게 분별하는 은사를 주심을(교성 46 : 27 참조) 압니다. 그는 주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습관은 배도를 경고하는 표시가 됨을 압니다.

3. 의로운 교사는 경전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성신이 가르쳐 주고 확인한 것을 가르칩니다. (교성 52 : 9 참조) 그는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요셉 스미스서 2 : 19)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나 인간의 의견을 경전의 말씀과 혼합시키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사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데 보내, 사탄이 그 견해를 드러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예언자가 말하지 않은 “교리”는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성 28 : 2-3 참조) 그는 경전은 인간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붙여넣어 회개하여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 15 : 7 ; 앨 37 : 8 참조)

4. 교사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앙과 회개와 기도와 같은 기본적인 복음 교리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교성 19 : 31 ; 앨 26 : 22 참조) 그는 과장을 하거나, 피상적인 것만을 가르치거나, 경전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도를 장황하게 길게 하거나, 구세주나 아담에 대한 그릇된 교리를 말하거나, 식사 조절이나 정치 또는 투자에 대해 극단적으로 가르침으로써 분에 넘치는 목표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은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합니다. (교성 12: 8 참조)

5. 교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로 7: 15, 18—19) 그는 밝혀지지 않은 교리나 “지성인”을 자처하는 특별한 엘리트층이나, 성스러운 의식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야 4: 13; 교성 42: 11 참조)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교리와 의식은 성도들이 분명히 보고 지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6. 교사는 가르침받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대하고, 그 자신을 형제 이상으로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야 2: 17 참조) 그는 주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되고자 하나, 일하는 데서는 동반자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성 58: 40—41) 그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모로 7: 44)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 의로운 교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영화를 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신권을 타락시키는 일, 즉 인간의 유익을 위해 또는 명예를 위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빛으로 내세워 설교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이 26: 29; 모 13: 26 참조) 그는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는 의로운 전도자가 되며, 인간적인 유익과 명예나 인기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인 야망은 배도로 이끄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교사 자신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모로 8: 26) 그는 온유함과 사랑과 순수한 동기와 주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교성 41: 5; 52: 15—16 참조) 이것으로 그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로 요약하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생활하는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 또는 지적, 학문적인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경 그보다 더욱 큰 어떤 것으로서 언제나 순수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과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니삼 9: 20; 교성 136: 32—33 참조) 그것은 “은 마음을 다”(교성 18: 27)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년간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지내 오면서 그들과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훌륭한 성품은 그들이 “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를 열망하며, 어떤 경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성 18: 27—28, 38 참조)

교회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께서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라.”(교성 137: 9)고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가 주님과 영감받은 그의 종의 권고의 말씀에 따른다면 멀어져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 늘 경전을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 지도자와 그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빛과 진리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그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악마에 의한 환상으로 기만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영으로 조화를 이루어 좀더 굳은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능가함



로널드 이 포울먼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며, 회개하여 그와 함께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을 처음으로 인식한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누가복음 5:8)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주님께 접근해 나갈 때, 베드로와 같이 불전을 느끼고, 과오를 인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느낌을 받게 되고, 꾸중받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계명에 불순종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며, 회개하여 그와 함께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며, 회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죄책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느낌은 그 자체가 회개하고, 주님과 화해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법했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도움을 구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에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무서워 말라”(누가복음 5:10)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전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부터 내가 존과 게일이라고 호칭할 어는 젊은 부부의 경험을 통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존은 사려깊고, 애정이 풍부하고, 솔직하며 도량이 넓은 친절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성심껏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가족 생활의 즐거움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게일은 젊고, 매력적이고 활발했으나, 좀더 세속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물질주의의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유익, 사회적인 지위, 오락 및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정 생활과 도덕적인 표준이 파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존과 게일은 첫아들과 다음에는 딸을 자녀로 두는 축복을 받았으나, 게일은 집안 일의 책임을 맡는 것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생활을 원했으며, 파티나 모임에 참석하려 자주 집을 비웠는데, 언제나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영에 들뜬 게일은 못 남성들의 환심을 사려다가 결국은 자신의 결혼 성약에 불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존은 게일에게 가정 생활의 즐거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따르는 보상을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참을성있게 친절하게 대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 아이

인 아들을 낳고 난 직후에, 제일은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자아에 몰두하는 부도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당한 존은 수모를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제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화려하고 자극적인 생활은 그 모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소위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싫증을 느껴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밝은 다음 단계는 점점 내리막 길로 내려가는 것이었으며, 그녀의 생활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전혀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존이 아직도 그녀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과 그 가정이나 가족과 함께 할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존은 제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채하고 뒤돌아서 간다 해도 정당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근래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역력히 알 수 있었으므로, 동정한 나머지 그녀에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이 큰 빛을 쬐다는 것을 안 존은 그 빛을 갇아 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안되어 존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직도 제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녀가 기꺼이 변화하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태도에서, 존의 마음속에는 자비로운 용서의 느낌이 자랐으며, 제일이 자신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 주어, 그녀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싹텄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존의 마음속에는 우리 곧,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싹텄습

니다. 우리가 그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고, 그를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원할 때는, 주님은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자 합니다.

존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 문학적인 표현의 자유를 빌어,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벨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로 그려 낸 호세아는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나 선약, 물론경 및 현대 계시에서보다도 더 크게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성 1:31-32)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주님의 도움과 영광과 힘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능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필요 사항이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를 공의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획을 마련하시어, 그의 구원의 희생이 우리에게 대한 공의의 요구로 만족시키며, 회개하고, 용서하여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하고, 그 뒤를 이어 물과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아 그와 맺은 성약을 통해 이 큰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주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성약에 따르는 약속은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성 20 : 77 참조)

고대 호세아가 전한 메시지는 경전 전체를 통해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벌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갈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 : 16-18)

주님은 니파이인 선지자 엘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범법한 자들을 각각 저들이 행한 죄에 따라 네가 심판하라. 만일 누가 너와 내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내가 또한 그를 용서하리로다.

“참으로 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저들의 허물을 사하리니.”(모사이야서 26 : 29-30)

우리는 각자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회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계시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받습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 : 9-10)

또한 현대 계시에서 가장 위안이 되고 희망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 : 42)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조건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율법을 범할 때 그는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을 거두실 수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께서 우리를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화해하게 하는 더 훌륭한 유도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커지게 되기를 간구하며, 그에 덧붙여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모든 개개인의 구세주이시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 교회가 지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이름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나는 이 교회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수년 전 전쟁시에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민국 관리가 그의 입국 서류를 살펴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입국시킬 수 없소, 우리는 선교사들은 입국시켜 왔으나 지도자들은 입국시키기를 원치 않소, 가서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윗소 형제는 물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다시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입국시킨다면 당신은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윗소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태의 방문자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해 가르치겠습니다.”

그 관리는 윗소 형제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니까?”

윗소 형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관리는 “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부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왔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키나 돛이나 선장없이 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떠돌아다닐 것이며 결코 항구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교회는 나에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소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 영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들 가운데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고귀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4

-26)

나는 교회가 나에게 내가 영의 세계에서 첫째 지체를 지켰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탄과 하늘의 천군의 3분의 1과 함께 이 지상에 내어 쫓겼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리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제 12 : 12; 벤전 5 : 8) 내가 첫째 지체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모임에서 전해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에게 이 육신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뜻하는 바는 내가 경전을 읽음으로써 얻는 것만큼 감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귀들린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쫓아 뱀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군대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귀는 어떤 몸으로 들어가기로 심히 원했으므로 틀에서 먹고 있는 폐지페들의 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청했으므로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바다를 향하여 돌진하여 몰사하였습니다. 이들은 내 기억으로는 이천 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 : 1-17 참조) 이와 같이 귀신들이 얼마나 몸을 얻기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째 지체를 지켰으므로 우리는 지금 둘째 지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백성과 함께 옮기심을 받았던 고대 예언자인 에녹은 이 지상에 있을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는 확신을 받았다는 내용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 : 5 참조)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주님이 말씀하신바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신명기 12 : 32 ; 마태복음 28 : 20)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받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께 오늘 여기에서 선언된 많은 아름다운 진리에 대해 감사합니다. 영원한 결혼에 대한 이 원리 즉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을 주신 것과 결혼과 가족 단위는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경전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선포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런 후 나는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백명이 넘는 후손)에 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의 삶의 고귀함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청소년 시대와 젊은 시절부터 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면 그들이 둘째 지체를 지키고 저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해질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이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는 너무나 아름다운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개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며 그들은 암흑 시대 후에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두 영광스러운 인격체로서 나타났음을 아는 것은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론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수천년 전부터 인간에게 진리에 관한 지식과 이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진리를 가져다 줄 그의 날과 다가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의 도구로써 기이한 업적이라는 책을 썼을 때 나는 이사야가 하신 다음 말씀에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입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13-14) 이 위대한 교회의 메시지는 이사야가 아신 바 인간이 교리 대신 인간의 교훈을 가르칠 날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한 이사야가 말씀하신바 사람들이 인간의 교훈으로써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하신 의미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 한두 가지 선교사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75년 전 처음으로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나는 성도들의 한 가정에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이웃에게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동반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웃에 사는 분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녀는 목사님과 동반했습니다. 우리는 신권에 관해 약간 다른 의견을 말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나에게 다음 토요일 저녁에 그의 교회에서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예배당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회원과 우리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나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리차드씨를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모셨

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20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리차드 씨?”

나는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 토론을 열도록 특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정중하게 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께서 관여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나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신권에 대해 의견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주제로 토론할까 합니다. (이것이 나의 선교 사업에 있어서 장점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지붕부터 없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놓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히브리서 6장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히브리서 6:1-2)

나는 급히 주제를 신앙과 회개로 돌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할 때까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것을 믿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신은 머리 위로 부는 바람처럼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겠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성신은 사도들의 안수에 의하여 주어짐을 알고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사도행전 8:19-20)

그런 후 나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에 관한 몇 가지 참조 성구를 좀더 말해준 후 앉았습니다.

목사가 일어서더니 20분 동안 이야기하였으나 내가 한 말은 한 마디로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운틴 메도우 대학살(1857년 인디언과 불문에 의한 유타주 이민단의 대학살)과 “물론의 성경”에 관한 말하기 시작했고 요셉 스미스도 그가 많은 과오를 범했음을 시인했다고 말하고 가장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씨 이 일에 관해 우리들에게 해명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나의 동반자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로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세주의 시대에 그의 적은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우리들이 이 낱아빠진 술책에 호소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토론을 이해한다면 토론이란 어떤 이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나의 이론에 답변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친

구, 선생께서 다시 20분 동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의 부인이 청중 가운데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씨가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제의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반자에게 “일어나서 내 모자와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머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반자와 회원들에게 떠나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은 당신의 신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후 여러 번 그 목사를 거리에서 만났으나 그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으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사야가 그들이 교리 대신 인간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있었을 때 조지아 쿼트맨에 가서 나는 결혼 서약과 가족 단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각 교파와 그 교파가 믿고 있는 주요한 일들을 비교한 도표를 전시했습니다. 이것들은 각 교파의 지도자들이 말씀한 공식적인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가족 단위와 결혼 서약은 무덤 너머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 내가 문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신이 칙례 교회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잘못 인용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없습니다. 리차즈씨,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구요? 왜 당신은 돌아가셔서 신도들에게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선교사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약 4개월 후에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그는 신문에서 내가 온다는 기사를 읽고 그 조그마한 교회 밖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번 내가 여기에서 설교한 것에 대해 당신이 생각한 바에 관해 듣고 기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차즈씨, 나는 그후 그것에 관해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 모두를 믿습니다. 나는 그 나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벤슨 형제에게 내 시간이 되거든 내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허용된다면 경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홀랜드 주트렉트에서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한 젊은이가 우리의 모임이 열리고 있는 밖에서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들어와서 우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칙례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칙례에 의해야 하며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베풀어야 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씨 우리가 아는바 성경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차라리 사도 바울이 대답하도록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

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축복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아멘. *



태버넬을 스케어에 있는 태버넬 내부.

신권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의 교리는 오직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신의 권세에 의해서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주어질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 여러분께 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드립니다. 신권의 교리를 배우고 주님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 신권의 교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교회에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전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와 사도의 설교와 가르침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았습시다.

신권의 교리는 오직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신의 권세에 의해서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성 98 : 12 참조)

우리의 영혼이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육을 적시”게 한다면(교성 98 : 12 참조)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권의 교리를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일곱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외치거나 일만 개의 나팔로 이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엘마가 얼마나 간절히 앞을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정도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기를 원했는지 기억합니다. (엘 29 : 1 참조)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졌으며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 말씀은 고요한 조그마한 음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자들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교성 85 : 6 참조)

성신의 권세 이외의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약하고 멀리서 들리는 세상의 메아리와 같은 우리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영원하신 음성의 영광과 권능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성을 알고 있으나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세상이 창조된 그러한 권세의 경이를 어렵게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의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권의 교리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충실한 자들의 영육을 적실 것입니다. (교성 121 :

45 참조)

신권은 땅이나 하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세이며 이 권세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권세로 만물이 질서 위에 놓여졌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신권은 신앙의 권세이며 신앙으로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되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신앙과 모든 권세와 모든 신권을 구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위하시는 삶을 영생이라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정도는 우리가 그분이 지닌 것과 동일한 신앙을 갖는 것이며, 그분의 권세를 얻고 그분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참된 의미에서 그분과 같이 될 때, 우리도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권은 늘 함께 합니다. 신앙은 권세이며 권세는 곧 신권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후 신권을 받게 됩니다. 신권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며 모든 권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고 신권의 권세를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신권을 받았고 후에 지상에서 신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지상의 창조에 참여했을 때 신권의 열쇠를 갖고 신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칠패를 받은 후 다시 신권을 받았으며 그는 지금 지상을 관리하는 대제사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신권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역자로 예임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지정된 시대에 주님의 명을 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성신권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에녹의 시대에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녹의 반차(교성 76:57 참조)라고 알려진 이것은 그와 그의 백성들을 들리워 올라갈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고 신권의 권세를 활용했으므로 그들은 승천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녹에게 신권을 받은 모든 사람은 권세를 받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며 열방의 군대에 도전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승영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성약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도 에녹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의를 행했고 하늘을 얻었으며 에녹성의 백성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힘썼느니라.”(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14:34) 그때 이후 신권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 신권 곧 아론 신권이며, 또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입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이며, 수련 신권이며, 소신권이며, 사람들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거룩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진 바 가장 높고 거룩한 반차이며 이것은 또한 인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승영시키는 데 필수적인 모든 일을 행하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신권이며 이러한 권능을 통해 그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신권은 성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교성 84:33-41 참조) 이 두 신권은 지상의 어떠한 권세도 능가하며 인간에게 구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성역을 돕고 세상을 버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대로 살도록 서약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아론의 성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신분과 위치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서약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멜기세덱 신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자들은 신들과 천사들 앞에서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교성 84 : 44)며 족장의 반차를 통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며 주 예수께서 그의 생애와 성역에서 행한 대로 생활하고 봉사하겠다는 서약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대신 주님은 그들에게 가족 단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영원한 영역에서 승영과 하나님이 되는 영생을 뜻하는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서약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영원한 족장의 반차, 즉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하늘에서 널리 행하여지는 반차이며 또한 거기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증식, 바꾸어 말하면, 부활 가운데 있는 영의 자녀들을 확실히 해주는 반차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성 131 : 1-4 참조)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것의 중요성과 불변성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공간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 하셨습니다. 이는 멜기세덱 신권과 연관해서 맺는 성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소유하게 되며 그분의 독생자이신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이상의 언어로 맹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가 승영에 이를 것을 맹세하셨고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참되고 충실하면 그분과 같이 승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인 주 예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편 110 : 4)

그리고 바울은 메시아적인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이 영원한 맹세를 인용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히 5 : 10)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임되었느니라.”(요셉 스미스역, 히 7 : 3)

고대에는 아론 신권이 레위 자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권은 족장의 혈통에 따라 주어졌으며 레위의 후손 가운데 합당한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신권은 어떠한 혈통의 남자이든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남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이 [대]신권에 성임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요셉 스미스역, 히 7 : 3) 그리스도는 모범이시며, 그는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제사장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그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성약의 중요성과 영원한 가치를 보이겠다는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대에 하신 이 성약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들은 레이밴으로부터 낫쇠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니일 3 : 15)

이와 같이 하여 니파이는 하나님을 그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만일 그가 낫쇠판을

가져 오지 못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옷피판을 얻거나 복음을 내던지거나 하는 것은 니파이의 책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맹세의 하나는 요셉 스미스와 물론경에 관한 주님의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요셉 스미스] 그 책, 곧 내가 명한 부분만을 번역 하였으니,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교성 17:6)

이것은 물론경에 관한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진실성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 책이 참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 두시든지 해야 합니다. 인간이나 하나님에게 알려진 언어로써 이것보다 더 공식적이며 강력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멜기세덱 신권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므로 이것은 그분의 거룩한 질서이며 성약을 지키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국민과 민족의 모든 신권 소유자는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있게 될 것이며,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위대한 대제사장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권의 교리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교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능력과 통치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무한하신 특성을 지니시며, 가족 단위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 영화롭고 완전하시며 승영에 이른 존재라고 말해 줍니다.

이 교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이 영광과 완전함과 권세의 높은 신분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 완전하며 그의 신권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신권이란 바로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며,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되려면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시는 대로 그분의 신권, 곧 권세를 받고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행하도록 하늘의 권세에 관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며,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가족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질서로 말미암아 족장의 반차 또는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서약(교성 131:2)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권의 반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신앙을 가졌으며, 하나님 면전에 서며,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신앙과 완전함과 권세, 바꾸어 말하면 신권의 완전함을 지녔으므로 그분과 같이 된다고 말해 줍니다.

이것이 신권의 교리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과 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참으로 신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 그 자체가 신권의 권세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그와 같은 권세로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원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천군의 3분의 1이 신권의 권세로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면 명백히 그와 같은 권세로 국가의 군대를 이겨 낼 수 있으며, 원자탄 투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신권의 권세로 필멸의 상태에서 불멸의 상태로 올라간다면 명백히 그와 같은 권세로 병든 자와 죽어 가는 자를 살릴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권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구하는 권세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는 그 권세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권 활동 촉진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우리가 청소년의 교사로 성공하려면 그들의 활동에 구애되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지명받았을 때, 그것은 그리 쉽고 빠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비활동적인 회원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감독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아론 신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이란 명칭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가 언변이 능치 못하였으므로 아론이 그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동반자였으며 많은 시련을 함께 겪었습니다. 주님은 아론 신권에 아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역사상 이 신권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칙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구세주를 칙례했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 중요한 사건은 1829년 5월 15일에 일어난 것으로 바로 그 칙례 요한이 이번에는 하늘의 사자로서 내리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람을 위한 침수로서의 칙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게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서 13편)

만일 우리가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람을 위한 침수로서의 칙례를 베푸는 열쇠를 지니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칙례의 물 속에 들어간 모든 젊은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론 신권을 받을 것을 고대하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도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감독은 와드에서 성임을 받지 못한 소년들의 수와 활동과 연령에 맞추어 신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수와 어떤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도 활동적인 청소년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활동적 회원 대 비활동적 회원의 비율에 관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4명의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딸들이 어느 날 밤 모두 데이트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아버지는 딸들에게 자정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주의시켰습니다. 첫째 딸은 11시 45분에, 둘째 딸은 11시 50분에 그리고 셋째는 자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는 잠자리로 들

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그에게 넷째 딸 메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는 "75퍼센트는 집에 돌아왔으니 그만 하던 됐지 않소."하고 만족스러운 듯이 말하였다 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잘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는 쉬우나 비활동적이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청소년들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누가복음 15장 11-32절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흥년이 들자 그는 한 부자집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중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에 충실히 남아 있었던 맏아들은 그의 방탕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던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하고 기뻐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가 이 성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은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관계없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청소년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권 책임을 수행하는 데서 비활동적이 아닌 사람들이 모두 탕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청소년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대의 은사, 곧 영생과 승영의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지도자인 우리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법에 순종하여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들의 생활에 훌륭한 영향력을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감독은 와드에서 아론 신권의 회장이며 제사 정원회의 회장이 됩니다. 아론 신권의 회장이로서 그는 만 12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권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들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혼자서 필요한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추진시켜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해야 합니다.

현명한 감독은 소년들의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조력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비활동적이거나 비회원이거나,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활동적인 소년의 아버지는 대체로 비활동적이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면, 감독은 장로 정원희 회장과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쳐 활동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아들이 활동적이 되도록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역원이 있습니다. 바로 정원희 회장과 그의 보좌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년배의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정원희 회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는 정원희의 모든 회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우연히 부름을 받고 성인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감독이 그 부름에 따르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성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의 회장이 부름을 주어야 합니다.

감독의 보좌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으나, 감독과 같이 회장단의 열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정된 어떤 일의 과정에 참여할 뿐이며 마지막 결정은 감독이 내립니다. 정원희 회장은 감독단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희 회장은 주님의 영감을 통해서 선정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2세 또는 13세 소년이 정원희 회장에 부름을 받는다 해도 성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담당 고문과 다른 지도자들이 그에게 유능한 회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고문은 그의 책임을 위임하지 않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 정원희 회장이 다

음과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미루어 그는 고문에게서 훌륭하게 가르침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 위원이 몇 주일 동안 계속 어느 정원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전에 보지 못했던 한 소년이 참석한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게도 이 비활동 소년이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비활동 소년이 처음 신권회에 참석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청하여 당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고등 평의원이 고문에게 왜 정원희 회장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고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회장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3일 동안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청소년들은 비활동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 즉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한 역할은 감소시키고 개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리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 모든 소년들을 그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프로그램에 따르지 못하면, 사태는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소년들의 개인적인 취미와 소망과 문제점과 재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정원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단의 일원은 정원희 회장단과 고문과 함께 세상의 관심이 신권 활동과 신권에 대한 헌신보다 청소년에게 더 중요한가를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년들의 필요를 알아내기 위해 신중하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신권에서 역점을 둘 것은 개개인

의 관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극히 상투적인 방법으로 과연 정원회 회원을 활동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하여 크게 의구심을 품어 왔습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든 정원회 활동에는 계획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나는 한국의 어느 아픈 신권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년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의 부친의 친구가 그의 부친을 부르더니 요즈음 경제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느냐고 묻고 만약 그렇다면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이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의 아들이 길가에서 신문을 팔고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용돈이 충분치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용돈은 충분하지만 매우 가난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어린 아픈 신권 소유자는 그의 용돈으로 신문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몇몇 급우들은 친구의 학비를 대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 일이 있던 지 얼마 후 그는 어머니에

게 도시락을 하나 더 싸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창 자라는 나이여서 특별이 많이 먹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께 그 도시락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 친구는 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와 같이 사려깊은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어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공과를 배웠어요. 나는 그것을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됨으로써 그 공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성도의 빛, 1980년 2월호, 29페이지 참조)

청소년 시기에 이와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신권은 그에게 전에 주지 못했던 어떤 의미를 주게 되며 그가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가 되게 합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소년들의 생애의 일부가 될 때 그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비활동적인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데는 별도로 신비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회 회원들의 도움과 함께 성인들과 정원회 회장의 관심과 사랑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관심을 끌고 의미깊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락이나 게임만으로는 어떤 소년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에 대해 훌륭한 논점을 갖도록 해줄지는 모르나 만일 그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게 해주는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 모든 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주고 승명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서서 그들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실족된 형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우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떼들이 비활동적이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쾌락, 유혹과 박해와 시련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선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마 13: 21; 24: 10; 눅 8: 13-14 참조)

형제 여러분,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우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복음에 대해 알고 있으며, 얼마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큼 급박한 것입니다.

종종 재활동화를 위해 그룹 연구 및 사교 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조용하고 품위있게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적으로, 즉 일상적인 기법”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영적으로” 행

해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정으로 보살펴 주는 것보다는 덜 기본적인 것이며, 새로운 지침서를 쓰기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복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잠 18: 19)렵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곳에는 달리 쉬운 방법이 없고, 성급하게 서두르면 대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서야 하지만, 생색을 내는 태도를 보이거나 영적인 면보다는 통제 수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힘들어서 일시켜 세운 사람이 그후 곧 잊혀지거나 무시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첫번째 단계는 이 사람들이 비활동이 된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접적이고 사랑을 갖고 부딪치는 방법에서 나오는 그러한 힘을 결코 과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주고 받는 것은 아니라 해도 결코 시들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때문에 일상적인 과제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눅 10: 29-37 참조) 어떤 [영적인] 상처는 간단한 치료 방법보다는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째 단계는 신권 집행 위원회와 워드 협의의 평의회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활동 회원을 비활동 회원과 짝지어 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사랑을 보이는 것은 막연히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그들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낄 정도로 극도로 공식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영감을 받아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동화시키는 일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알기 위해 공식하

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한 개인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여 그들에게 새로이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باط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민 10: 29-32 참조) 비활동적인 사람이 처한 상황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대개 그들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과 재능을 나타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적당한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위원회는 활동적인 장로가 2, 3명의 활동 회원의 도움을 받아, 정원회 회장에게 규칙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게 합니다. 각 위원회마다 체육 및 복지 위원회와 같이, 비활동 형제들에게 그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청할 때 가장 쉽게 응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비활동 회원들은 교회에 나오라는 일반적인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사를 감안한 특별한 위원회에서 봉사하기를 요청하면 더욱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느 비활동 형제는 영접자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평원을 횡단할 때의 교회 회원들은 소속감이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했으므로 한 사람도 비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는,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활동화하는 데에도 개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신권 정원회의 가르침과 기초 복음반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가르침받은 영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상,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단숨히 먹다 남은 것을 데워 준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신전 준비 세미나는 가능한 많은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도록 평이하게 가르쳐야 합

니다. 비활동 부부에게 우정을 함께 나누는 부부를 지명하여 이러한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참석한 비활동 부부들에게는 신전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다정하게 권고해 주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미나에 초청받은 사람의 30퍼센트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합당하게 접근하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신권 지도자들이 그들의 집에 와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무적인 통계 수치는 우리가 간단히 서서 비활동 회원을 염려하고 초조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실행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제시해 줍니다. 형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각 공예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목각 공예가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뚜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깎아 내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작은 것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섯째 단계는 주께서 이 사업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말을 들을 준비가"(엘 32: 6)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영이 탕자의 마음을 자극하여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눅 15: 20) 있더라도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비활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항상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우스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나, 예방에는 단지 몇 마디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만

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침례받은 후에 신권을 받고 교회의 책임을 맡는 것은 새로운 개종자를 지지하고 도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쁘게 일하는 다른 교회 역원들을 돕고 팔이 쳐지고 무릎에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교성 81 : 5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조 목자인,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활동을 벌려 놓음으로써 또는 많은 돈을 헌납하기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지, 피로에 지쳐 쓰러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핵심이 되는 물문경조차도 그만한 힘과 수단이 마련되었으므로 번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성 10 : 4 참조)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이 절실한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가득 찬 완전한 교회에서 비활동 및 활동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전체적인 현실과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신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표시되기는 했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고속도로나 에스커레이터가 아니라, 작은 길입니다. 사실, 좁고 협착한 유일한 길을 걷는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감으로써 서로를 돕게 됩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여 어떤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는 한, 그는 화해와 대화의 길을 모색하지 않고 복수를 모색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다 원한까지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감정을 상한 사람이 빨리 그것을 잊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엡 4 : 12) 하는 곳이지 이미 온전해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는 사실은 왕국에서 우리는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주님은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서로 훈련을 쌓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마치 전문의가 아니라 “수련의”에 의해 치료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다.

흔히 우리는 왕국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지도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고기를 먹어 약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 했으며,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충으로 식사를 한 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엘리트나 부유층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지고 있는 책임은 “정도를 지나”(야곱서 4 : 14)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나의 책임입니다. 가장 크게 강조해야 할 사항은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걸다가 계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에서 잠시나마 것처럼 물 위를 걸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업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의 몇몇 친구들에게 그들이 요셉의 사소한 불완전한 점을 목격했다는 점을 주님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당시에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교성 67 : 5, 9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내딛는 조그마한 실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거울 삼아 교훈을 얻고 우리의 발전이 저지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유능하고 겸손하며, 예언자이며, 경건 편집자인 모로나이의 다음과 같은 고결한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 전에 기록하신 이를 각각 저들의 부족함으로 비난하지 말라.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몰몬서 9:31)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훨씬 덜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교회 다른 회원의 잘못을 고쳐 주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해답의 열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결점에는 눈을 크게 뜨되, 다른 사람의 결점에는 눈을 반쯤 감아 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발전시키고 형성시키는 그 위엄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국에서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밀고 밀리게 됩니다. 실족케 하는 일은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마 18:7 참조) 자존심을 어리석게 행사하면,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토마스 비마쉬(1835—1839년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는 곧 예언자 요셉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쉬와 같은 시대 사람인 로렌조 스노우 장로도 역시 예언자 요셉에게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으나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그처럼 중요한 일에 쓰실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렌조 스노우 자신도 얼마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하늘 문”을 통해서 보

듯, 사랑스런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본 스노우 대관장에게는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들도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짹짹 놀라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 하며,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필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눅 22:54—62 참조) 또한 위임하지 않는 모세에게는 정이 많고 현명한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 은밀하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출 18:13—16 참조)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해 줍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강조하지 않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그가 행한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간증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4:5—12 참조)

그 밖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겸손한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지 못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절정의 배에 어떤 특별한 교회 정책에 관해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기록에도 그들의 특별한 사도의 형제애를 개선시켜 준 일에 관해 아직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보다 실수를 더 깊이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들보다 그들 기록의 불완전성을 더욱 깊이 의식하겠습니까?

“또한 이 기록을 받고 나서 이의 완전하지 아니함을 비난하지 않는 자는 이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몰말 8:12)

육신 생활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치려야 하는 대가를 주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계명은 나의 것이요,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교성 1:24)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상적인 일 외에도, 특별한 환경하에서는 강건한 사람들도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판관을 받기 전에 십이사도에게 목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떨어져 나가리라는 것을 부인하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26-31 참조)

이러한 제자들을 심판하기에 앞서, 고통에 싸였던 그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불리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유대 당국자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아신 예수는 그들에게 떠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의 구세주는 체포되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한 허탈감과 굴욕을 느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미 경고받은 바 있다 해도, 그들은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실한 보조 목자들은 마치 예임을 받은 것처럼 함께 규합하여 구세주의 영화로운 사업을 추진시켜 나갔습니다.

그와 어느 정도 유사한 환경이 나부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악마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도 교회 회원들을 쫓아 내기 위해 오늘날의 이러한 목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그들의 환경과 가르침을 끝까지 견디어 내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이다”(요한복음 6:67-69)

끝으로, 나는 감정이 상하여 비활동이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감정이 상한 일로 장차 교회에서 비활동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의 길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은 양떼나 교회 조직이나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 18:12-14 참조)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보기를 호소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 18:15) 일짐을 이기는 것을 한 형제를 “얻는 것”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두 배전의 노력으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친구들을 도와 베드로와 바울이 땅을 갈아 뿌리틀 내리고 키워, 안정시킨 대로 하십시오. (엡 3:17; 벵전 5:10 참조) “때가 임박하니”(찬송가 58장)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회개하고 돌아온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용한 말씀을 음미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싸움은 끝났으니 이리 오시오.

처음 친구가 결국은 마지막 친구가 되는 법이랴오. (교회 정사 4:164에서 인용)

형제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드리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눅 7:23)라고 말씀하신 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께서 구속을 가져다 준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주께서 문에 서서 팔을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일조 :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라는
훌륭한 노래가 있는데, 4절을 노래부르지
않아 마음이 안되었습니다. 4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힘과 열을 다하여
일 기도 힘쓰라.
모든 가치 있는 일에
네 온 정성 다하여”(찬송가, 90장)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왕국을 앞으로
밀고 나아갑시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같이, 소년 시절에 이 연차 대회에 참석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거룩한 십일조의 법에 관하여 간증하는
그의 음성은 주님께서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
치는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을 전하
는 확신에 가득 차 장내에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

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킬 위
치에 계심을 알았으며, 그가 그와 같이 하
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
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드
리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와드에는 감독님의 사무실이 없었습니
다. 우리는 십일조 결산을 하기 위해 감독
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으로
존 시던칸 감독님과 함께 십일조 결산을
하기 위해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의 당
황했던 심정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빈곤하던 당시이므로 우리는 많은 용돈을
받지 못했으며, 그 금액이 단돈 200원 정도
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우리가 주일학
교에서 암송하던 짧은 동시를 토대로 한,
어린다운 제사에서 나온 정직한 십일조였
습니다.

십일조란 무엇일까요? 나는 어느 때나 말
할 수 있어요.

100원에서 100원을, 100원에서 10원을
빼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회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것은 의무이며, 주님께서 그 의무를 명시하
신 대로 우리와 같은 어린 아이도 우리의 의
무를 행하는 것이며, 주님의 교회에서 위대
한 일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십일조
를 바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 하늘 문을 열고 놀라울 정도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말 3:10 참조) 나는 주님
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
복하시리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 말
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면, 꿈에 그리던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별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십일조를 바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기본 목적은 교회가 주님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부수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 물질적인 면에서 유익을 주는 형태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연다고 말한 말라기는 계속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말 3 : 11-12)

주께서 세상의 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은사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는 토지 소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황충을 금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게 되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관심의 면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 감추인 지식의 보화까지 받는 큰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 땅이 아름다와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요즈음에는 십일조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경험한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의 신천 추천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평상시대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정직한 십일조를 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숨김없이 그렇게 못했다고 대답하며, 빛이 많기 때문에 낼 수 없었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빛을 갚을 수 없으리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1, 2년 동안 예전과 다름없이 지내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후에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빛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바친 돈을 놓치지 않았으며, 여러 해 동안에 처음으로 빛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비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며, 돈을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높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말일성도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에 있어 주님에게 정직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함께 한 젊은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이 습관을 몸에 익히고 평생 동안 계속해 나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원 여러분,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히 바치도록 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십일조는 교회에서 위임받은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수입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약속이 따르는 이 위대한 원리를 충실히 지켜 나가도록 도와 주십니다.

재정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는 가운데 다른 문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는 편지 두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교회에서 책임이 큰 역원으로 일할 자격이 재정적인 성공 여부와 동일시되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할 자격을 얻으려면, 부자가 되어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이나 직업이 천한 사람은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거의 사반 세기에 걸쳐 수많은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재조직해 온 경험을 통해, 인간의 경제 능력이 스테이크 부장을 선택하는 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또 유능한 한 분의 스테이크 부장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분의 작은 집에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목수 연장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쟁쟁한 인사들이 많은 지역의 스테이크를 관리했으며 그들은 스테이크 부장을 지도자로서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목공일로 생활해 나가는 또 다른 스테이크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물론 영적인 닻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크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최소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는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

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나 경제적인 성공이 교회 봉사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시온의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많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여 그 뜻이 인정될 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모든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후계자를 찾으러 나갔을 때와 우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인 훌륭한 젊은이가 지나가자, 사무엘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 : 7)

스테이크 부장이 감독으로 일할 사람을 지명하거나, 여러 교회 역원을 선택하는 다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훌륭한 개인이 정직하게 돈을 모은 부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일에 바칠 수 있고, 일하는 데서 탁월한 관리 능력으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선택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이 하나님의 왕국의 직분에 맞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5조)

주님의 사업을 항상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는 천 권도 넘는 책이 있는 서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

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책에서 광범위하게 읽은 지식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책을 읽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키 어려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양서와 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책을 대하면 고향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같아서 우리가 기꺼이 조금만 노력하려 한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한 책 외에도 교회 잡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잡지의 기사를 우리에게 읽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는 데저렛 뉴스도 구독했습니다. 이 간행물은 현재의 처치 뉴스의 전신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고 어떤 혈족 의식을 느꼈습니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오늘날 소위 외설이니 춘화니 하는 것에 거의 접해 보지 못했다는 데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처했던 곳을 보호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성이 범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외설적인 내용은 극장, 책이나 잡지, 신문 광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까지 어디서나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패의 세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읽힐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책과 훌륭한 교회 잡지 속에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연전에 나는 어떤 책에서 에머슨이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책이 어떤 책이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은 음식을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읽은 책을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이 그를 이루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접하고 살아온 환경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 제어시켜 그 결과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계신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오후에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해롤드 비리 대관장께서는 리차즈 장로를 기이한 업적이라고 말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96세의 고령이십니다. 다리에 좀 불편을 느끼시지만, 정신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는 원고 한 장이나 종이 쪽지 하나 없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경전을 인용하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선교사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젊은이의 선교 사업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젊은이는 선교 사업에 바치는 시간의 25퍼센트를 할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은 것처럼 할인하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뜻합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는,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좀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리차즈 장로님의 말씀을 들

으면서,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놀라운 열성과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위대한 설득력은 그의 선교 생활의 훌륭한 결실이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돈을 저축하십시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저축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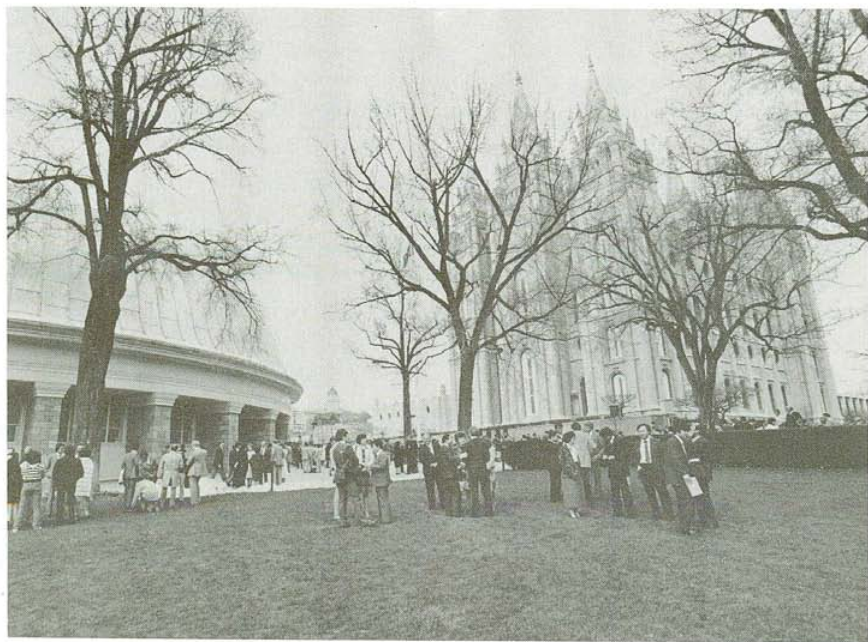
기회있는 대로 외국어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언어를 말하는 나라로 부름받게 되는 일이 결코 없을지라도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언어나 여러분이 습득해야 할 다른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사업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세상에서 주님을 대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술, 담배, 마약성 약품을 입에 대지 않고 부도덕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을 축복해 주시어,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거룩한 사업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간증드립니다. 아멘.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에 있는 템플 스퀘어

신권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
대관장 제2보좌

“우리는 단지 주님이 정하신 한계와 조건하
에서만 그의 이름에 의해 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 제 여러분, 나는 신권에 대해 얼마 동
안 연구한 결과 드디어 신권이 권능이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성 84 : 33 참조)

우리는 신권에 성임되었으므로 모든 남자
들 중에서 가장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
다. 우리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신권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신권에 대하여 가
능한 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
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신권이 권능—하나님의 권능—이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
버지는 신권에 의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
나님 아들의 신권은……그 법에 의해 세상
이 존재했고 현재도 그 법에 의해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법에 의해 존재하게 될

법입니다. 그 법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세상에 사람이 살게 하며, 자전과 공전—
날, 주, 달, 해, 계절, 시대—이 생기게 하
는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그 체제에 의해
세상은 나사처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브리감 영 강화, 존 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 메저렛 출판사, 1941년,
130페이지)

예수님은 신권의 권능을 보여 주신 후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는 최초의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요
한복음 2 : 1—11 참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사나운 비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배를 뒤
덮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
지 예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
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마 8 : 25—27)

예수님은 또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
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
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
나 되었더라”(마 14 : 17, 20—21)

예수님은 신권의 권능에 의해, 장님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름발이
를 걷게 하고, 온갖 질병의 환자를 치유하
셨습니다. 그는 나인의 미망인의 아들이 죽었
을 때 살리셨습니다. (눅 7 : 11—15 참조)
그분은 신권의 권능에 의해 자신도 부활하
셨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신권의 권능을 그들
의 타고난 권리로, 그들의 뜻대로 직접 행
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
서 일으키실 때 다만 이렇게 하셨을 뿐입니
다.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오는데”(요한복음 11 : 43-44)

우리 인간들은 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권은 위임받은 권능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정하신 한계와 조건하에서 그의 이름에 의해 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완전히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하신 훌륭한 마지막 설교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 : 11)

내가 연구를 통하여 신권은 바로 권능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권능이며 또한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에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사용하시던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영감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의 신권에 의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송기 형제님은 이 주제에 관해 오늘밤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연구를 하며 성신의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가 부름받은 다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부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여, 교회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오백만 회원—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여러분 앞에 완전한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이 대업은 온 인류와 같이 크며 영원만큼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금주 초에 교회의 회원이 5백만에 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깊은 이정표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감사해야 할 시기이며 또한 깊은 회상에 잠겨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의 기초를 닦은 분들도 틀림없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과 동시대의 인물들 중에 비난을 퍼붓던 자들은 이 교회가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룩하신 일을 보게 된다면, 놀라움과 좌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은 이것을 기적적인 권세로 현재와 같은 막강한 위치에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이 말일에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마음이 청결하고 때묻지 않는 한 소년을 통해서 기록하신 분의 지시와 성신의 권세로 주어지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어린 요셉 스미스를 택함받은 예언자로 볼 수 있는 신앙을 심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들

의 눈을 열어 티끌에서 나는 음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는 이 놀라운 물문경의 기적을 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나이 33 : 13 참조)

지옥의 권세가 초기의 교회와 소수의 회원들을 짓밟으려 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사라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한 겨울에 혹한을 무릅쓰고 행진을 하고, 집이 불타며, 신전이 더럽혀지고 평원에 표비도 없는 무덤이 즐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로운 사람들의 호느낌은 모두 지나가 버린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습니다. 교리는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덕성과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그대로 세인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합니다. 그리하여 능하신 분이 내려 주시는 그와 같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힘이나 숫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더욱 완전하게 되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백만 회원의 이정표는 단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생활에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의 행동에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와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교성 82 : 3)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교회에 주어진 다음의 세 가지 위대하고 긴급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의 백성에게 전하며, 둘째, 교회 회원이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실천하게 하며, 대리 사업을 통해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과 같이 광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깊습니다.” 이 사명

을 고수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뜻깊은 이정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정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업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 14)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목표이며 책임입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 크게 발전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생활한다면 가일층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 따라 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단순하며 항구적인 힘의 근원이며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주속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되시는 권세로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고전 15: 20) 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하며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에 따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 곧 아버지와 아들은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경 11: 30 참조) 이전에 주어졌던 거룩한 가르침과 권능의 모든 요소가 이제 마지막 영원한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여 암흑 속을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대나 우리의 세대에 주어진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도 많이 있고 교사들도 많이 있으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말씀에서 훌륭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지혜의 가장 믿을 만한 근원은 이 성스러운 책 곧 교회 표준 경전 속에 들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거룩하게 계획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번째 지켜야 할 점은, 우리가 그 교리를 일상 생활에서 보다 완전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진도는 충실한 말 일성도가 보여 주는 모범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의 압박으로 인해 니파이가 말한 대로 하는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죄를 조금 짓고…… 거짓말도 조금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헛된 일로 하여 의인을 제쳐 놓으며, 선한 것을 꾸짖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자에게……”(니파이이서 28: 8, 16)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 16)

만일 우리가 한 성도로서 성실하게 행하고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우리가 단순하고 기본적인 면서도 놀라운 원리인 황금률을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에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아 빛이 숨기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 14 참조) 우리는 이사야의 약속이 날로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

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이사야 2:3)

세번째 지켜야 할 점은, 우리가 보다 부지런히 가정에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사랑과 희생의 영과 서로 존경하는 태도로 가득 찬 위대한 가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질을 보다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화평과 사랑을 몰아 내는 해독과 같습니다. 이기심은 분쟁과 분노와 불경과 불의가 싹트고 이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달 말에 우리는 브리검 영 대학교 캠퍼스에 캐롤린 페멘웨이 하먼이라는 한 여성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새 건물을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여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롤린은 22세 때 조지 하먼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일곱 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한 자녀는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39세가 되었을 때 남편이 죽었으며 그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동생 그레이스는 캐롤린의 남편의 동생인 데이비드와 결혼했습니다. 1919년, 악성 독감이 유행할 때 데이비드는 심한 독감이 걸렸고 그의 아내 그레이스도 병이 들었습니다. 캐롤린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동생 부부와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아들을 낳은 그레이스는 체 몇 시간도 못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캐롤린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생명을 구했습니다. 3주 후에는 캐롤린의 딸 애니가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캐롤린은 두 명의 자녀와 남편과 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너무 컸으며 그녀의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심한 당뇨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린 아기와 그녀의 동생의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매일 어린 아

들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후에 데이비드 하먼과 캐롤린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5년 후에는 데이비드에게 재난이 덮쳐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씨앗을 심기 위해 강한 소독약을 사용하였는데 그 약제가 몸에 묻어 그 결과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부와 살이 떨어져 나가고 혀와 이빨이 허물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부식성 용액은 문자 그대로 그를 산 채로 먹어 버렸습니다.

캐롤린은 이 무서운 병에 걸린 그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에게는 자신의 자녀 5명과 동생의 자녀 8명이 남게 되었고, 유산이라곤 113헥타아르의 농장뿐이었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수확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일했으며, 18년간 그녀는 이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가족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빵 여덟 개를 구워 냈고 일주일에 40머더기의 빨래를 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톤 단위가 넘는 과일과 채소를 통조림으로 만들었으며 수천 마리의 닭을 쳐서 작으나마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는 태만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주리거나 헐벗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노력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유진 로빈슨과 결혼했는데, 그가 얼마 후에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 5년간 그녀는 그를 간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쓰러졌고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심어 준 근면과 노력의 습관은 해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

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길러온 동생의 어린 아기는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났으며 사랑과 감사의 정신으로 유산을 대학에 기증하여 그녀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서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나 교육, 사업,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되새겨 본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모두 사람에게 더욱더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위대한 대학의 캠퍼스에 널리 알려 지거나 유명하지도 않으며, 단지 두 가쪽을 키우고 사랑하였고, 그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뒷바라지해 왔으며, 혹독한 역경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평범한 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유용한 건물이 서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녀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평범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사례는 교회 초기에 헛벨과 태풍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예술과 유용한 기술을 가르친 위대한 가족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은 다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족 정신과 가족의 감사와 사랑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켜야 할 사항은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강화시키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7)

우리는 비판으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은 기고거나 비평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판하거나 어떤 일에 반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를 지지할 때 주님께

서는 어떠한 폭풍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어떠한 역경도 잘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적은 우리를 분열시키며, 비평의 태도를 길러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지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할 때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성 6:34,36)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을 찾지 말고 보다 크고 훌륭한 것을 보기를 권고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길어 현상궁께 보였으며 몸집이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불완전한 점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걷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멸시했으므로 그가 지닌 참다운 위대성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보다 폭넓은 안목을 지닌 자만이 그분이 분열된 국가의 우두머리로서 암흑의 시기에 “누구에게도 악의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두번째 취임사) 의로운 것을 볼 수 있었고, 국가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 곧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지도자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은 그들이 수없이 봉사하고 위대한 헌신의
 과정에서 흔히 부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완전한 모습을 그려 보십시
 오. 이 대업은 온 인류와 같이 크며 영원만
 큼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
 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힘과 충성
 심과 신앙이 요구됩니다.

5백만 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우리
 는 이제 하나의 이정표에 이르게 되었습니
 다. 이것이 최정상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멀고 먼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리에 의
 거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자비를 넘치게 하고, 서로를 지지하

고,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교
 회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와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
 게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위대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된 생
 명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
 지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즐거움의
 아주 작은 부분을 희생하도록 요구받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과 헌신과 마음과 정
 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
 해야 합니다. (교성 59 : 5 참조) 하나님께
 서는 우리가 보다 밝은 빛과 보다 뜻깊은
 날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 앞에 충실했던
 자들과 같이 충실하게 되도록 도와 주실 것
 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엘 톨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무덤 저편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가족 조직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1982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명 받은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이사야 2:3)는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모임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어 신전 축복을 받고 죽은 친척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전에 가며,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하며, 가족 혈통을 찾는 일을 확대하며, 가족 조직을 조직하고 강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과업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광스러운 시현을 본 후에 맨 처음으로 받은 지시는 영원한 가족 단위 조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역사 기록에는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신 천사 모로나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말한 후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서 2:33, 36, 38—39)

매주 주말에 이 대회 모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조상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단합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그 조상에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구세주께서 돌아오실 때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인하여 나는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자녀와 함께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메리고 우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가정의 밤의 공과의 일부로서 그들의 조상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혈통 가운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조상은 우리 할아버지인 헨리 물간 페리입니다. 나는 그의 인생에 관한 공과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남기신 업적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친께서는 할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셨다. 그는 결코 빛지지 않으셨다.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냈다. 그분은 결코 농장을 저당잡히지 않으셨다. 그는 농장에 어떤 형태의 빛도 관련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기 농장을 저당잡히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 들었다. 그는 공공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나는 그분이 맡으셨던 네 가지 중요한 직책을 잘 기억하고 있다. 첫번째 직책은 치안 판사였다. 둘째는 학교 이사였다. 셋째는 감독단의 일원이

었다. 넷째로는 그레이트 피더 커널(운하)을 위하여 일한 것이었다. 그는 비옥한 스베이크 리버 벨리의 관개 사업의 개척자였다.”

아버지의 기사에서는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가르쳐 준 온화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육에 대한 소망이 대단한 분이었으며, 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으로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애쓰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애야, 공부할 때 겸손하고 기도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 공부에 대해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약간의 지식을 얻고 좀 거만해졌던 시기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정되었음 :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과학이 종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

모임이 끝나자 청중이 모두 그 토론을 들으려고 남았습니다. 각 연사는 15분 동안 말하고 3분 동안 논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달성한 진보와 그것이 모든 인류의 생활을 개선시킨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토론회 회원이었으며 웅변을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청중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을 때 그는 청중이 성경을 꺼쳐 두고 과학을 신봉하게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교가 인류에게 얼마나 훌륭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장점과 훌륭한 점과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논박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허용된 시간 내내 “나는 증명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증명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메시지의 진실성보다는 설득력이 적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는 앉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덧붙였습니다. “나는 과학이 달성한 모든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과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었습니다. 과학은 세우고 돌러싸고 진선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할텐데 어제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보의 공적과 과학이 달성한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부드러움과 비교할 만한 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아버지까지도 실복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구세주의 겸허한 가르침 속에는 모든 헛된 이상의 영광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 (“그들이 왔다, 엘버트 제트 페리, 1955년)

여러분께서 수긍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의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물간과 패니 영 케리에게 10자녀가 생겼으며 49명의 손자와 161명의 증손자와 241명의 고손자와 현재 22명의 고고손자까지 합쳐서 482명이 됩니다. 이들의 동반자를 합치면 이 숫자는 639명에 이릅니다. 그들의 자손은 한 와드가 되고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남아 두 와드로 나누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분 한 분 확인하면서 할 아버지의 가족 모두가 그분이 가르치신 지식을 다 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내가 해야 할 굉장히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639명 가운데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마음속에 증거를 받지 못했으므로 영원한 그의 가족 단위에 속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해의 왕국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할아버지인 헨리 몰간 페리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출 경우 영원히 그와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할아버지를 뵈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으며 그분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맞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취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떠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헨리 몰간 페리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가족 단위의 일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오늘 여기에 와서 내 말씀을 듣도록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우리 친척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 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엘 34 : 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에서 두 가지 사항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사도행전 4 : 11—12 참조) 둘째, 모든 남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권능에 의하여 복음 의식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요한복음 3 : 5 참조)

예언자들은 가족 조직의 영원성에 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은 우리가 영원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현세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을 함께 관계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생활하는 부부는 그들의 능력, 모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녀로 하여금 명예롭고 유덕한 생활에 젖어 하나님의 왕국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종말에는 자신의 유익과 구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의 행복과 구원에 관한 한 나보다 더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없는 데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따라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조건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249—50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참여해야 할 이런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원리와 의식의 제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제이는 회개요, 제삼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요, 제사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 4조 참조) 복음의 첫째되는 4가지 원리를 받아들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자신을 증정한 다음에야 주님의 신전에 들어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덕과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자비롭고 유덕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하기로 결심하며,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를 향상시

키기로 하며,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을 계속하며, 이 지상을 만왕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힘써 공헌하기로 성약을 맺는다. 모든 성약을 맺고 책임을 받아들이면, 조건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다.” (주님의 집, 73페이지)

자신의 인봉을 받고 나면 동반자와 연합되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의 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 주는 능력을 이 땅에서 지니도록……기쁨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약속의 성령으로써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아니하거나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느니라.” (교성 132 : 7)

신전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와 영원에 있어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현세와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우리는 가정과 가족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확신 때문에 가장 공들여서 비싼 건물인 주님의 집을 짓



습니다……이것은 남자와 여자와 그들의 자녀가 이 지상 생활의 모든 한계점을 초월하는 영원한 유대를 갖고 성약에 의해서 계속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힘-가족”, 전국 가족 저녁 프로그램에서 하신 말씀으로 아직 출판되지 않았음, 1976년 11월 23일, 시애틀 세계 박람회 대강당)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와 손자가 하나의 영원한 가족 조직 안에서 영원히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그의 자녀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훌륭한 가족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 프로그램, 제보 초출 프로그램, 주일학교 공과 준비 등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영원한 가족 조직의 일부로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돕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선 순위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 관계가 완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가르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저편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가족 조직을 소유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은사, 즉 영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14 : 7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을 진리를 배움으로써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성실성, 모든 덕성의 어머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실성은 수양된 양심에서 나오는 빛이며 또한 우리 내부에 들어 있는 의무의 소산입니다.”

나 는 오늘 성실성의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자신에 대하여 공정하고, 다른 사

람을 공정하게 대하며, 수확의 법칙을 인정하는 것에 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의 직선적인 표현에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는 성실성을 도덕적인 가치에 충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웹스터스 뉴 컬리지에 사전 참조) 그것은 착실성과 청렴 결백성을 뜻합니다. 그것은 모든 덕성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제1스테이크 부장인 월터스 패트 형제는 수년 동안 브라질 사우파울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나무에 장미와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어떤 가구보다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든 가구들이 정교했으며 그의 손에서 나오는 작품마다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내와 함께 그의 공장에 들어갔을 때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 낸 아름다운 가구들이 전시장으로 운반되고 있



었습니다. 나무결이 아름다웠으며 마무리 작업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스포트 부장에게는 철물이 달린 부분은 기준에 미달된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드라이버와 샌더를 갖고 와서 철물 부분을 모두 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작품은 이런 것이 아닌데.” 스포트 부장은 거의 완벽하지 않은 가구는 만들어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명예와 성실성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렐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가를 염려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웃을 속이지 않을까를 염려할 때도 오게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간다. 그런 사람은 손수레를 태양의 전차로 바꾸게 된다.”(생의 경영, 렐프 왈도 에머슨 전집, 뉴욕: 윌리엄 에이치 와이즈 앤드 컴퍼니, 1929년, 585페이지)

성실성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빚지고 있는 의무의 구현입니다. 존경받는 남자와 여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설정한 기대에 부응하여 생활해 나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제지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심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합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이 역할을 가장 잘 행합니까? 밖에 나타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도 꿰뚫어 볼 수 없고 인생의 비극에 대항하여 내적으로 방어하는 내적인 부분입니까?

성실성은 수양된 양심에서 나오는 빛이며 또한 우리 내부에 들어 있는 의무의 소산입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민수기 30:2)

레이번의 종 조렘이 놀라서 도망가려 하자 그를 가지 못하게 붙잡은 니파이는 서약

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휴 니블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힘이 센 니파이는 떨고 있는 조렘을 꼭 붙잡고 그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내가 살아 있는 한’(니일 4:32) 그가 말을 듣는다면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렘은 곧 안심이 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조렘이 그의 일행과 같이 간다면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맹세했습니다……”

“……조렘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맹세하였으니……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졌으며’(니일 4:35, 37)”(물문경 입문, 제2판,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03—4페이지)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힘과 용기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초기에는 요셉 스미스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지지하는 것은 보기 힘들며,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라이먼 와이트는 1839년 폭도의 두목들에 의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윌슨 대장은 와이트 형제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거나 죽이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요셉 스미스와 너무 친하다는 것이요……와이트 씨, 당신은 그의 모든 성품을 알고 있지요?”

와이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맹세할 수 있겠오?”라고 윌슨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트 형제는 윌슨에게 “요셉 스미스는 그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인자하고… 가장 순수한 성품의 소유자이며……인류의 친구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트 씨, 당신의 생명은 위협에 처해 있고, 그

것은 조 스미스에 대한 편견을 풀게 되면
끝까지 살 수 없기 때문이요.”

“나를 죽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와이트 형제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월슨이 와이트에게 다시 와서
“말하기 안됐지만 당신의 운명은 결정되었
오. 당신은 내일 아침 8시에 파웨스트 광장
에서 총살당하게 될거요.”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나를 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죄인들의 사형 집행 명령은 다음날 취소되
었습니다. (교회 정사 3 : 446—47 참조)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
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나는
제2차 대전 중 어느 9월 초에 휴가를 얻어
집으로 왔습니다. 이 시기는 북송아를 병
조립하여 겨울을 위해 저장하는 때였습니
다. 나의 사랑하는 장모님이 솔트레이크에
서 홀랜드 출신의 옛날 친구 조지 비 앤드
러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상의 대
화는 짧았습니다. “조지, 형제님, 북송아
파실 것 있어요?”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
다.

앤드러스 축복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자진해서 장모님을 태우고 북송아를
실러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장모님은
“조지 형제님, 북송아는 어디 있지요?”라
고 물었습니다.

앤드러스 형제는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햇빛에 익어 붉은색이 점점이 박
힌 큰 누런 과일이 가득 든 바구니를 보았
습니다. 바구니마다 너무나 짝 갖기 때문
에, 그것을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려던 바구니
맨 위에 있는 커다란 북송아가 몇 개씩 굴
러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앤드러스 형제는
즉시 그것을 다른 성한 과일과 바꾸어 주
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장모님에게 이러
게 말했습니다. “과일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장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조지 앤드러스 형제에 대해 좀 안다면, 자
네는 그가 시장에 내놓은 과일이 언제나 가
장 훌륭하며 또한 그는 가격보다 더 많이 준
다는 것을 알 것이네.”

나는 앤드러스 형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과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
다. 앤드러스 형제 자신이 설정한 표준은
그로 하여금 우리들과의 거래에서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게 했
습니다.

타고난 성실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거의 매시간마다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자들도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중요한 것 즉 바로 자신의 성실성을
잃게 됩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참된 성
공과 영예의 모조품이 될 뿐입니다.

자녀를 둔 사람들이 올바르게 못한 어떤 일
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악에 가
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의
잘못을 저지르는 이외에, 또한 다른 세대에
게도 잘못을 범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에 따라 그대로 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언
행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의 수행에는 그와 관련된 희생과는
상관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속합니다. 솔트레이크 골짜기
의 초기 역사에서, 조셉 더블류 맥머린은
교회 지도자들을 경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
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소셜 홀에서
가졌던 한 모임에서 지도층 인사로 자처하
는 한 침입자가 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
습니다. 주님의 종의 호위에 충신했던 조셉
더블류 맥머린은 그가 안으로 들어오려
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
장은 그 침입자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
습니다. “결국 손을 뿌리치고 권총을 빼어
맥머린의 몸에 대고 두 발을 쏘았습니다.
..... 그것은 급소를 관통하고 등쪽에 박혔

입니다. 그는 조셉 베네딕트 의사의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조셉 더블류 맥머린에게 두 발의 탄환으로 급소를 맞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쓰시고 싶으면 바로 지금 쓰십시오.’

“나는 존 헨리 스미스와 함께 맥머린 형제의 집으로 가서 무섭게 뚫린 상처 주위의 살이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환이 그를 관통한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존 헨리 스미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형제님은 완전하게 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중을 경호하다가 그대가 받은 이 놀라운 상처 때문에 그대의 몸에 신체적인 결함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1931년 11월 21일에 그랜트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마쳤습니다. “조셉 더블류 맥머린은 건강하게 살아 있으며 이와 같은 놀라운 상처로 인해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복음 표준, 솔트레이크시티: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310-11페이지)

우리가 수확의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를 거두게 됩니다. 말일성도는 자주성과 근면과 절약과 자립의 덕성에 따라 생활하라는 가르침을 오래 전부터 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영원한 자기 존중의 원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각자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면과 절약의 결과는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하고 건전한 투자는 여려해 동안 노력을 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위험

이 따릅니다. 그러나 투기적이고 불건전하고 막연한 고도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투기에 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투기를 배척하고 그들의 부름에 충실하라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설교집, 8:179)

베이단 엘든 테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투자성 부채는 가족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투기성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행을 바라게 되면 그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좀더 많이 모으려는 한없는 욕망 때문에 많은 행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좀더 많은 부를 얻으려는 탐욕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건강을 예측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변화 속의 불변성,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123페이지)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전입니까? 성취입니까? 명성입니까? 지위입니까? 지배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미가는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선지자 에스겔도 성공에 대한 하나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는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에스겔, 18:5, 7, 9)

주님께서는 위대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열왕기상 3:5)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열왕기상 3:9) 솔로몬이 세상이 정의하는 바 성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완전하고 변함없는 성실성은 인간 행위의 위대한 울법입니다. 삶에는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행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고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으며, 깨뜨려서는 안되는 선서와 말해서는 안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공정과 용서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수제자이며 충실한 베드로도 나약했던 순간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누가복음 22:54-62)

나는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결심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느낀 실망감으로 그의 결심을 강철과 같이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상 생활에서 헌신을 증거해 보였고 끝내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표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참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그분께 의지하여 똑바로 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시험을 받은 욕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욥기 27:5)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수확의 법칙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거룩하신 주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에서 오는 내적 평화의 일부라는 것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가족 기도의 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끊임없는 가족 기도보다 더 가족을 단합시키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가져다 주는 힘은 없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열쇠로서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가족 기도의 중요성과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가족 기도입니다.

우리가 독신자이든, 기혼자이든 우리는 어떤 면으로든 어떤 가족의 영원한 일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기쁨의 대부분은 우리가 가족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키워 나가는 데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배운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이 지상에 옵니다. 우리가 이를 이루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기심과 자만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인간성품의 핵심이 되는 사랑과 겸양과 봉사와 행복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곳은 가정

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이웃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크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니파이삼서에 있는 구세주의 권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삼 18:21)

우리가 항상 가족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축복받을 수 없으며, 받는다 해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가족 기도보다 더 가족을 단합시키고, 가정에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가져다 주는 힘은 없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때 생기는 영원한 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축복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각자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축복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매일 가족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영혼을 다 쏟을 때 가족이 받게 될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 판장께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효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54페이지) 가족 기도는 우리가 더욱 큰 사랑과 이해심으로, 서로를 더욱 잘 돌보아야겠다는 각오로 일어설 때 더욱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이 더욱더 사랑하고 단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방황하거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다 확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각 가족이 차례로 다른 식구들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식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 기도로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것이냐에 대하여 개인 및 가족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족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최소한 성실성이 없이 간헐적, 또는 기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사탄은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탄의 수작은 좀더 미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특정한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다른 쓸데 없는 것에 큰 비중을 두으로써 가족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한 다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정신을 빼앗기게 하거나 흥수처럼 밀려드는 스케줄이나 분주한 현대 생활의 다른 면에 사로잡혀 가족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그런 면에서 사탄이 훌륭하게 성공한 셈이 됩니다.우리가 행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그 자체로 불 배선 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

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게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 비례는 어떻습니까? 악마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를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온 영혼을 다하여 교회에 있는 가족과 국가와 세계의 가족에게 일상 생활의 우선 순위에서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규칙적인 가족 기도를 함으로써 이를 나타내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즉 우리가 우리 가족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면,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는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렬하게 계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엔 어떤 것도 끼어 들지 않게 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드림으로써 가르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기도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가르치게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실제로 힘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가족은 가족 기도를 통해서 함께 단결되고 서로 돕고 강화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통가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여건이 선박 스트라이크 등으로 계속 여의치 않는 바람에 솔트레이크에서 통가까지 가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통가로 지명받은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으며, 대부분의 여행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사모아에서 선교부장이 나를 피지 섬으로 가는 배에 태우면서 미리 전보를 쳐 주겠으며, 내가 수바섬에 도착하면 두 장로가 나를 맞아 통가섬으로 가는 배를 태워 줄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 두 달 반 동안 여행을 했던 터이지만, 수바섬으로 가는 며칠간의 여행은 그야말로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 선교사들을 보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배는 아침 일찍 수바섬에 닿았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으나, 장로는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났지만 장로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그들이 곧 떠나야겠으니 배에서 내리라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두 젊은이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선장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내려 주시오. 당신은 수바까지 표를 끊지 않았오. 배가 떠나겠으니 당신은 이곳에 계시오.”

두려움에 질려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배다리를 내려오니, 이번에는 이민국 관리가 “당신의 비자나 여행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 쓸 돈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시오.” 하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비자도 없었으며 표도 갖고 있지 않았고, 가진 돈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젊은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지고 곧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배에 타라고 했고, 선장은 자기 배에 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배다리 한가운데 서서, 위쪽에서 팔짱을 끼고 험상궂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선장을 올려다보고, 아래쪽의 딱딱한 얼굴 모습에 모가 난 턱의 이민국 직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배다리 밑의 철석이는 바닷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뜰 수 있는지 생각했으나,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선장의 난폭한 행동은 절정에 이르러, 육설을 퍼부으며, 소리치르고, 가방을 차 내던지고, 배다리를 끌어 올려,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나는 그보다 조금도 더 친절하달 수 없는 이민국 관리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토론을 하였는데, 대부분이 외국어여서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은 친절해 보이는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지금부터 내 물건을 “보세창고”에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한 물건을 두는 곳입니다. 그도 역시 내가 말한 두 젊은이가 끝나 나타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선교사와 접촉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모로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만은 그저 두렵고 피로하고 배가 고프기만 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고 나의 기도 점점 죽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으나,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운 카레 향기와 코프라와 말린 생선과 수많은 이상한 광경과 소리와 끈적끈적한 열대 부두가의 냄새는 아이다호 교향의 시원하고 신선한 냄새에 젖은 나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향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으나, 그래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원치 감아올리는 소리며, 화물을 옮기는 부산한 소리며, 기계가 빠지며 움직이는 소리도 모두 그쳤습니다. 부딪가의 일꾼들도 하나 둘 떠나간 다음, 이민국 관리들도 자리를 뜨고 몇몇 감시원과 감독들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토록 의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럽고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누워 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줄기 햇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쳐와 바닷가를 비치며 급속으로 된 관세 창고의 구멍을 통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이 얼마나 오래 갈까?”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 마지막 햇빛이 사라져 밤이 되면 어떻게 하지?”(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을 감아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여러분 주위의 것이 변하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돼. 난 희망을 가져야 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다시 한번,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자신이 어디로 옮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훨씬 실제적인 면에서,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다호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무릎꿇고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입을 열고 누구라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로 나간 존을 축복해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가족이 선교사로 나간 아들을 실제로 도울 수 없으므로 하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나를 들어 올려 잠시나마 내가 함께 둘러앉아 기도드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

는 실제로 충실한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 폭 잠기게 되었으며 잠시 동안이라도 아바라함의 품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22 참조) 나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속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품이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솟아나면서 나는 따뜻한 안정감과 사랑의 빛과 소망의 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멘트 바닥의 딱딱하고 울퉁불퉁함을 느꼈을 때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초조함 대신 깊이 감사하는 마음과 확실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끝을 이야기하자면, 반 시간 뒤에 낮에 내게 친절하게 대해 준 젊은 이민 관리국 직원이 두 사람의 젊은 장로들을 데리고 창고쪽으로 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흰 셔츠에 백타이를 맨 두 명의 젊은 미국인을 만나, 그들과 같은 사람이 부딪가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전보는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를 따라 부딪가로 와서, 곧 모든 일이 제대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3주일이 지나 나는 통가에 내려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열심히 드리는 가족 기도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축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가족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 주든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 주도록 하십시오.

가족을 함께 부르십시오. 가족 기도를 가

장 우선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현재 가족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가족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구실이나 방해물을 써서라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꾸준히 밀고 나가십시오. 큰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일은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기도에서 받는 힘의 일부는 우리가 천국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에 있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흥미를 가지며 그



대회 방문자

들과 함께 동참으로써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한 생각이라 하겠습니까?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죽 거슬러 올라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드린 수많은 기도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필수적으로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원을 두고 그것이 반복되고 메아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위대한 선한 능력의 일부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과 공간이 이러한 의로운 능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과 제인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십사 하는 영혼을 감동케 하는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배우라는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가족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세주요,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에 가족을 모아 놓고 항상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의로운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 주며 인생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모두 이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찬구합니다. 아멘. *

인생 항로의 안전한 항해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항로를 인도하는 결코 실패가 없는 신앙의 키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르게 나아가갈 때,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항구 곧 해의 왕국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39년 2월 14일에, 미국인들은 발렌타인 데이를 경축하고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부들은 편지를 날라다 주고, 어린 아이들은 예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접어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의 집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편지나 종이마다 인사말, 사랑을 전하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도 역시 공휴일을 경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침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열렬한 연설과 환호하는 군중과, 국가가 연주되는 속에서 새로운 전함 비스마르크 호가 엘베강으로 진수되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이 전함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스마르크 호는 전쟁 무기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거대한 전함은 숨막힐 듯한 막강한 무기와 기계의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군함 건조에는, 3층 포탑과, 레이다 조정 포에 대한 406밀리미터의 청사진이 57,000장 이상이나



필요했습니다. 군함은 45,000킬로미터의 전기 회로로 이루어졌으며, 35,000톤의 장갑판으로 된 최대의 안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위풍도 당당한데다, 규모도 거대했으며, 무력이 엄청난 비스마르크 호는 무적함대로 도저히 침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2년 여 뒤인, 1941년 5월 24일에, 영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인 프린스 어브 웨일즈 호와 후드 호가 비스마르크 호와 독일의 순양함 프리츠 유겐 호와의 접전으로 비스마르크 호의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분 뒤에 비스마르크 호는 후드 호와 1,419명의 수병 중에서 3명을 제외한 전원을 대서양 바다속 깊은 곳에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다른 영국 전함인 프린스 어브 웨일즈 호도 크게 손상을 입고 물러섰습니다. (결국, 영국측은 무적 함대 비스마르크 호를 격침시키려고 전함 8척, 공군 비행기 2대, 순양함 11척, 구축함 21척을 동원하였습니다.)

3일 후인, 5월 27일에 비스마르크 호는 다시 전투에 참여하여 영국 전함 4척과 맞섰습니다. 포탄을 계속 맞아도 피해는 경미할 뿐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호는 과연 가라앉지 않을 것인가? 그러다가 요행히도 어뢰 한정이 비스마르크 호의 키에 명중되어 키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쳐 보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포신에 탄을 채고 수병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비스마르크 호는 천천히 장중하게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나아가면 막강한 독일의 공군력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고국의 항구도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호는 항로를 향해 나갈 능력을 잃었으므로, 그 어느 것도 절실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키가 없어지자, 도움도, 항구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왔습니다. 영국의 포탄이 불을 뿜어대자 독일 수병들은 허둥대며 도망치고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군함은 가라

앉았습니다. 대서양의 굽주린 파도가 한쪽으로 철썩이더니 독일 해군의 자랑거리를 한숨에 삼켜 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 호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호와 같이 우리 각자는 놀라운 기계 공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고안해 낼 수는 있으나, 기계에 생명을 부여하거나 이성이나 판단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고 신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순환 계통을 주셔서 모든 혈관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하시고, 소화 계통으로는 힘과 활기를 얻게 하시고, 신경 계통으로는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와 더불어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에서 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등대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 줍니다. 우리가 돌아갈 항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를 잃은 배와 같이 결코 고향의 항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호가 보내집니다. 항로를 그려 항해하여 키를 잡고 나아가십시오.

배에서와 같이, 사람도 그러합니다. 터어빈의 추진력이나 프로펠라가 내는 힘은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비록 눈에 뜨이지 않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에너지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는 키는 그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을 인도하기 위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은하

수를 마련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걸걸이나 함정이 나 덮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여기저기서 죄를 지으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영혼속 깊이 말씀해 주시는 구세주의 부드러운 권유의 말씀,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는 중요한 조그마한 음성(교성 85:6 참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다른 장단의 박자에 귀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자는, 이브에게서 태어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있었습니다. 강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나, 의지가 박약한 가인은 욕심과 질투심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러 그를 안전하게 승영으로 인도했을 개인적인 킨을 못쓰게 해버렸습니다.

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오늘날의 보다 전형적인 인물로 월지 추기경이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펜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월지 추기경은 권력의 최고봉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펜이 쓴 작품들은 어떻게 원리 원칙이 헛된 야망과 편견의주의와 요란한 편애에 의해 침식당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인 내리막길로 들어서면, 한때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의 고통스런 탄식 소리가 새어나오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표현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 경전에 버금잡니다.

월지 추기경이 그의 충실한 심복 크롬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각되거든, 얼마 안 있다가 망각될 것이니,

그래서 내가 둔하고도 차디찬 대리석 속에서 잠을 자게 되거든,
그때엔 아무도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거든 내가 이렇게 자비한데 일러 주더라고 말해 주게.

알겠나? 이 월지는 한때

영광의 길을 걸어

명예란 바다의 깊은 물도 얇은 물도 측량할 대로 측량할 한,

이 월지가 파선을 당해 가지고,

자기는 확실하고 안전한 출세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마는,

자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즉, 나의 몰락을 내가 파멸된 까닭을

주의해서 살펴보기만 하면 되네.....

야심을 버려야 해.

그 죄로 해서 천사도 추락한다 하거든,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의 초상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야심을 갖고 성공하길 바랄 수 있겠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최후로 돌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끔찍이 여기도록 하게.....

나의 전 재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목록을 만들어 주게.

모두 왕의 소유야. 지금 나의 소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은

옷과 하늘에 대한 고결한 마음뿐이야.

오, 크롬웰, 크롬웰!

내가 왕한테 봉사한 열성의 절반만큼이라도 신한테 봉사했더라면,

신께서는 나를 이 늪에 막에 벌거벗겨서

적한데 내던져 주시지는 않았을 거야.

(헨리 8세, 3막 2장, 셰익스피어 전집,

제2권, 정음사, 626—27페이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을 천국의 키가 권세를 추구하고 지위를 쫓다가 망가졌습니다. 그 앞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나 그

후에 올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월지 추기경은 쓰러졌습니다.

오래 전 옛날에, 하나님의 어느 종이 사악한 왕에게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벽에 기록된 것을 왕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보답으로 왕의 자주 옷과 금 사슬 목걸이를 제의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단 5:17)

벨사살 왕의 후계자인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을 존경하여 최고봉의 권좌에 승격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반 대중의 질서와 왕자들의 시기, 야심가들의 모략이 뒤따랐습니다.

아침꾼들의 책략에 빠진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게 한다는 금령에 서명했습니다.(단 6:7 참조) 금령이 서명되고 발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의 지침은 왕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드린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 갔습니다. 왕이 하는 수 없이 벌을 선포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형벌이 집행된 것입니다. 나는 다음 성구를 좋아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침수를 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울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

님을 의뢰함이었더라”(단 6:18—23)

결정적으로 위급한 시기에, 다니엘은 탄탄 대로를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심하여 거룩하신 분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모래 시계의 모래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무대에는 새로운 “배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이 우리의 앞길을 음울하게 비쳐 줍니다. 복잡한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혜로운 합당한 길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하늘을 향해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은 우리의 진실한 청원에 응답을 주시지 않은 채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생각지 않던 놀라운 임무를 받고서 이 교훈을 새롭게 익혔습니다. 내가 뉴질랜드로 장기간 부임하도록 명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의 미국 소년단 물문 관계 책임자인 포코맨 디브라운씨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파부가 된 자기 누나 벨바 존스가 암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누이가 차마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탄원에 가까운 그녀의 소원은 아들이 그대로 선교 지역에 남아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반응이 염려되었습니다. 선교사인 라이언 존스 장로는 일년 전에 같은 질병으로 아버지를 잃었던 것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뉴질랜드 신전에서 열린 선교사 모임이 끝난 뒤에, 나는 개인적으로 존스 장로와 만나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그의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존스 장로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맹세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어머니

계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겠고 다시 어머니를 뵈게 될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서 곧 아이 다호주 무어의 로스트리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연단에 앉았는데, 나의 관심이 본능적으로 예배당 동편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앉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살을 받고 있는 저 자매님이 누구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벨바 존스 자매님입니다. 저 자매님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중병을 앓고 있으므로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벨바 존스 자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에 내가 지명받은 것은 50개 스테이크 중 한 스테이크를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주님은, 관심을 가지신 어머니의 신

앙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존스 자매와 몬슨 장로)는 기쁘게 함께 만났습니다. 나는 그 아들 라이언의 결심과 반응을 한 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증거를 받았습니 다. 벨바 존스 자매는 살아 생전에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 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라이언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항로를 향해갈 때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항로를 인도하는 결코 실패가 없는 신앙의 키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르게 나아갈 때 안전하게 본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본향, 신원의 본향” 가족과 친구가 있는 본향,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총관리 역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지지를 문겠습니다.

치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답대한 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예수에 대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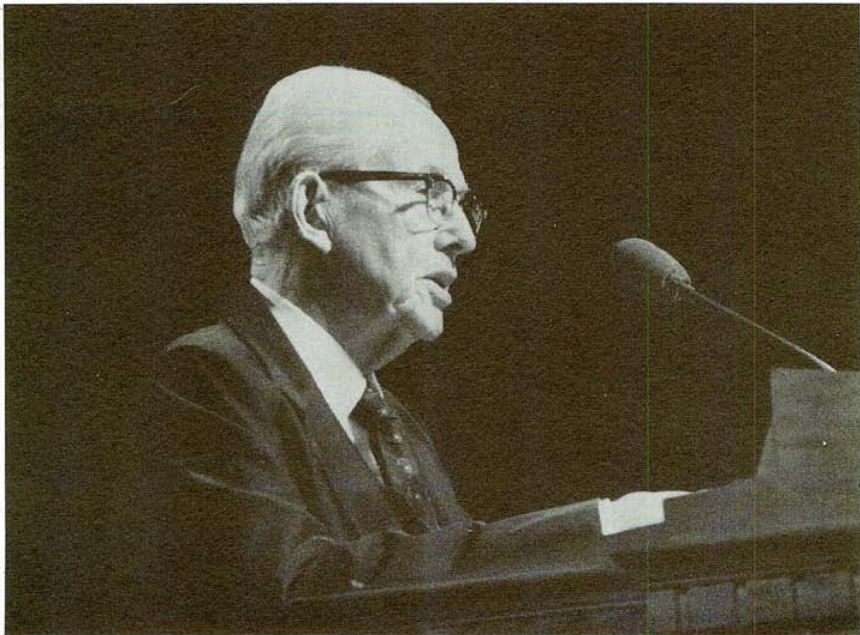
서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그리고 생명과 생명에 수반되는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절기에, 나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간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받게 되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간증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함께 지니고 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소유물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것을 성신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주님의 탄생의 거룩한 특성과 그가 참으로 육으로 난 독생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그가 약속된 메시야였으며, 그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 많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은 주께서 그의 교리로 설명하신 율법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 그러한 율법과 의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원하여 겐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육과 영으로 고통을 받으시며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어 우리가 회개한다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교성 19: 16, 18 참조)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실제로 부활된 육신을 가지고 무덤에서 당당히 일어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사셨으므로 모든 인류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주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이 온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세우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주께서 절정의 때에 세우신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 30)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 회복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얻는다는 것은 주께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정 1: 38)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계승한 분들의 예언적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의 축복을 최후로 받게 될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

들여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매장된 방법대로 물로 매장되어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이니, 이는 그가 주신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교성 76: 51) 이들은 주께서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교성 76: 53)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들입니다.

“의롭고 참된 자!” 예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자에게 얼마나 합당한 표현입니까! 그들은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데 용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받은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교성 84: 33 참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며, 말과 행실로 교회 지도자들을 받들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왕권과 통치권과 권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참고 견디어 낸 모든 자를 장식 하리라.”(교성 121: 29)

더 낮은 왕국인 달의 왕국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교성 76: 79)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일성도의 과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끝까지 견디어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진 추천서를 받을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의 부름은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찬사와 아침과 명예를 얻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감추고자 하며, 더러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

제와 앞으로 닥치게 될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전에 교회 지도자로 일하시던 분들의 세 가지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내부를 위협하는 위험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세상의 유명 인사의 아침, 거짓된 교육 이념, 성적인 문란 동인 것입니다.”(복음 교리, 한국 번역 출판부, 282페이지) 이러한 세 가지 위험은 스미스 대관장이 지적하셨을 때보다 오늘날 훨씬 더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두번째 말씀은 브리감 영 대관장 보좌인 히버 시 킴볼 장로가 한 예언입니다.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해 온 교회 회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과업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지식이나 증거를 받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는 타락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의롭게 생활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간증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

“어떠한 남자나 여자라도 빌려온 빛으로 는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없을 때가 이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의 빛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

“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견디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간증을 얻어 꼭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의 때가 와도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7년, 450페이지)

세번째로 인용할 말씀은, 내 어린 시절의 친구이며 제11대 교회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리 대관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게 될 마지막 경륜의 시대인 이 경륜의 시대에 이 교

회와 세상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더욱 커져 어디서나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내에까지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 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끼어들어 주께서 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일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유일하게 안전한 것은 교회가 조직된 날에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가 ‘반은 대로……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 (교성 21:4-5)라고 하시는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와 신앙이 필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와 신앙으로,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귀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주 하나님께서 압축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교성 21:6)” (대회 보고, 1970년 10월, 152페이지)

위에서 든 세 분 예언자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시련의 때에 예수와 그의 교회의 과업에 대한 간증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던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와 권고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하여, 승영을 잃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드러내어 지도자들도 역시 자기들과 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수를 한다는 것을 나

타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브리잡 영 대관장은 한번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비난할 유혹을 느낀 적이 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은 삼십 초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시절의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오늘날에도 악마가 더욱 활발하게 일하므로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나타난 계시의 영으로 요셉이 어떤 면에서든 그릇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정도가 커져 결국은 그가 진농하신 분의 대변자라는 데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충실함을 회개했으며, 비판적인 느낌이 들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곧 회개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어떠한 여건하에서나 주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데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요셉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비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의 과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설교집, 4: 297)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중사하고 있는 이 영화로운 과업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내가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을 사랑함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며, 이 대회를 끝마치는 모임에서 그분이 이곳에 참석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되시는 분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과 칠십인 및 관리 감독단 여러분들에 대

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 주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을 지지하며, 우리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이 합심하여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나는 교회 회원되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우리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주님은 우리 각자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참되고 충성된 일에 담대하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력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6장)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교회를 관리하시며 그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판리 여원 대관장단



영 영문 대니 부대관장 제1모과



스전서 더불어 김봉 대관장



매리슨 저 례니 부대관장 제2모과



고은 미 정롤더 모과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다 하프트 헤스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불어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캐키



앨런 케이 카우튼



보로스 양 영롱카



영 례 례리



데이비드 비 스미트



레이먼드 이 파우스트



에이.에이. 스미스



프랭클린 디리차트



제이 포미스



마이클 파이어스



에릭 라셀



데이비드 아세



제이 데이릭



로버트 커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관리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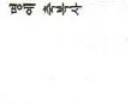
에이치 비크



빌리 웹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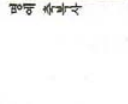
제2모과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명예 회원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데이비드 비틀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제2모과

제1모과

처음과 마지막 말씀



디어도어 에이 터틀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성스러운 신전 의식은 교회의 영적인 힘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힘의 중심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주님의 신전 의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교회의 모임과 건립의 목적—과 신전 사업에 관해 예언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820년 봄에 있었던 예언자의 놀라운 첫 번째 시현 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한 시현은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물문경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탁월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로나이가 또 하나의 매우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는 말라기의 예언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와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하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성 2:1-3; 요셉 스미스서 2:38-39)

모로나이는 또한 이사야, 사도행전, 요엘서와 “성경의 다른 많은 귀절”(요셉 스미스서 2:41)을 인용했습니다.

엘리아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은 모로나이가 인용한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2편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로나이의 메시지는 예언자에게 엘리야가 곧 오실 것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신전 사업에 관한 예언된 사건들은 두루마리와 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1년 반이 채 못되어 예언자는 미주우리주 잭슨군에 신전 부지를 헌납했습니다. (1831년 8월) 그러나 성도들은 방해물 받아 신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주님의 집을 건립하는 데서 수많은 중대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말씀 뒤에 있는 도표 참조)

큰 어려움 속에서 커틀랜드 신전이 최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전을 헌납할 때 천사들이 방문했고 불기둥이 신전 뒤에 머물렀습니다. 몇몇 사람은 시현을 보았으며 그 외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경험했습니다.

커틀랜드 신전 헌납 일주일 후인 1836년 4월 3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세주께서 나타나셔서 신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모세와 일라이어스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진실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아)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

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교성 110 : 14-16)

그 사건은 146년 전 바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의식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2,000년 이상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월절과 연관하여 그들이 수세기 동안 행해온 그 광경을 재연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을 차리고 빈 의자를 예비해 두고 문을 열어 놓고 잔을 들어 울리며 엘리야를 맞을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신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하나님의 인봉의 권능으로 영원히 연결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당한 의식 집행자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때면 하늘에서도 태어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기 위해 성신권의 인봉의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성 127 : 7 참조) 성스러운 의식과 이 성스러운 권세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주어집니다. (교성 128 : 11-12 참조)

바로 이와 같은 권세로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결혼 유대로 인봉되며, 자녀와 부모가 인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전에서 행사되는 거룩한 권세이며, 교회의 모든 의식을 유효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권능입니다.

그 권능과 그 권세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아무도 아버지 면전에 들어가지나 그분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존재의 목적은 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

히 황폐하게 되리라.”(교성 2 : 3)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언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신전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나부에 신전을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신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이 완공되기 앞서 주님께서 그의 성스러운 의식을 계시했습니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 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교성 124 : 41)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푸는 방법도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증인이 의식 수행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록하는 바는 모두 하늘에서도 기록되나니”(교성 127 : 7)

결국 십이사도들은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인봉의 권능이 그들에게 전해져 다시는 잃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기 수개월 전에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언자의 생애에 있었던 의미깊은 사건에 이와 같은 간략한 기사로부터 그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전을 짓고 성스럽고 영원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인봉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의 시대 이래로 모든 예언자들은 이와 같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킴블 대관장의 재임 동안에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참으로 신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 관해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참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 의식은 신성하고 영원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사업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이 사업은 성가신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신전 추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예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내에서 받게 되는 가장 훌륭한 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자는 그곳에서 특별한 영을 느낍니다. 화평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승영을 얻도록 도와 주는 것임을 압니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장막 저편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압니다. 나는 축복은 신전에서 가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업은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831—1843년까지의 신전 사업에 관련된 일부 사건의 목록

1831년 7월 20일,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에 신전 건립이 발표되었음. (교성 57 : 1—3)

1831년 8월 1일, 미주우리와 신전 부지의 현납이 지시됨. (교성 58 : 57)

1831년 8월 3일, 예언자가 미주우리주 객순군에 신전 부지를 현납함. (교회 정사 1 : 199)

1831년,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교리와 원리가 계시되었으나 1843년 7월 12일까지 기록되지 않았음. (교성 132편)

1832년 9월 22일, 새 예루살렘과 신전이 예언됨. (교성 84 : 1—5)

1832년 12월 27일, 성도들이 “주님의 집” (신전)을 세우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88 : 119)

1833년 6월 1일, 미주우리에 있는 성도들

에게 다시 그들이 권능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을 신전을 건립하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95편)

1833년 7월 23일, 커틀랜드 신전의 초석이 놓여졌음. (교회 정사 1 : 400)

1833년 8월 2일, 미주우리에서 신전에 관하여 보다 많은 계시가 주어졌음. 신전은 그 “방식”에 따라 지어져야 함. (교성 97 : 10—17)

1836년 1월 21일,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계시되었음. (교성 137편)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신전 헌납 기도가 기록되었음. (교성 109편)

1836년 4월 3일, 엘리야가 와서 인봉의 열쇠를 회복함. (교성 110 : 13—16)

1838년 4월 26일, 성도들은 파웨스트에 신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115 : 7—16)

1838년 7월 8일, 십일조는 신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음. (교성 119편)

1839년 4월 26일, 파웨스트 신전의 초석이 놓여졌음. (교회 정사 3 : 336—37)

1841년 1월 19일, 성도들이 나부 신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음. (교성 124 : 25—45)

1842년 9월 1일, 성도들은 의식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교성 127 : 5—9)

1842년 9월 6일, 성도들은 의식을 행하는데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여러 가지 교리와 원칙이 설명되었음. (교성 128편)

1843년 5월 16—17일, 인봉의 교리가 설명됨. (교성 131편)

1. 모로나이가 행한 이 선언은 계명의 책 1편에 기록되었음. 1831년 11월 1일, 계명의 책의 선언이 주어진 후, 이 계시는 2편에 기록되었음. 오늘날 이것은 교리와 성약 2편에 나와 있음. *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교성 2 : 1—3)

교회의 미래의 역사



지 호머 더럽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교회의 모든 회원과 모든 단위 조직 앞에는 더욱더 위대한 교회 역사를 이룩해야만 하는 당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전문의의 간증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 연단에 선 나를 보는 것은 기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성신권의 축복, 사랑하는 아내와 교회 지도자들과 가족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영의 도움에 힘입어 교회의 미래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과거의 역사의 한 사건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9년 12월에 패러원 유타 스테이크의 기간 대회에서 49명의 형제들과 그들 가족이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과 십이사도가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정착지에서 온 최종 부대와 합세했습니다. 그것이 후에, 교회 역사에서 서사시가 된, 홀 인 더 락 탐험대가 되었습니다. 250명의 성도들과 80대의 포장마차와 수백 마리의 가축과 말이 유타 남동쪽 거친 미개척 지대의 길을 헤쳐 나갔니

다. 횡단 지역은 지금도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산 후안이었었습니다. 절벽과 계곡을 간신히 지나자 무서운 콜로라도 강 골짜기가 그들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1934년 이전에는 그 골짜기에 다리가 놓이지 않았었습니다. 1959년까지만 해도 유타에서 아리조나까지 그들이 지나간 길 가까이로 상업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았었습니다.

최단 거리를 모색하던 몰몬 탐험대들은 그랜드 캐년에서 협곡을 발견했습니다. 강물은 붉은 색 절벽의 600미터 밑을 흘렀습니다. 이 “홀인 더 락”이 최단거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에 생긴 틈은 그 부대가 지나기에는 너무 좁았고, 어떤 곳은 한 사람이 지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산양도 지나기가 불가능한, 23미터나 되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사이로, 짐실은 마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앞서 4월에, 패러원과 시더 계곡을 떠난 뒤, 1879년 12월에 성도들은 폭약과 도구로 깎아 세운 듯한 원시적인 길을 깎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이끄는 플랫폼 라이만 장로는 길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강까지 가는 길의 처음 3분의 1은 5미터마다 2.5미터씩 굽어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행은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깎아지른 절벽과 통로를 파내는 것만이 아니라, 일행과 포장마차를 실어 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을 만들 장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880년 1월 25일에야 길이 뚫리고, 배 한 척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과 처음 40대의 포장 마차가 “홀” 부근에서 야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피프티 마일 스프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쿠멘 존스 장로는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20명의 형제들과 소년들이 각 마차의 뒤에 맨 기다란 줄을 붙잡

있습니다. 바퀴는 쇠줄로 감아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퀴가 걸잡을 수 없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1880년 1월 26일에, 플랫폼 라이만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장마차를 모두 홀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중 26대를 멧목에 실어 강을 건너게 했다. 배는 1쌍의 노에 의해 움직이는 데 아주 잘 나아간다.”

조셉 스탠포드 스미스와 그의 아내 애러벨라의 가족은 그날 내려온 마지막 포장마차에 있었습니다. 외손자인 레이몬드 스미스 존스는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대의 영화사에서 수백만 불의 제작비와 최신 기계 설비를 동원시킨다 해도, 이 서사시를 과연 필름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 스미스는 하루 종일 앞의 마차들을 내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마차장비들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낙담한 그는, 600미터의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애러벨라가 아기를 안고 이불 위에 앉아서 참을성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차와 마차 안에 있던 다른 두 자녀들은 거대한 바위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탠포드 스미스는 그의 짐들을 가장 자리로 옮겼습니다. 셋째 말은 마차의 뒤쪽에 매었습니다. 스탠포드와 애러벨라는 “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소.”

아내가 그 말에 “우리는 꼭 해내야 해요.”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뒤에서 마차를 붙들어 줄 남자들이 몇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는데 여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럼 내가 뒤에서 붙들지요.”

이불을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세살난 로이의 다리 사이에 누웠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어린 동

생을 꼭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누이인 아다를 그들 앞에 앉혔습니다. 마차 뒤에서 벨 스미스는 마차 뒤쪽에 잡아맨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스탠포드는 그 부대를 “홀”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뒤쪽의 말과 벨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그녀는 뒤에서 매달려, 온 힘과 용기를 다해 줄을 잡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발은 뾰족한 바위에 부딪쳐 발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심한 상처가 났습니다. 마차 뒤에 매달린 말도 그의 허리에 떨어졌습니다. 반쯤 죽은 그 동물은 그 길을 내내 끌려 오다시피 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처참한 상처를 입은 이 용감한 여인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장 뛰어 갔어요.”

밀에 이르자, 조셉과 애러벨라는 아이들이 멀리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셉 스탠포드 스미스는 그들을 데리러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아 들고, 다른 아이들은 그에게 매어 달리거나 서로 붙잡게 하여 바위 틈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이 강가에 다달았을 때, 그들은 다섯 사람이 쇠줄과 밧줄을 들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미스 일가가 실종된 것을 알고 구조하러 왔습니다. 스탠포드가 외쳤습니다. “염려 말게 친구들……여기 있는 내 아내가 남자 몫을 넉넉히 해내거든.”(데이비드 이 밀러, 홀인더럭, 위대한 미서부 개척사의 서사시,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대학 출판사, 1959년, 101-18페이지 참조)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그 밖의 세계 각 곳에서 최근에 개종한 개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있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7, 29)

우리는 오늘날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말일성도 가정에서 용기있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위험한 대열에 끼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일성도의 어떤 역사가 교회의 미래의 역사를 이룩해 내겠습니까?

평원과 태양은 건넜습니다. 홀인 더 락은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도하는 큰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신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831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부름이 땅 끝까지 울려 퍼지며……”(교성 65:2)

우리 뒤에는 위대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

다. 모든 회원과 모든 교회 단위 조직에 속한 우리 앞에는 더욱더 위대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안데스 산맥에서 그리고 모든 스테이크내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현이 인류의 여러 세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신앙개조 제10조)실 때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말라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말 3:2) 교회 미래의 역사의 페이지를 엮어 나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 안에 시온을 세움으로써 그의 오시는 날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킴블 대관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과 가정을 아름답게 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다 그리스도처럼 봉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오늘날 살아 계신 주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홀인 더 락 개척자들이 테일러 대관장의 부름에 따른 것처럼, 우리가 예언자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다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 19:16)로 다스리시게 될 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임하는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의 역사는 시련과 역경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냄으로써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맡은 바 일을 행하고, 주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사랑은 가족을 안위해 주는 힘이 됨



에프 엔지오 부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완악함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내부에 사랑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세대만큼 결혼과 가족 제도가 위기에 빠진 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의 가족 제도에서와 같이 인간을 가장 자연스러운 양식대로 함께 모여 살게 했던 상황은 거의 모두 변화되었으며 그것도 또한 과거 70여 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가족들은 조출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화롯가에 모여 앉아 노래하며 서로 경험담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과 여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과 같은 매체와 더불어 수많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향력은 가족의 역사적인 문화 환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이 특별히 수난을 당

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말일의 예언자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간의 성스러운 영원한 성약을 제시하셨으며,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말일에 회복된 복음 진리의 중심이 되었고, 이것은 또한 예언자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대회 보고, 1964년 4월, 5페이지) 오늘날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능력을 키우고 완성시키고, 실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거의 양식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나 거의 2천년 후에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구세주의 말씀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3-44)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훌륭하게 행동하고 존경받고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훌륭한 자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일의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부의 환경을 통해 위협받지 않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전시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예언자인 니파이에게 의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취되어야 하며 이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니일 11:22)입니다.

그러나 물론경의 다른 위대한 지도자인 베냐민 왕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는 한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으

로 난 인간은……하나님의 적이요.”(모사이사서 3:19)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으로 난 인간 곧 “하나님의 적”인 육욕적인 자아를 이겨 내야 합니다. 베냐민 왕에 의하면 우리의 성령의 속삭임을 듣기를 배우며,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구세주의 축좌를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거이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사이사서 3:19 참조)

얼마나 힘찬 메시지이며,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우리는 매일 새롭게 자신에게 약속해야 하며 이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계명을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문경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모로나이서 7:47-48)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 곧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차려면,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그의 발자취를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8-39)

영원한 성약과 맹세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결혼은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보는 이기적인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 사랑의 초석 위에 세워진 결혼에서는 이혼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혼과 별거는 나약함의 표시이며 때때로 악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결혼 성약의 신성함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몰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



지역 회원

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마태복
 음 19:3-8)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완악함[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바]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내부에 사랑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
 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랑의 은사를 구
 하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고,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기를 구하
 여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충만한 사랑과 영으로 생의 모
 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서 완전히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가족 또는 배우자와 적대시되는 상황에 봉
 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세로서 사랑이 요구되며 시험받게 될 때
 가 이르면 사랑을 가장 적게 받은 자는 그
 것을 가장 많이 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나의 개인 경험을 말
 씌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보통 때
 면 집에 있지도 않을 시간에 집에 있었는데



대외 방문자

그때 나는 다른 방에서 11세된 아들이 학교
 에서 돌아오더니 어린 여동생에게 추한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그러
 한 말을 사용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
 던 것입니다. 나는 화끈에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쫓아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내
 가 그에게 가려면 방을 건너가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때에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야 어서 오너라.”하고 말하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나서 의례적으로 나는 그에게
 거실로 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
 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들 각
 자가 매일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에 관
 해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시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합당치 못함을 밝히고 자책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나는 스
 스로 그에게 올바른 관점에서 잘못을 깨달
 게 하고 그를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
 는 훌륭한 영과 함께 했으며, 우리는 사
 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께안고 끝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닳았던 불행한 사태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의 도움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
 다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지금은
 준비와 경고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권
 세로써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강해지지 못하며 가족은 약해
 질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전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신전 축복이 없다면 충분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도 다른 분들이 신전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지난 11월에 조단 리버 신전을 헌납할 때 5일 동안 매일 3차례씩 모임을 가졌는데도 신전에 관하여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며 신전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말일성도는 한 집단의 백성으로서 신전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죽은 친척의 이름을 찾고 기록에서 이름을 찾아 내는 일을 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놀랄 만큼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만 육천 명 이상의 신전 보조원이 신전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 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선교사의 숫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이 사야가 2천 7백년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이사야 2:2-3)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은 뜻과 권세는 신전에 관하여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4개의 신전이 더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운영 중인 신전과 계획 중인 신전과 짓고 있는 신전을 포함하여 모두 21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이중 3개가 헌납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하여 일찍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주님의 집에서 봉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하여 좀더 많은 것을 말일성도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신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합니다.

1. 내 계보 사업은 다 끝났어.
2. 컴퓨터와 성명 초출 프로그램이 내 일을 다해 줄거야.
3. 신전 사업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거야.
4. 신전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거야.
5. 우리는 이름을 처리하려 신전에 간다.
6. 신전에 가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신전의 원리가 말일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신전 건립

둘째,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전에 감.

셋째, 죽은 친척을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또 신전에 감.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행함.

다섯째, 개인적인 영적 유익을 위하여 자주 신전에 감.

우리의 모든 신전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첫째 : 신전은 교회의 산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신전에 가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전은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모든 자가 교훈을 받는 집…… 저들이…… 이해함에 온전케 되며……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일에 있어서 온전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97 : 13—14)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쁨부음, 너희 셋음, ……너희 가장 거룩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시온의 모든 도시(다시 말하면 시온의 백성)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느니라.”(교성 124 : 39)

신전에서 행하는 엔다우먼트는 교회 회원에게 있어서 칩레만큼 필요하고 거룩한 축복으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인봉되며 자녀가 그 부모에게 인봉됩니다. 이런 축복이 없다면 충분한 복음은 없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런 축복이 없으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성 2 : 3)고 말했습니다.

신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런 특권을 결코 가져 본 적이 없는 가족이 수없이 많습니 다. 심지어는 여러 세대 동안 신전이 서 있었던 곳에서도 절반 정도의 가족이 인봉되지 못했습니다. 신전 사업은 교회의 산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 신전 사업은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경전과 교리로 살펴보면 특정

한 죽은 무리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라기는 아버지를 자녀에게 자녀를 아버지에게 “돌이키는”(말라기 4 : 6)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의 죽은 친척과 우리의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교성 124 : 32—36 ; 127 : 5—6 ; 128 : 8, 14—15 참조)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중에 스스로의 친척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계보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부모께서는 55년 전에 그들의 죽은 친척을 위한 신전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그 외에 1만 6천명이나 더 찾아 뵈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이 건립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스테이크에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잘 조직된 초출 프로그램 일지라도 최근의 이름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친척들을 다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좀더 먼 조상에까지 확인이 연결된다면 측량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신전 의식을 행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 있으며 신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준비된 백성이 신전이 완성될 때 신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여러 신전을 치어 놓고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 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설교를 들 수 있습니다. 강한 설교의 결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런 죄의식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준비된 백성을 갖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신

권 지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로써 산티아고에 신전을 짓는다고 공표할 때 내가 봉사하고 있던 칠레에는 10만 명의 회원 가운데 불과 3천 명만이 신전에 성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가려면 신권이 있어야 하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만 명의 남자가 신전에 성임되어 충실한 반려자와 함께 신전에 갈 수 있게 준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칠레의 성도들은 신전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10만 명의 죽은 친척의 이름을 준비하여 신전에 가겠다는 임무를 받아들여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전이 서 있었던 곳에서는 새롭고도 계속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회장, 감독 및 특히 대제사와 기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일입니다. 나는 한 장로 정원회 회장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신전에 가게 하는 것이 그의 지도 목표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첫 보고에서 여섯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해임되기 전에 3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전에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임된 후에도 나머지 3사람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신전 의식을 위하여 일하는 특권을 받고 거기에서 집행되는 축복의 풍요함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계속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신전 밖에서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비 교육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신전에 들어가는 준비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전 안에서는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기꺼이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어지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회개이며 모든 부도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칠레로써 우리는 성약을 맺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신이 동반하실 수 있게 하는 권리로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신전 사업을 행할 때 성신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경전입니다. 탐구하는 자는 신전에 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성구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기도, 겸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헌신이고 성약이며 의식입니다. 이것은 또한 축복입니다.

이제 교사와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한번만 경험해 보고 신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백성들을 신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배우기 위하여 신전에 갑니다. 만일 이런 복음 원리가 합당하게 우리 생활에 확립된다면 우리는 신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그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아직 신전에 가면 안됩니다.

이 백성들이 신전에서 제공하는 축복을 받고 거룩한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첫째 : 신전은 교회의 산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 신전 사업은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사야 40 : 11)

나는 여러분이 일어서서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바라보며 함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59장)을 부를 때 가졌던 느낌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찬송을 함께 부르는 동안 사랑이 꾸밈없이 표현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 경험을 상기하여 기억하며 그것을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의 예언자를 바라볼 때 느낀 것을 실제로 말로써는 형언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에 관한 기록이 여러분의 역사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인종이나 신분이야 어떠하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갈망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 갈망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마음속의 이와 같은 갈망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 :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세상의 구세주와 구속주로서 택함을 받아 성임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야벳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생명을 갖게 되리라……”(이더서 3 : 14, 1982년도 영문판 몰몬경 참조)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나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한복음 6 : 38, 39, 40)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성지주일, 즉 우리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태와 요한이 묘사한 바와 같이 “그 겹옷을 길에 띄우며”(마 21 : 8) “종려 나뭇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요 12 : 13) 나갔습니다.

이때는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때였습니다. 한동안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찾고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방을 찾을 곳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에서 예수님은 십이사도와 모임을 가지셨으며, 그들은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그들이 다 먹은 후에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한복음 13: 13-14)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31, 33-35) 주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요한복음 14: 1-4)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 5)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한복음 14: 6-7)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요한복음 16: 28)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요한복음 16: 23)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찬을 베푸셨는데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 19, 20)

성찬을 베푸신 후에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 7)

구세주께서는 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 1-3)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마침 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 39)

구세주께서는 동산에서 겪은 그의 고난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 18—19)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 16)

호위병들과 유다가 주님께 다가오자 주님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 4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마 26: 50)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요 18: 4) 한 호위병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내 노라”(요한복음 18: 5)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관원들에게, 그다음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마 26: 57 참조)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태복음 26: 63)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가복음 14: 62)

그후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갔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요 18: 33)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요한복음 18: 36)

빌라도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요한복음 18: 36—39)

우리는 “아니오, 아니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요 18: 40 참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지 않고 그를 체찍칠 하였으며, 군병들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마 15: 15—17 참조)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눅 23: 4)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눅 23: 21 참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까지 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늘어선 무리와 슬피 우는 여자들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군중들과 성문을 지나서 “해골의 곳”(요 19: 17 참조) 즉 “골고다”라 하는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7)고 말씀하셨
읍니다.

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
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
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
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눅 24:1-2 참
조)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
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
복음 24:5-6) 이 말씀이야말로 창세 이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선언한 말이었습니
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
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
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그러자
그녀는 “마리아야”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고 “랍오니여
(선생님이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
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
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
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15-17 참조)

그후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락방은 그분이 돌아
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하루 저녁을 보
내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
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
36, 38-39)

그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세주와 제자들
이 함께 생선을 먹은 후에 구세주께서는 베
드로에게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
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구세주께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
라”(요한복음 21:15-17 참조)고 말씀하셨
읍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공공연히 주님을 부
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로부터 예수
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충성에 관한 확답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오를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
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을 이루었나이다”(요 17:4)라고 말씀하셨
읍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지상
에 머물어 제심으로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그를 그의 제자들이 더욱 완전히 이해하
고 하나님 왕국의 일에 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대통령 제1보좌관 인 인문 테네 부대원장

그후로는 그의 제자들은 무덤에서 나온 그분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되신 분으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할 장소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감람산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베다니에 있는 언덕 근처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더불어 안식과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는 그분이 혼자서 기도드리며 고뇌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실 장소로 감람산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슬픔에 잠긴 분이로서가 아니라 승리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감람산 정상에 서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바로 이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 : 19—20)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케 하시고……

“……모든 자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교성 76 : 41—42) 십자가에 못 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사 40 : 11)라고 예언된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나는 성신의 권세로써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십니다. 그의 왕국은 다시 이 지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왕국이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겸손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기 발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 제1보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이 모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말할 수 없이 그분이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이사도 평의회와 대관장단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회 총관리 직원들이 신전에 모두 모였을 때, 킴블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감사함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자매들이 인도한 몇몇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매님들에게는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대단히 훌륭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대회 기간에 여기에 앉아서, 예언과 축복과 그리고 교회가 이룩한 발전에 관한 총관리 직원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



대회의 전반적인 광경

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이 훌륭한 분들이 모두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될 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마음속으로 그들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씀에 동의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말씀을 재음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심과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보좌로서 네 분의 대관장님과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은 큰 특권이며 그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들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나는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각자 자신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기도드립니다. 나는 오늘 점심 때 나의 손자에게 음식 축복을 부탁하였는데, 그가 "우리가 이 대회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사항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결심을 지금 곧 굳게 하십시오. 나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대회는 매우 큰 대회입니다. 이 대회 기간에 대관장님께서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

주님이 키를 잡고 계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입니다. 나는 이 날을 기다려 왔으며 이 날이 올 것을 소망해 왔으며 믿고 있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몹시 사랑하며 그들과 모든 사람이 보여 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이 훌륭한 경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간증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성하며 주님이 그 키를 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참되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예의 방문자

일의 가치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우리 스스로의 정신과 근육과 영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충족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세대에 제임즈 에이 미치너처럼 훌륭한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어 낸 자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의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기른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는 홀몸이 된 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임즈는 만 11세 때부터 매년 여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겨울에는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14세가 되었을 때 연관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여름에는 하루 14시간, 겨울에는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일을 싫어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태도를 나에게 심어 주었으며 이것은 내가 지금도 간직하는 철학입니다.”(“진정한 노동 윤리 : 1. 달성하는 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7년 1월, 149

페이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일은 영적, 물질적 구원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육체적인 수고와 이마의 땀에 의하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깊게 살피시다. “땅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모세서 4:23) 즉 그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바로 그 일이 그의 시련인 동시에 축복이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련인 동시에 축복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마치지 않고 남겨 두신 일을 하고 에너지를 이용하고 광석을 깨며 지상의 보화를 우리에게 좋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서는 혹심한 일의 시험으로부터 굳건한 성품의 본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일은 물몬의 상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강력한 동기를 가진 근면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 윤리에 대한 이런 강렬한 소신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거한 모든 땅에 물몬 산업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미주우리, 나부, 솔트레이크 베이슨 및 성도들이 정착했던 모든 산 계곡은 물몬의 수고에 대한 유명한 기념지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받은 돈도 없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길을 재촉한 것은 우리를 자기 집에서 쫓아 내고 남겨 두고 떠나게 한 우리 재산을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강탈한 사람들의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과 비참한 상태에 대비하여 고군 분투했으며 매일 힘들어 일하고 끈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 남았고 백성들은 변형되었습니다. 성품은 본래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궁핍한 때에는 이웃이 서로 도왔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맹렬한 용광로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매번 불순물은 태워 없애고 제련되며 다시 영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나왔습니다.”(교회 복지 계획, 소책자, 1939년, 8-9페이지)

이렇게 현실할 때 우리의 예언자들이 모범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일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은 축복이며 특권이었습니다... 계곡에서의 힘든 노동과 추수하는 밭에서 땀흘리는 것은 모두 신성한 경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마티아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그의 생애와 노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 1909년, 644-45페이지)

오늘날 나는 거룩한 노동의 율법에 순종함에 있어 킴볼 대관장님보다 더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모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행하라”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추구하는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한번은 주치의인 윌킨슨 박사가 킴볼 대관장님의 건강과 또한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느는 것을 염려하자 킴볼 대관장님은 친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윌킨슨 형제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속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져서 의사를 찾아갔던 어떤 농부의 경우를 연상시킵니다. 진찰을 한 뒤 의사는 그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오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 좀더 힘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자신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높은 표준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최선의 노력의 열매를 주님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에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근육과 영의 능력을 행사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지 못한다면 불충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기회와 유익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는 가운데 일생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 인생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일은 근심을 없애 주는 해독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부의 은사(재능)의 부족함을 보충해 줍니다. 일은 평범한 사람이 천재에 가까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고난 재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고로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코사렌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일하십시오.....행복하면 일하십시오. 게으름은 의식과 두려움이 들어설 여지를 만듭니다. 실망이 엄습하면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슬픔에 휩싸이거든..... 일하십시오..... 신앙이 흔들리고 논리가 부족하면 자꾸 일하십시오. 꿈이 깨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일하십시오. 마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일하십시오. 충실히 일하십시오. 일은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인생 사업에 관한 포브스 사상 선집, 뉴욕: 포브스사, 1968년, 427페이지)

이 밖에 노동 윤리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우리 종교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높은 수준으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작은 부분 하나 하나가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제품이 정당한 기준에 부합되든 안되든 완전한 노력의 시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가림 식으로 처리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좀 못한 일도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인위적인 사회 기준에만 적합하게 하기보다는 좀더 높은 이상을 동기로 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물론이 아니라입니다. 실업자가 많은 시기에 우리 종교의 노동 원리를 실천하는 말일성도가 우선적으로 요청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우리 스스로가 사업체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자기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참으로 진실된 의미에서 누가 급료를 주든지 우리는 자자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에게 정직하십시오. “일꾼이 샅을” (교성 84 : 79) 받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용주는 그저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최선의 것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자 자신의 능력에 근거를 둔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옛날 개척자들의 좌우명을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완전한 하루 일당에 대한 완전한 하루 작업량.”

3.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투자하십시오. 꾸준히 공부하여 계속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조금씩 허용될 수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만일 매일 13분을 낭비한다면 1년에 2주일간 보수를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직업을 자신의 진로를 따라 놓여 있는 디딤돌로 생각하십시오. 생

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부분의 직업의 규모는 비창의적인 근로자의 마음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업가가 한 다음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만일 처음에 성공하거든 좀더 어려운 것을 시도하라!”

4. 자녀에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젊었을 때는 가져 보지 못한 것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만 부모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그대로 앉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를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하려면 그들이 일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일이 고된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모범으로 배워야 합니다.

일하는 법을 배운 젊은 사람은 남녀 모두 행운아입니다. 자녀가 책임을 배우고 합당한 실천 기준에 적합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 부모는 현명합니다.

어머니 날 시상식에 훌륭한 말일성도 어머니인 베벌리 그레함 자매는 그녀의 어머니가 훈련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엄한 가르침과 명확한 규칙과 확실하게 실행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규칙을 우리 성품을 쌓는 도구로 썼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숙녀로서의 위치를 사랑했으며 가사를 즐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우리 자매와 나에게 물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바느질과 요리와 집 청소와 옷 다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흰 셔츠가 떠질 때까지 다시 다리미질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의복을 빨고 다리미질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또는 비이트를 짜고 몇 시간씩 콩깍질을 벗기고, 통조림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해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아침 일찍

말기를 떠는 것은 축복입니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약과 일과 책임의 가치에 있어서 훌륭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가치를 가르칠 때 책임을 함께 지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엄격하게 남자나 여자의 일로 규정하려 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아이들은 간단한 요리, 설거지, 집 청소, 잔디 깎기, 어린이 달래기 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좀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여가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훌륭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가 시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시간은 예배, 가족을 위한 시간, 봉사, 공부, 건전한 리크리에이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가는 게으름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게으름을 정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자기 재능을 숨겨 두지 말라.”(교성 60:13) 게으름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권태와 갈등과 불행은 낳습니다. 게으름은 가치 없다는 느낌과 불행과 악의 온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발전과 구원의 적입니다.

일은 주님의 복지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일입니다. 사랑으로 성스럽게 된 회원들의 일은 우리의 합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궁핍을 해결하는 물자를 생산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동안 축복받고 성결케 됩니다. 가난한 회원은 사랑과 감사의 정신 가운데 도움을 받

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회 회원들의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궁핍한 회원들은 감독의 지명에 따라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하여 능력이 닿는 때까지 일함으로써 품위를 간직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개인은 모두 중요 합니다. 출신 수법, 자립 및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하여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은 품위를 지키게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복지 계획의 의도는 실업 수당을 철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복지 체제에서든지 실업 수당은 평균과 같은 것으로서 인체의 암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돈, 음식, 의복 기타 어떤 것이라도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일해서 필요한 것을 벌 수 있는 남자나 여자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유익도 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못지 않게 나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일하게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스편,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4년, 274-75페이지)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소비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에 속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생계가 공짜로 주어질 때 의식 구조에 침투하는 것은 성품과 독창성을 파괴하는 원리입니다.”(복지 모임에서 행하신 말씀, 1960년 4월호, 3페이지)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은 행복과 번영과 구원을 얻는 수단입니다. 인간은 일과 의무와 기쁨이 연합될 때 최상의 상태에 거합니다. 타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인생은 기쁨이라는 꿈을 꾸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인생은 의무라는 것을 알았다.

행하고 나서

의무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얼 나이팅게일 인용, “우리의 변하는 세계”, 5193)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지상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방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일은 우리의 신성한 유산입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갖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 교리와 우리의 장래의 지위의 기초가 되는 요점이며 우리의 하늘은 끊임없는 노동을 통한 영원한 진보의 관점에서 마음으로

그리게 됩니다.”(대회 보고, 1939년 10월호, 65, 68페이지)

이 세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아가 머무르지 말며 게으르지도 말고 오직 너희 힘을 다하여 힘써 일하라……”

“이와 같이 너희가 충실하면 너희는 많은 곡식 다발을 짊어지게 될 것이요, 또 존귀와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교성 75 : 3, 5)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 좌로부터 제 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제 1보좌인 엔 일론 태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고든, 비 힐클리 보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자녀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
에 나가야 하는 여성은 인생의 가장 근본되
는 목표와 주님을 알고 그의 사랑과 인도하
심을 느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르무엘 왕은 어머니가 가르
쳐 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어머니가 그에게 준 가르침이 큰 감동
을 주었으므로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
습니다.

그의 모친께서는 아내를 맞아들이되 그
아내가 집안을 잘 관리하여 이후에 자녀들
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사례하게 할 수 있으
려면 아내로서, 또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떤
자질과 성품을 지녀야 하는가에 관하여 특
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언 31 : 28
참조)

이렇게 수많은 흥미있는 길이 여성에게
열려 있고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
의 구체적인 훈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훌륭하게 제공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영원
한 축복을 궁극적으로 자녀가 이곳에서 육
신을 입은 가운데 받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
에게 주어진 것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필
요한 것을 기밀히 살피야 합니다.

모든 어머니는 각자 자기 자녀를 가장 잘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
다.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
으므로 주의깊게 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
요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그런 선
택은 중요한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입니
다. 그녀에게는 경전, 교회 지도자의 가르
침, 사색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등과 같이 올바른 인도의 근
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경고되고 있는 “풍조”(엡 4 : 14)는 현재 여
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결정에서보다
더 분명히 나타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
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너희가 이것을 주의”(벧
후 1 : 19)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사리 “요
동”(엡 4 : 14)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게 되고 확신
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든지 꼭 맞는 단 한 가지 길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은 이런 해결책에 도달해야 하며
또 다른 여성은 다른 해결 책에 도달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 왔지만 한 가족에게 있어서 이
상적인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
께 있어 돌보고 성장을 도우며 가족 활동을
조정하고 협의하며 불의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
기 위하여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
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는 항상 이상적이지마는 많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필요에 의하여 자녀를 남에게 맡
기고 일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반
드시 그런 어머니에게도 상호부조회 부름을

주고 공파와 프로그램이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남편,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가 그 어머니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할 때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강화시켜 주기 바라는데 이는 그들의 역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분명한 육체적인 욕구 이외에도 비록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더라도 등한히 할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어린이의 생활에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어린 자녀의 어머니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녀를 잘 돌봐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나 병이 날 때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위급한 시기에는 이해심 많은 고용주, 친척, 이웃, 학교 선생님 및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미리 계획하고 쇼핑하고 일정을 짜고 집안 일을 가족 모든 사람에게 위임하여 규모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즉석 요리점이나 직장 근무 어머니를 위한 식품 배달처가 손쉬운 대체 방법으로 마음을 끌더라도 필수 영양분과 화목한 가족 만찬의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는, 자녀가 질문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시기와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수행할 때 닥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자녀의 욕구 및 젊은이들이 미숙하여 본인도 모르고 있는 욕구를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욕구가 가장 심각하게 보일 때 항상 어머니가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와 함께 하여 집안에서 맡은 의무를 성취할 때 함께 일하고 적절한 때에

함께 쇼핑도 하고 계획하고 놀아 주며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한 방에 있어 주기 만이라도 하는 것을 압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와 소위 "홀통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특별한 소풍과 노는 시간을 계획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모두 리크리에이션에 사용함으로써 인생에 관하여 왜곡된 관념을 심어 주게 되며 이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과 놀이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을 다하고 지명받은 의무를 다했을 때 특별한 행사가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들이 이 진리를 잘 배우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손자들이 자기 집에 오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감을 신중히 선택하여 내 주고 그 다음에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놀이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일과 놀이의 관계 및 일을 끝낸 다음에 놀 때의 편안한 느낌을 배웠습니다.

학습과 음악이나 기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습하는 것도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머니는 필요한 경우엔 자녀가 훌륭한 것을 달성하게 해 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성공의 대가를 배우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과제의 완성과 정확성을 살림으로써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지속적인 노력의 보상을 거두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 남아서 하루 종일 모범을 보일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책임과 그후에

행한 일에 대해 칭찬해 줌으로써 생기는 행복에 따르는 개인적인 훈련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가이며 과학자이며 교수인 테오 로스텐은 우리가 숙고할 목적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 생활이 늘 쉽고 갈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고뇌와 의문과 고통이 없으리라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의미를 가지며 생산적이 되며 우리가 살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고상한 의미에서 볼 때 행복은 자아 충족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무엇이든지 완전히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우리가 마음과 내부의 자원을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데 있습니다.”(디스 워크 매거진, 1963년 1월 20일, 3페이지)

자녀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여성은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목표와 주님을 알고 그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느끼도록 성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어떤 여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혼한 직후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잘 부양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소풍도 가고 나무 위에 오두막집도 지어 주고 함께 야구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빵을 굽고 바느질하고 뛰고 놀고 씨름까지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옷을 다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

을 다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세 아이를 목욕탕에 넣어 놓고 집안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막내 아이를 씻기고 비눗물을 행구고 욕조에서 들어내 큰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데려가서 파자마를 입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형과 누나에게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자라는 작별 키스를 하려고 몸을 숙이자 장남이 ‘노래 한 곡 불러 주세요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 물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즉시 ‘루돌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은 ‘아니야, ‘자니 애प्씨드’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깨어 있어라’를 불러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노래 한 곡씩만을 부르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 계속해서 노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 나는 한 시간씩 시간을 낼 수 없단다. 자, 잘 자라.’ 나는 불을 켜었습니다.

“‘꼭 한 곡만 불러 주세요. 엄마, 엄마가 택하시면 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엄하게 ‘잘 자라고 말했지. 자, 잘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욕실을 정리하려 가면서 언제나 그들이 성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해주었는지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욕실에 들어서서는 순간 나는 즉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거기 욕실 바닥에는 세 쌍의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서서 그 발자국에서 내가 방금 침대에 누이고 온 그 소중한 아이들의 영을 본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방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육신의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너무 빠른 나머지 그들의

영혼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양쪽에 모두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가장 최신 유행의 옷을 입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모두 주고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돌보지 못한다면 어머니로서 엄숙한 책임에 대하여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침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두 소년의 큰 침대로 기어 올라가서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으며 마침내 나 혼자만이 깨어서 노래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은 자녀의 수많은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호부조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건강과 안전과 음식과 의복과 사회적, 정서적 욕구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성장 및 영원히 계속될 훌륭한 가족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독신 부모로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여성을 특별히 마음에 두고 계시며 그런 역할은 상당히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의 원리와 목적에 입각하여 또한 바라는 것의 참된 실상인 신앙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해야 할 것—함께 일하고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잘 조직하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행할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정말로 필요한 것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가족이 성공하도록 부모나 부모 중 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사람만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속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계획과 모범과 가르침을 주셨

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그들과 정구적으로 대화하고 잘 들어주고 인도해 주고 격려해 주며 항상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조종하지 않고 보호하며,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해주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하여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 있으며 안전한 진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수립함으로써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보고 행함으로써 인생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어머니가 기쁜 모범을 보일 때 자녀의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됩니다. 어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자녀가 분별력을 체득하게 해주며 합당한 진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순화하는 특성을 가정에 들여놓게 됩니다. 어머니는 주님으로부터 기독교다운 사랑을 배우으로써 자기 가정에 축복이 되는 동시에 자녀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회색적인 보호를 베풀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힘과 영혼의 능력을 다한 위에” 우리 생활에 평화가 깃들 수 있으며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몬의 말씀 1:18; 교성 68:28)

어머니들은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영생에 대비하게 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그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적인 상태는 여성과 그 가족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여성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와 자녀의 기독교인다운 성장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가까이 생활할 때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부인이 가족의 재정을 도울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 다.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일해야 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은 영원한 임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2차적인 임무로 주의를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주의깊게 기도하십시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1페이지)

템플 베일리의 “어머니를 위한 한 가지 작은 우화”에서 자신의 인생 행로를 정하고 있는 한 젊은 어머니는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끝은 시작보다 더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인생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구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방법을 알고 그의 영광의 빛에 의지하여 삶으로써 그녀의 자녀들은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인하여 끝은 시작보다 더 나왔습니다. (타이프 원고, 말일성도 교회 역사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주)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자녀 개개인이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신의 생활을 통한 간증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훌륭한 어머니 여러분입니다. 자녀가 “일어나 사해”(잠언 31:28)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 제1보좌관인 엔 윈튼 대너 부대관장이 요는 대관장 제2보좌관인 부속을 받아 대외 도열을 준비하고 있다. 그 뒤로 대관장 제2보좌관인 대너 윈튼 부대관장이 있다.

1980년대 고용에서의 도전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교회 고용 기구는 개인이 수입이 좋은 직장을 찾도록 도와 주고 상담에 응하며 부모가 가족에게 조언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신 문과 잡지의 특집 기사가 어둡고 우울한 경제 소식으로 가득 찬 요즈음 우리가 교회로서 수년간 들어 온 권고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권고의 말씀에는 일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빛을 지지 않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지난해 동안 실제 상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고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재정적인 구원을 의미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립하여 독립하라 고 명하셨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는 준비요, 기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한 예이니 이로써 너희가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교성 78 : 13-14)
우리는 어떻게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해야 하겠습니까? 1946년에 엘버트 이 보웬 장로님이 이 구절에 관하여 몇 가지 견해를 발표 하셨으며 나도 그분의 말씀에 뜻을 함께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교회가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회원이 독립하는 길이며, 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꿈 짝달짝하지 못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교회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강제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심에 틀림이 없읍니다. 어느 누구라도 무상으로 전달되는 구호물자로 온전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각과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춘 회원들이 도움을 받은 만큼 능력껏 봉사하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는 체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도움을 주는 일의 참된 기능과 직분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용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명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도 무엇인가를 거저 얻을 수는 없읍니다. 수혜자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며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될 수 없이 소중한 권리나 자유를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엘버트 이 보웬, 교회 복지 계획 [복음 원리 편람, 1946],

77페이지)

교회는 교회 회원 개개인의 전체적인 독립만큼만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회원이 교회 복지 프로그램 자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릇된 무사 태평한 마음을 가져 자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교회가 육체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교회 회원을 돌보기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체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한 간단하고도 일시적인 보호책이지 영구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교회가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독립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독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원 개개인 모두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도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배웁니다. 교회에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자유의지 못지 않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상태에서는 쉽게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미합중국에서는 110만 채의 새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946년 이래로 최저 숫자입니다. 금년도 초반의 몇 개월간은 더욱 어려운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부 상환금에 대한 이자율은 1977년의 9퍼센트로부터 최근에 17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지난 20년 중에서 최저였습니다. 미합중국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철 회사 등과 같이 자동차 제조업에 물자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이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실직 상태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실업율은 거의 9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상태가 줄어들기 전에 일단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9퍼센트의 실업율은 950만이나 되는 미국 시민이 실직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업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실업율은 8.6퍼센트이고 유럽은 9퍼센트입니다. 남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늘 귀 기울여 온 교회 회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닥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권고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황폐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리라고 말해 주며 동시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히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성 22:7)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하여 우리가 이 생에서 직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갖게 해주는 회복된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가 자기 반성을 하고 영성이 더 커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심한 영향을 받을 주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도록 서로 도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시련에 맞서야 하며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자세로 전진해야 하며 사람을 낙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오늘날의 시련에 대처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줄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 고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올바르게 인식되거나 고맙게 여겨지지도 않았읍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고용 체계 지도서를 한 권씩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체계의 실행 방안이 세밀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평의회에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고용 체계의 목적은 (1) 회원 및 기타 지역 사회로부터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나눔으로써 각 개인이 수입이 좋은 직장을 찾도록 해주며 (2) 좀더 나은 직장이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상담에 응해 주고 더 나은 기회를 주며, (3) 신권 평의회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부모가 가족의 직장 및 사회 진출 계획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의 조정을 위하여 와드 및 스테이크 고용 전문가가 부름을 받습니다. 고용 전문가로 선택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독 여러분은 직접 간접으로 실직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모하는 시간과 정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이 고용 전문가가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을 갖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가까운 장래에 훌륭한 고용 전문가를 부르도록 권고합니다.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의 요청과 집행 관리자 및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승인으로 고용 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의 목적은 (1) 취업 기회를 조정 관리하며 (2) 와드 단위에서 배치되지 않은 신청자를 배치하며 (3) 신권 지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스태이크 및 와드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4) 사업계에서 구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고용 프로그램의 성공은 회원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취직의 80퍼센트는 취직 알선 기관, 신문 및 기타 광고와는 다른 개별적인 구두 추천에 의하여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회원 가운데 10퍼센트가 실직 상태라면 우리 회원의 90퍼센트가 직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 자리가 있을 때 일차적으로 고용된 교회 회원을 통하여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는 직장을 가진 여러분이 직장이 없는 여러분의 와드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눈여겨 보도록 권고합니다. 직장을 얻기 어려운 때에는 신권 소유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위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지 맙시다. 취업 센터 책임자들은 사업계와 접촉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들은 피고용인으로서 평판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배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회원은 이상적인 피고용인입니다. 과도한 실업 상태에서 고용주들은 고용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 회원들이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원회 회원들이 실직한 회원과 협력하고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기술로 그들을 돕도록 권고합니다. 현재 실직한 사람 가운데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력서를 쓰고 면접 시험을 치르는 일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정원회의 여러 실질적인 자료는 취직 시험을 치를 때 적절한 기술로 회원을 돕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회 및 고용 전문가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저 수준의 고용 분야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우리 회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니다. 또한 자기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고용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회원과 도움을 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일시적인 고용 기회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워드 고용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동안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는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상태에 비추어 불 때 또한 계속해서 독립하게 하는 우리의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우리는 고용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실직해 있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심하게 악화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막고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재능과 시간과 자원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고용 기구는 직장에 다니는 90퍼센트의 교회 회원의 실업 상태에 있는 10퍼센트의 회원을 돕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현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구세주의 계명에 헌신적으로 순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케리 장로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여성 태피 전람회
를 찾은 자매들과 함께 있다.

복음—우리 생활의 기초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제 시에는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회 진출의 준비로서 또한 발전하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모두 받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 : 118 ; 교성 90 : 15 ; 109 : 7 참조)

학문에는 신앙이 따라야 하며 물문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나이 9 : 29)합니다.

직업과 사회 진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할 때 이를 중요하게 다루기 위하여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생계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보거나 실책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수입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결코 경멸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직업은 어

느 것이든지 훌륭한 품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개신하는 데 이바지하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천하다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정직한 일은 어떤 것이든지 수치스럽지 않으며, 주님이 학문과 연관시키신 신앙의 원리는 인간의 기술보다 더 고귀합니다.

평생 동안 적은 재산과 수입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 가운데 고상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성구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 : 11 ; 교성 50 : 26)

학교에 다니는 것과 교육은 일반적으로 병행하는 것이지만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지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라를 “구원한”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관한 구약 전서의 기록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으므로 수리아 왕은 그가 죽을까봐 염려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일하던 이스라엘 소녀가 병고칠 권세를 지닌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수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진갈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은 계교인 줄로 생각하고 탄식했습니다. “저 왕이…… 나로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내가 어찌 하나님이란대 능히 사람을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고치려 한 이유를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가까이 오자 엘리사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

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깨끗하리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수리아에도 요단강만큼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엘리
 사가 자기에게 손뼉을 쳐 준다든지 하는 등
 의 좁 감동적인 의식을 베풀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하여
 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 한 사람이(언제나 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하게 그 장관을 나
 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
 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던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나아만은 그의 종의 말을 듣고 결손해져
 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
 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깨끗하게
 되었”(왕하 5 : 1-14)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
 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좁
 “거창한 것”을 금지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에 관하여 평범
 한 훈계를 받으면 실망하고 나아만처럼 떠
 나가 버립니다.

현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킴벌 대관장님
 은 8년 동안 교회 대관장으로 제십니다. 사
 실상 그는 대회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옥을 깨끗하게 하고 페인트를 칠하며 수
 리하라는 말씀을 최소 한도로 한 번씩은 하
 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
 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질문 : 왜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하실까요? 좀더 거창한 예언을
 하실 수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한 가지 형태가 아
 닌니까? 그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적
 인 소유물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는 그런
 것을 대체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우 어려워질 날이 올 것이기 때
 문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음
 니다. 처음에 그가 말씀하실 때 집을 살 능
 력이 있었을 가족들이 지금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 탁
 칠 재난에 대한 무서운 대 예언을 들을 것
 으로 기대하며 특히 복지 모임에서 더욱 그
 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대
 재난의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 줄 평범한 것
 에 관하여 조용한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
 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 여러
 가지로 예증된 것을 보아 작은 수단이 현명
 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느니라.”(엘 37 : 6)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
 는 권고가 평범하게 보이며, 일부 회원에게
 는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
 여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 권고는 처음에 복지 프로그
 램을 소개할 때 대관장님이 선포한 원리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
 림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
 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
 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
 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계를 확립하
 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
 금 스스로를 돕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
 해야 합니다.”(복지 사업 지침서, 1페이지)

자립에 관한 이와 같은 강조의 말씀은 교
 육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합니다. 우
 리는 교회가 우리 모두의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여행하면서 우리는 다
 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교회
 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
 공하면 교회에 영예가 돌아오고 수많은 사
 람을 유익하게 해줄 몇 가지 훌륭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뒤따릅니다.

그 예로서, 왜 교회에서는 회원들이 재정

적으로 안정되도록 준비시키는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나는 우리 집 대문 근처에서 담장을 만들 울타리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배달을 왔습니다. 그는 해외에 나가서 전투에 참가하고 최근에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나이를 속이고 학교를 떠나 해병대에 입대했었습니다. 내가 그의 장래 계획을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얻기는 어려웠으며 그에게는 아무 기술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졸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부학한다 해도 어쩌면 학교 생활에 꼭 어울리지 못할걸세. 그리고 학생들이 자네를 ‘영감이라고 하거나 할아버지’라고 부를 걸세. 그렇지만 자네는 전쟁터에서 적과 맞선 적도 있어. 틀림없이 자네는 그런 것에 맞설 용기가 있어.”

바로 이것이 교훈입니다. 나는 단 10분 동안 대문 옆의 통나무에 앉아서 그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도록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학비를 대주지도 않았고 그의 수업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도와 권고와 격려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경우, 그는 권고를 받아들여 복학했습니다. 지금 그는 가족과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에게 비전을 주고 격려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직장 문제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권고할 때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나라가 오랫동안의 정치 및 경제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숙련공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

역에 있는 우리의 몇몇 지도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형제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집회소에 직업 학교를 세우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직업에서 더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효력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투자될 돈은 그 형제들이 실일조를 통하여 현금하는 액수로 보상되기도 남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이 아이디어를 승인하지 않자 매우 실망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직업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직업 훈련 과정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피고용인을 훈련시키고 유경험자를 승진시키기 위한 강좌를 사업계와 공업계 및 정부가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갖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명을 받고 있으므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수많은 훌륭한 일은(이것은 교회의 사명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치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가치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만 교회가 우리의 직업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및 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술 훈련보다 더 우리의 직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평범한 미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엄한 인격, 신뢰성, 예의, 타인 존중, 재산에 대한 존중,

이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및 여러분의 자녀들은 적어도 처음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아마 아파트에서 셋방 살이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개 그 아파트를 중상층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어느 스테이크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를 보여 주면서 건물이 훼손된 것을 설명해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거의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말일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두 개의 못도 박고 경첩에 나사도 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이목을 끝 만큼 훌륭하고 깨끗하며 잘 보수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떠날 때는 다음 입주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직업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훈련받은 것이 우리 직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친께서는 여러 자녀가 있는 젊은 가장으로서 유타주의 브리감시티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초조한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담보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일하려는 마음과 어느 정도 기계에 관한 소질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은행가는 부친의 신청을 거절하면서

그가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퍼스트 웨스트에 있는 낡은 집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은행가는 출근 길에 그곳을 지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당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들이 하는 일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그들이 세를 얻어 사는 아주 초라한 흙벽돌집의 마당에 어머니가 심은 꽃의 힘으로 사업 자금을 대부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적은 수입으로 대가족이 살아갔으며 우리 자녀도 똑같은 특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직업에 대한 준비로 평범하고 필요한 일을 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작업대가 있고 일하던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때때로 이 장소는 지하실의 한쪽 구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별 문제 없이 약간의 페인트나 톱밥을 바닥에 둘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늘 어수선했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소년들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는 손연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면 훌륭한 금속계 연장통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가할 때는 자신의 연장통과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고 못을 박고 나사를 조이며 플러그나 수도 꼭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들은 요리와 바느질을 배웠으며 출가할 때는 모두 재봉틀을 갖고 갔습니다. 이 훈련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첫째는 가정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면에서, 그 다음에는 피고용인의 위치에서 누리는 강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아들에

게 재봉틀을 주지 않고 딸에게 연장통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화를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히 우리 아이들이 선교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요리 솜씨와 단추 다는 솜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딸들도 수도 꼭지를 바꾸고 못을 박으며 아들딸 모두가 타자도 칠 수 있고 자동차의 타이어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잘 맞지만 나는 한 개인으로서 남자나 여자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는 남자다운 일에, 딸에게는 여성으로서 그들이 갖게 될 기회에 적합한 일에 준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상식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이 일을 할 때 받는 봉급에 해당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일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날을 잘 계획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거나 작업대나 책상을 내일 일을 위하여 정리하려고 1분간 더 남아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일한 가치를 초과한 보상과 이익을 요구하는 태도는 점점 더 세계 경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근로자들이 단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분의 일을 하는 그런 정신이 좀더 일찍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그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책임과 팽팽한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학교 교육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유일한 수업료는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일이며 또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은 극히 부족한 평범한 미덕을 쌓으려는 열의입니다.

나는 너무 명백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간과하는 그런 평범한 것 대신에 여러분이 해야 할 좀 “거창한 것”과 사회 진출 계획을 위한 정교한 공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 실망하지 않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 저는 결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라.”(요성 75 : 2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공을 향한 공식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모두 그대로 생활하면 우리의 직업 선택이나 우리가 달성하는 것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일하라는 권고는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또는 여러분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견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셔서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을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실직 상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과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참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생활에 태초부터 복음의 일부였던 자립과 인격의 원리를 수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일과 복지 사업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 제2보좌

“교회가 조직된 이래 회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50여 년 전, 교회가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다음의 어떤 연사가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천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13페이지)

우리는 누구나 이 인용 말씀을 여러 번 들었겠지만, 과연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여러분의 성도들은 게으릅니까? 여러분의 모든 회원들은 자립하고 있으며 근면하고 절약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실업 수당을 받는 회원은 없습니까? 우리는 회원들이 자립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들을 돌봐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일의 중요성을 이해합니까? 여러

분이 스스로 만족하게 대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가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의 동생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한 후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 말한 수많은 모임에 참석했지 않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내가 스테이크 부장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복음 원리가 변한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 살든 살지 않든 그 원리는 변함없고 참됩니다. 이 원리대로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도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로마 제국의 패망의 원인을 기술한 대하 소설을 읽었습니다. 주로 그 멸망은 여흥, 싸커스, 음식과 같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익에 종사하는 자들의 지지를 많이 획득하는 데 기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민중들에게 기대를 심어 주었으나 결국 독재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동의 윤리는 점점 감퇴되고 있으며 노력하지 않고 얻는 수익에 비중을 두는 위험한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지 프로그램의 일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지시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일을 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십일조와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나 정부에서 그에게 생활비를 대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었으며 자신을 돌보기 위해 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절망과 절

오감을 느낀 그들은 그를 공동 묘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약간의 옥수수를 갖고 있으니 그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질이 벗겨진 것인가요?”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계속 갑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면 전혀 우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닌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로마를 멸망으로 이끈 그러한 문제로 위태롭게 됩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슬픈 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때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 가장 품격이 낮은 일은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맡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가 조직된 이래 모든 회원들에게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들이 얻을 것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이 소비할 것을 생산하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가 조직된 이래 그랜트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복지 원리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그랜트 대관장이 1936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가 말씀하신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일을 귀중한 것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습니다. (창세기 3:17 참조) 우리는 성경과 물론경 시대를 통해 이 원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진 몇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1년이 못되어 주님은 경제 체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주우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은 협동 교단이었습니다. 이 체제하에서는 개인은 그가 지닌 모든 것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가족을 부양하기에 필요한 것을 도로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육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졌습니다. 둘째로, 몸을 움직여 일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개인이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게 되면, 그들이 쓰고 남은 돈은 교회로 다시 바쳐집니다. 이와 같은 잉여액은 더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궁핍한 자를 돌보도록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미주우리주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이 궁핍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수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협동 교단은 1834년 계명에 의해 중단되었으나 이것의 기본 원리는 나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으로부터 나부로 건너온 5,000명의 개종자들의 질서 정연한 이민입니다. 좀더 부유한 회원들은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후에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부의 경제는 주로 농업과 건설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설 공사는 나부 신전 건립이었으며, 이 공사로 말미암아 많은 회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

다. 한 여행자는 나부에는 궁핍한 자가 없었는데 그것은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자리를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스스로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부 주민에게는 대개 0.4헥타르의 땅이 할당되어 거기서 그들의 생필품의 일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소채원을 가꾸고 대개는 닭과 젖소와 몇 마리의 돼지를 길렀는데 여러 날 노동한 대가로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부에서 도움을 준 목적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한 일과 생산을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속히 자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감 영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후, 교회에서 전적으로 자체의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는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문자 그대로 노동에 의존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게으른 자가 설 땅이 없었습니다.

브리감 영의 일과 고용에 대한 철학은, 1860년 8월에 그가 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에게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감독이 그의 부름과 직책에 충실하게 성실히 이행한다면, 그 와드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유리한 직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8:145—46)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프로그램도 변경되었습니다. 1880년까지 비교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왕국으로 버려졌던 유타가 주로 승격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기업을 팔았고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 지시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유타주는 국가 경제의 절대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여기서 교회가 다시 회원들의 고용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에 의지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를 맞춰 미국이 1890년대의 경제 공황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흥미있는 일입니다.

경제 공황 동안에 교회는 회원들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국을 설립했습니다.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값진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설탕, 소금, 석탄 등과 같은 산업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일과 고용에 관하여 교회에서 최대로 역점을 두어 노력한 것은 회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감독은 궁핍한 와드 회원의 일자리를 찾아 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와드내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사람을 임명하고 정월회 모임에서 문제를 토론하도록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파이안스 장로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설명하신 프로그램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적절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 교회 회원은 그들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도 일자리는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조처를 취했으나 그러한 방법은 게으름을 조장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 수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생산 계획의 본보기는 6개월 전인, 1936년 4월 21일자로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타주와 아이다호주 지역의 각

와드의 사탕무우 재배 사업 개요 제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와드의 감독단은 즉시 사탕무우 재배
에 적절한 40.4헥타의 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감독단은 가족의 규모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여러 형태의 노동, 즉
축음질, 호미질, 물대기, 사탕무우를 씻는 일,
사탕무우를 뽑아 뒷 부분을 자르는 일, 수
확의 시기에 마차에 실는 일 등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축음질, 호미질, 물대기 시기
와 그러한 일을 다 마치고 그들이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는 여름 동안에 살 수 있도록
선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
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
시기에 시작된다면, 다른 계절을 위해 보
다 많이 준비하고, 그 일로 실질적인 유익
을 가져 와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게 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양하게 하며, 그
들을 생산이 다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
는 것입니다. 그후로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
되었는데 그중의 몇몇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저렛 산업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를
고용하며, 의류나 가구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
을 빌릴 수 없는 사람에게 소매의 용자를
해주기 위한 기구로 조직되었습니다. 농업
위원회가 설립되어 교회가 생산과 판매를
위한 협동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어떤 일에
손을 대야 하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스스로 돕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 마음속에 복지 프로
그램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
실을 심어 주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그

당시 환경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그
원리와 목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융통성을 갖고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을 망
각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습니다. 우
리는 우리 성도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빈틈없고 창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에 속
해 있으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각자
의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곧 각 나라
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도 달라져야 함을 의
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
면서 그랜트 매관장이 언급하신 근본 목적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이 복지 모임에서의 주제는 일과 고용이
었습니다. 신권 중심의 교회 고용 체제는
모든 국가가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가장 유
익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축복을 받은 정원회 회원 여
러분이 일자리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일
자리를 찾아 주기 위한 성스러운 일에 참여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몸이 성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경우에, 우리는 감독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
을 찾아보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활
동의 기초를 명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모두 자립
적이고 근면하고 차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도와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
이 신성하게 되도록 이것을 성취하기 바랍
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
의 현재의 복지 활동은 보다 큰 의미를 갖
게 될 것이며, 오늘날의 사회에 요구되는 어
떠한 변화나 보충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
을 것입니다. *

진실로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는 승리로 이끄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나의 빛 늘 함께 하니
왜 두려워하리. (찬송가 103장)

오늘 밤, 우리 말일성도는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 나사렛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또한 그 이상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경배합

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대한 친구이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경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양모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교회와 왕국에서 매일매일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께 구원하는 사업에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을 기억하라…… 그런고로 만인”—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각자, 우리 모두—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빛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데 주님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교경 18:10-14 참조)

부르시는 분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세기 전에 육신의 인간으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그의 복음을 전했으며, 친구들과 개종자들을 그 주위로 모아 들였고, 소수의 회원들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자, 무리들이 그를 따랐읍니다. 한번에 4,000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5,000명이 모일 때도 있었읍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를 사랑했읍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개심되었으며, 그분은 그들을 모두 영접해 주셨읍니다.

흔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헌신적일 때가 많았으며 주님은 그로 인해 여자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훌륭한 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적들이 일어나 그

에게 죄를 씌우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했다 해서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고, 심히 모욕하며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듯이 그의 십자가를 두 명의 강도를 매단 십자가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셔 놓자, 그를 운구해 온 남자들은 곧 그곳을 떠났으나, 한 배의 충실한 여인들은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삼일이 지나서, 구세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 곧 부활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물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렸고, 그의 수의를 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실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모든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에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평범하지만 믿음이 강하고 충실한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어느 누구에게 보이기 앞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마리아라는 이 헌신적이고 겸허한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을 보았으며, 온 인류를 통해 처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천군 무리가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이에 대해 예언했고, 열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보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성이었습니다. 동산 안 무덤가에 있는 충실하고 믿음이 강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

다.

구세주의 속죄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것 중에서 결정의 것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의롭고 믿음이 강한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성을 존중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어머니는 아기 때부터 그를 기르고, 어린 시절의 그를 인도해 주고, 잃어버린 줄로 생각했던 그를 성전에서 찾아 내고,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게 한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1-49; 요한복음 2:1-11 참조)

그는 얼마나 그의 어머니를 존중했습니까?

구세주가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요한복음 4:26)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메시야로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애통해 하는 그가 죽을 찾아, 그의 전 생역 기간 중 가장 중요하다 할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37-38 참조) 여인이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일을 주께서 매우 뜻깊게 보셨으므로, 그와 같은 그녀의 경배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6-13 참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회개했을 때 그녀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11 참조)

병들어 고통받는 여인에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복음 9:22)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주님께 병든 딸을 고쳐 주시

를 애절하며 자신이 호소하는 모습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 먹는 자에게 비교했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그녀의 의중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 : 28)

그것은 아들을 잃고 애통해 하는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 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 : 12-15 참조)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성전 연보께에 넣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 : 42-44 참조)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헌신적인 여인들이 주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주께서 큰 관심을 보이신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교성 19 : 18) 고난 중에도 주님은 그의 모친께 가장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 : 25-27 참조) 구세주께서 마음속으로 관심을 보인 그 다음 사람들은 의로운 여성들입니까? 훌륭한 여성이 될 소녀들입니까? 주님은 그의 성역에서 주님을 도와 드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여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여주시고, 소녀들을 받아들이시며, 기혼 또는 미혼 여인들을 받아들이시며, 남자와 소년들을 받아들여주시며, 멀리 떨어져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시며,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로운 자와 회개하는 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말일성도 소녀들과 기혼 혹은 미혼의 말일성도 여성인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의 편으로 헤아림받고, 그의 편이 되고, 결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이 지상에 사실 당시 그의 교회들 세우신 것은 사실이지만, 영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교회를 변경시키고 없애 버렸습니

다. 주님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는 이 사악한 땅에서 교회를 취하여 더 좋은 때를 위하여 한동안 하늘에 간직해 두셨을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은 그의 복음을 이 지상에 다시 가져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자인 한 천사를 공중에 날게 하실 것입니다. (계 14 : 6-7 참조) 주님은 새로운 예언자를 세워 천사를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를 통해 진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니이 3 : 7-16 참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지금까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예언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역시 헌신적인 어머니가 그 옆에 있어, 어린 시절이나, 심한 병을 앓을 때나, 소년 시절부터 그에게 다친 박해 속에서도 이겨나가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복음 계획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익히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한 위대한 여인을 예언자의 아내로 세우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들 두 여인은 때로는 혼자서 아니면 함께 그를 보살펴 주고, 음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며, 폭도의 공격을 받은 그를 간호해 주었고, 그가 순교당할 때는 함께 애통해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박해와 죽음에 맞았으며, 결코 고난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말일의 예언자였으며 그가 천사로부터 받은 복음이 참으로 참된 것이라는 간증을 두 사람이 함께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알았습니다.

강하고 훌륭한 남자들도 역시 예언자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사물의 목적을 더 잘 꿰뚫어 아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충실한 여인에 의하여 더욱 훌륭하게 되었다.

후에, 그들은 개척자로서 서부로 갔습니

다. 남녀노소가 손수레와 소레를 이끌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록키 산맥으로 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해 가며,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시온을 세웠습니다. (사 2:2-3 참조)

이 여성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이 말일에 하나님을 위한 성역을 행할 성스러운 신권을 갖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여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책임을 받고 같은 대업을 위해 일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일의 사업의 기초를 닦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하고 의로운 소년 소녀들이며, 충실하고 성실한 소년 소녀들이며, 부모님들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소년 소녀들입니다. 횃불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나가세. 나가세!”하고 외쳤습니다. (찬송가, 133장 참조) 이들 젊은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노래했습니다.

선조들이 품은 참된 신앙
순교자들이 생명 바치신 진리
(찬송가 146장)

그것은 모든 말을 다 함축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횃불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조들이 한 대로 우리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겁을 내고 피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쇠막대를 잡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과 우리가 일할 교회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며, 그의 딸과 아들들이 똑같이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곧 오늘 저녁에 우리 각자를 젊거나 늙거나,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를 불구하고,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가담하게 하고,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받아들이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나라와 혈족과 언어와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믿음을 갖고 진리를 알며 순결하여, “악한 날에 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성 27:15-18 참조)

주님도 승리로 이끄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께서 하신 대로, 순결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같이, 우리도 친절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하신 대로 모든 악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악마가 주님을 부와 권력으로 유혹하고 나서 굶주린 그를 유혹했을 때 주께서 투시퍼를 물리치신 일을 잊을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우리가 떡만으로 살려 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나, 세상적으로 인기있는 표준으로 살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주님은 앞서 주 앞에 다른 신, 곧 쾌락의 신이나 자기 만족의 신을 두지 말라고 한 명령을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주님은 그가 하신 대로, 우리가 덕스럽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그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진실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용서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하신 대로,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하신 대로,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마 6:26,28 참조)

주께서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주는 우리가 운명의 횃불을 들고 충실해지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매일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내야 할 때라도 의인은 보호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요성 35:14 참조)

우리가 주님을 받든다면, 주께서 우리 곁에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곧 그리스도의 말일성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찬송하고 우리 살리시려
갈보리 피 흘린 주께 영광을 돌리세.

피로서 우리 구해 주신 우리 왕 만만세.
주께로 가는 길 우리 가라 하시네.

(찬송가 179장—찬송가에 6절은 번역되어 있지 않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외 방문자



서로 공감을 느끼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훌륭한 여성, 선택된 여성, 거룩한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여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어느 주말,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물론 어머니인 하이디 자매는, 구름이 잔뜩 낀 아침에 집을 떠나 파이어니어 스테이트 파크로 차를 몰고 하이람 스미스의 부인인 메리 필딩 스미스의 복원해 놓은 집으로 갔습니다.

하이디 자매는 메리 자매님 당시에 입던 옷을 회상시켜 주는 의상을 입고, 종일 근처 학교에서 이 작은 집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맞아 주며, 그곳에서 그들에게 사과를 팔러서 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에, 햇빛이 구름 사이로 오후의 하늘을 밝게 비추어 하루의 일을 돌이켜 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이디 자매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언덕 위의 작은 벽돌집에서 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오래되고 찌그러진 유리창을 통해 빛이 나의 영혼으로 스며들어 참으로 온화하고 밝은 느낌을 느낄 때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그녀가 서 있는 보잘것없는

가구로 꾸며져 있는 이 조그마한 집과 그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자신의 집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집이 나의 가족에게 힘과 신앙과 피난처가 되어, 메리 자매님의 작은 집에서 그들 가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듯이 진리를 확인하고 간증을 강화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생활 방식은 다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동감했다. 그러한 비슷한 점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간구한다.”

메리 필딩 스미스 자매님의 생활 환경은 하이디 자매의 환경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났던 중대한 시기에 메리 필딩 스미스는 어린 자녀들이 ‘줄줄이 달린 미망인이었습니다. 나부에 있을 때도, 그녀는 물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주민과 폭도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의 집을 버리고 황소가 끄는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고달픈 고생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류와 그녀가 사랑한 복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새롭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강하게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메리 필딩 스미스 자매를 끝없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가게 했던 복음의 유대는 시간과 시련을 초월하여 예나 이제나 자매들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도록 권유를 받은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

음은 그녀에게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고 배움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고 헌신적인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소망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훌륭한 자매인 도시꼬 자매는 이런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디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하는 참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선교사들이 나를 찾아주었고 나는 물문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내가 찾고 있던 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막에서 물을 갈구하듯이 복음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에 최초로 검은 피부를 가진 자매들만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의 한 상호부조회의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다른 면에서 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배웠고,

나의 가정이 즐거운 곳이 되고 복음을 믿고 생활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나라의 여성,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 곧 독신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 나이가 든 여성, 젊은 여성, 새로 회원이 된 여성, 슬픔에 잠긴 여성, 절망에 빠진 여성, 행복한 여성들이 서로 다른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환경과 재능과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위대한 진리가 나와 계속 메아리가 되어 울려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나를 강하게 하며 나의 영혼을 지지합니다.”

이 간증은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너무나 같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의 인원과 함께 참석하고 있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두 자매. 좌로부터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제2보좌인 셸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그리고 본부 청녀 회장단 제 1보좌인 앨린 비 다저 자매



궤심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엘 심은 장로를 중심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왼쪽의 궤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칸 로스 이 예시 장로와 같은 정원회의 궤 예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로마서 12 : 5)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지녔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이며, 그분의 생활 방법은 진리와 사랑과 빛이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오래 전에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가 노래했던 것과 같이 복음은 “똑바로 이성을 보”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118장 참조) 복음은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복음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흑과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빛입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의 영원성을 밝혀 줍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잠재력으로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은 때때로 그 차이점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극동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한 아름다운 자매가 처음으로 금발의 머리와 푸른 눈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푸른 눈은 그녀에게 너무도 이상해 보였으며 후에 그녀는 지금은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그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었다고 그때의 심정을 털어 놓았습니다.

피부 색깔과 문화 수준과 재능과 기호 등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동에서 온 그 자매에게 파란 눈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차이점의 가치를 배움으로써 우리도 자신의 독특함을 보다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취시킨 것을 존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나 동료의 성취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안정감과 우리 자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각자에게 이와 같은 신뢰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느끼고 이해하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가 사랑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합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위대한 사명은 우리를 구원과 승영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고 증거합니다.
3.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한 번에 한 발자국씩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4. 개인적인 인도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남을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합니다.
5.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목표를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됩니다.
6.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며 주님의 사업을 신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7.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훌륭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이해하고 힘을 얻습니다.

8.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대가를 지불합니다.

9. 비이기심의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때와 환경에 따라 적용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서로 동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모든 사람들 곧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기혼자나 청년나 할머니까지도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없으며 육체적인 모양 또는 결혼 상태, 기회 또는 책임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한계를 짓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영혼 속에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가 행하신 대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외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성한 자질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훌륭한 여성, 선택된 여성, 거룩한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여성이기는 하지만 함께 신앙과 간증을 나누는 위대한 자매애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더 자매와 같이 우리는 힘과 신앙을 간구하고 하늘의 빛이 구름건 11월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듯,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공감함을 느끼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왼쪽은 테디에서 말씀하신 신이시도 정선희의 마르 에 피데를 광로와 분부 장호부르의 외광인 마라타 비스미스 자매

기쁨을 찾으십시오



엘레인 캐너
본부 청녀 회장

“등에 지면 큰 짐이 되는 것도 손으로 쥐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귀중한 유산의 일부는 우리가 가는 길에 큰 시험이 닥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고통

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유익은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영혼을 살찌게 해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며 마른 가지에도 다시 싹이 트는 법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일상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겨울에도 아무도 이겨 낼 수 없는 여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고 아름답고 새롭고 현명하고, 세상을 조금 더 살았고, 다소 고통도 겪었으며,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이 깨어진 적도 있으며 말일에 우리 모두에게 들이닥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적도 있을 것이며, 병에 걸



진지인 제인 위원회의 요시미쓰 기독교 장로와 데티 방문자들

리고 신앙이 무너져 흐르는 눈물로 뺨을 적시며 밤에 베개를 적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나의 사랑과 동정을 보내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지하시며,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지금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수 있게 해주신다는 나의 복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시험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너무 쓰기 때문에 단 맛을 더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시험을 겪은 후에야 신앙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더서 12:6 참조)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여러 하나님이 인생의 계획에 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므로 모두 지상에 내려와서 시험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내려가서 배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이겨 내며,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며,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을 이겨 내고, 고등학교에서 오직 말일성도로서 생활하며, 가정에서도 말일성도로서 행동하며,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 온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아브라함서 3:25)

시험은 생의 각 단계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어린 소녀가 타고난 자신의 모습에서 불행을 느낀 나머지 같은 십대의 자기 오빠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오빠는 머리털이 굵슬거리고 코는 뾰족하니 참 공평하지도 않아.”

그러자 그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코가 뾰족하지 않고 머리털이 짙었으니 얼마나 좋겠니!” 그 형제들은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러한 중에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커다란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삶의 형태 또는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성품을 일순간에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경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준비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그리고 율과 같이 조금도 굽힘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 역경을 잘 이겨 내면 우리의 이해와 동정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역경을 겪고났을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깊은 곤경에 빠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될 때 더 열렬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이곳에는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경을 맞는 태도에 따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레몬(문제)과 레몬수(보다 훌륭한 것)의 관계와 같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하며 심히 불평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원리가 지금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가장 중대한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원리를 알아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율법 곧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에 따라 생활하

는 것입니다. (교성 130 : 21 참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분의 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거나 늙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몇 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루이스 레이크 자매님은 30년 이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녀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뒤따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훌륭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열심히 축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욥기 2 : 9 참조)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으며 그녀가 고통에 관해 배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 본부 청년 회장단의 보좌였던 러루 룡든 자매는 와드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어린 딸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 자매님과 룡든 형제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드리던 중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모든 지도자와 청년들은 꽃을 들고 통로에 죽어 서서 그들의 회장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에 그 자매님은 그들이 그녀를 지켜 보고 있음을 언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룡든 자매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14세 된 자매는 암과의 투쟁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자녀를 가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청년 주제인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시편 27 : 1)가 그 시험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원리를 찾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나와 특별한 정을 나누는 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몸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맡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위안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는 멀리 선교사로 떠났으며, 감독은 바쁘고 가정복음 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다가 지친 나머지 경전을 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교성 88 : 63) 여기에서 그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씀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연령층의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통하여 힘을 구할 수 있고 축복사의 축복을 통하여 위안과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홀로 남겨 두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은 모사이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쳐들고 흡족히 위로를 받을지이다. ……또한 너희 어깨에 매어진 고난의 짐을 가볍게 하여 너희가 속박되어 있을 동안 너희가 등에 짊어진 것으로 고난을 느끼지 않게 하리니, 내가 이렇게 행하려는 것은 이제로부터 너희

를 나의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진실로 내가 주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 위로하는 이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4 : 13, 14)

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뼈아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에게 등에 지면 큰 짐이 되는 것도 손으로 쥐면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

생의 계획에서 그리스도와 화평의 증인이 되기 위해 시련의 때에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기쁨을 찾읍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시련의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도와 모두 기쁨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원 일꾼 박지 부회장장과 의논하고 있는 오른쪽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회장

성장하라는 권유의 말씀



드웬 제이 영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 리들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각 인간의 무한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의 때에 관해서는 매우 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낳은 자녀들의 출생 시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3년 동안 심히 기다리던 끝에 태어났습니다. 그 때는 2.25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마치 기적과 같았으며, 나는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내 자신의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생의 목표와 가능성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 혼들면서 나의 입술은 자장가를 부르면서 부드럽고 개별적인 말로 그들의 장래에 대한 나의 꿈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품에 안고 잠재우는 이 잠재력의 기적 곧 창조의 마지막이 되는 인간의 자녀를 보고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성장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자체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육체적인 성장의 과정에 급속하게 돌입하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안되어 아기의 몸무게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노래에서처럼 어느새 아이가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고 아가씨가 되어 집을 나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배우기 시작하면, 이것은 마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멈추는 일이 없이, 다만 성장하고 배우는 능력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흉내내다가 차차 스스로 발견하거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단 한 번 새로운 기술을 알려 주고 새로운 임무를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도 그들은 스스로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며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성장 과정을 지켜 볼 때, 우리는 모든 성장이 근거를 두게 되는 어떤 영원한 원리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첫째, 성장은 예견된 기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지상에 올 때 주어지는 거룩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 심되는 진리를 즐기고 기리기 위해 생의 위대한 은사를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이 지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다른 어느 곳에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곧 우리는 다른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때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잡초나 성경에서 나오는 가라지까지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 계획을 세우되 “쑥쑥 자라는, 톱스(연클 톱스 캐빈에 나오는 노예

소녀)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님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훈련시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 나가며 그렇게 하여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특성을 더욱 위대하게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잘 관찰해 보면 우리에게 성장은 한번에 조금씩 오게 됨을 압니다. 경전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성 98 : 12 참조)

어린 아기가 비틀거리면서도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배어 놓고 한 번에 한 마디씩 배우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자국씩 돌보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개념씩 익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이사 28장 30절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는 가진 것조차 빼앗아 버리리라.”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의 자연 현상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일종의 놀라움과 경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노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새 늙어가고” “어린이가 언제 그렇게 자랐는가?” (“선라이스, 선셋” 지붕 위의 바이얼린, 뮤지컬) 우리 집에는 어린이들이 키를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책으로 그들은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후 키가 자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자랐으면 환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키가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기쁨과 만족은 지속적인 선택과 노력에 의해 성취된 변화에서 옵니다.

나는 아با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어린 아이를 기억합니다.

“나한테 무언가 하기 힘든 일을 주세요.” 아빠는 그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생각하여 내 주면, 아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무언가 어려운 것을 주세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들고 가거라. 이걸 네가 들고 가기 어려울 거야.” 아이는 서류 가방을 잡았습니다.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비틀거리면서 결국 가방을 집까지 들고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성취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이며, 크게 힘들여 꾸준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험난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궁극적으로 소망과 신앙이 요구됩니다. 엘마가 훌륭하게 설명했듯이 우리는 마치 씨앗과 같이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볼 때 완전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엘마서 32 : 28—43 참조) 일단 준비가 다 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



대희 방문자

아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성장이 따르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다음 짓거를 기억하십시오.

날다가 잠시 멈춘 새와 같이 되리.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는

너무 약해 부러질 듯하지만

날개가 달려 있음을 알고

즐거이 노래하네.

(시를 위하여, 메이힐 아버스넛 편, 시카고 : 스캇, 포어스맨사, 1961년, 202페이지)

우리가 새와 같이 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알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 때 새로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이 흔히 그들의 활동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몸과 정신이 자라게 되면 차차 자신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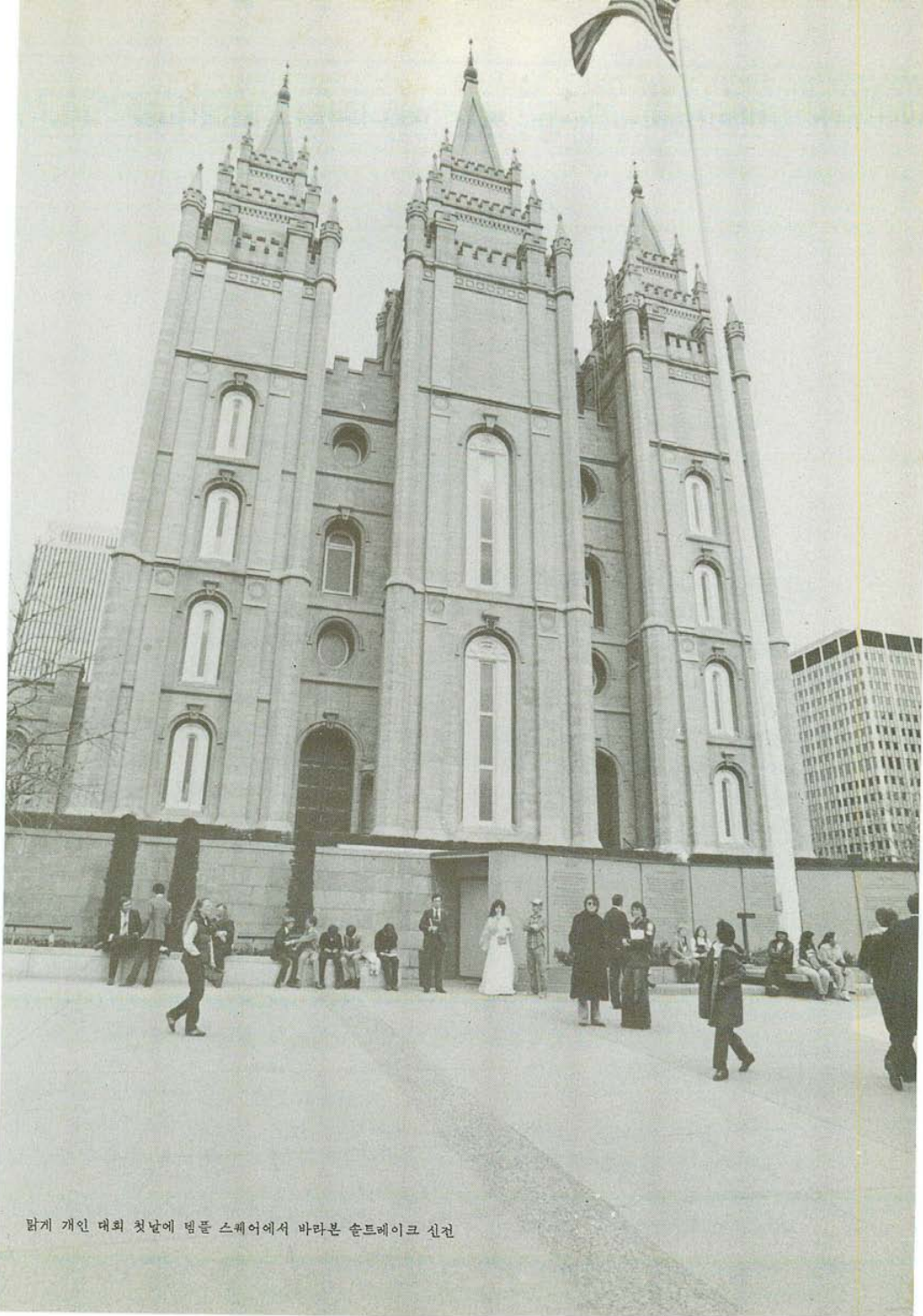
“여러분은 자신이 가져 온 햇불에 스스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생명의 말씀, 찰스 엘 윌리스, 뉴욕 : 하퍼 앤드 로우사, 1966년, 91페이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라는 주님의 권유의 말씀(요한복음 10 : 10 참조)을 받아들이는 의지로 매일 투쟁해 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라는 권유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원칙적인 제일 정원회 에이 디어더어 터플 장로가 해외 방문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함께 개인 대회 첫날에 델몬 스퀘어에서 바라본 솔트레이크 신전

